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1995 – 2024

2024. 4. 19 – 9. 8,
물타기사단 수도원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19. 4 - 8. 9, 2024,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Every

Island

is a

Mountain

이 책은 2024년 4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베니스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개최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와
연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This Publication was launched in
conjunction with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1995-2024, held at the Palazzo
Malta—Ordine di Malta from April 19
to September 8,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주최/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감사
김성범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감독
임근혜(아르코미술관 관장)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2023.10~2024.5)

유병은
강보경

여선희
임재휘

이준영
유지연

아르코미술관 운영팀
(2024.5~12)

최혜주
김무열

여선희
이준영

유지연

자문

역대 커미셔너/예술감독

오광수

송미숙

박경미

김홍희

김선정

안소연

주은지

윤재갑

김승덕

이숙경

이대형

김현진

이영철

예술위원회

김미라 위원

김진각 위원

서승미 위원

홍상태 위원

공식후원

현대자동차

후원

신한은행

협력

러쉬코리아

운송지원

대한항공

오프닝 퍼포먼스 공동기획

백남준아트센터



www.arko.or.kr/kr-pavilion

Hosted and Organized by
Arts Council Korea

Chairperson
Byoung Gug Choung

Auditor
Kim Sungbum

Director General of
Secretariat
Song, Si Kyeong

Artistic Director
Jade Keunhye Lim (General
Director, ARKO Art Center)

Venice Biennale TF
(2023.10~2024.5)
Byungeun Yoo
Bogyoung Kang
Sunhee Yeo
Jaehwi Lim
Junyoung Lee
Ji Yeon Yu

ARKO Art Center
(2024.5~12)
Hyeju Choi
Mu Yul Kim
Sunhee Yeo
Junyoung Lee
Ji Yeon Yu

Advisers

Former curators of Korean
Pavilion
Kwang-su Oh
Misook Song
Kyung-mee Park
Kim Hong-hee
Sunjung Kim
Soyeon Ahn
Eungie Joo
Yun Cheagab
Seungduk Kim
Sook-kyung Lee
Lee Daehyung
Hyunjin Kim
Young-chul Lee

Council members of ARKO
Kim Mi Ra
Kim Jin Gak
Suh SeungMi
Hong Sung Tai

In partnership with
Hyundai Motor

Sponsored by
Shinhan Bank

Collaborator
LUSH

Supported by
Korean Air

Opening Performance
Co-production
Nam June Paik Art Center



www.arko.or.kr/kr-pavilion/e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발간사	정병국	10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를 기획하며	임근혜	14
미래의 한국관을 약속하는 섬과 산의 공동체	심소미	24
<hr/>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 공연		40
작가 및 작품		49
<hr/>		
파편적 성좌, 그리고 ‘모든 섬은 산이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정연심	190
현재진행형의 아카이브	호경윤	202
아쿠아 알타의 시간	김해주	212
디어 오션 프렌즈	조주현	218
<hr/>		
공공프로그램		228

Preface	Byoung Gug Choung	11
<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i>	Jade Keunhye Lim	15
The Community of Islands and Mountains Pledging the Future of the Korean Pavilion	Somi Sim	25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Performance		40
Artworks & Artists		49
The Fragmented Constellation, Where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 Years Since 1995	Yeon Shim Chung	191
The Present Progressive Archive	Kyoung-yun Ho	203
The Time of Acqua Alta	Haeju Kim	213
Dear Ocean Friends	Juhyun Cho	219
Discourse program		229

발간사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24년 4월 18일,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와 함께 한국관 개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의 개막식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이 베니스의 유서 깊은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1995년에 비엔날레의 주 무대인 자르디니의 마지막 국가관으로 한국관이 지어진 이후 열다섯 번째 미술전이 열리는 해이자 개관 30주년을 한 해 앞둔 해이기도 합니다. 전시 개막식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은 한국관의 역대 커미셔너, 예술감독 및 참여 작가는 물론 세계적인 미술인을 포함한 국내외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관의 성과를 축하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미술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 무대가 되어준 한국관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한국관 전시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재단의 공식 병행 전시 4건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한국 작가 또는 기획자의 전시가 열린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술위는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한국미술의 통합 홍보 플랫폼을 자처하고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한국관 전시의 행정 지원뿐 아니라 아카이빙, 네트워킹, 펀드레이징 등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커미셔너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11 **Preface**

Byoung Gug Choung (Chairperson,
Arts Council Korea)

The opening ceremony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being held concurrently with the 60th Venice Biennale, took place at the historic Ordine di Malta in Venice on April 18, 2024 under the title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This year marks the Korean Pavilion's 15th art exhibition since its opening in 1995 as the last national pavilion in the Giardini, the main venue of the Biennale, and we are also just one year away from the pavilion's 30th anniversary. The opening ceremony,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was a festive celebration, joined by more than 500 guests from home and abroad, including former commissioners, curators, and artists who represented the Korean Pavilion as well as key figures from the international art scene, all who congratulated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Pavilion and welcomed each other cordially. It w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ever-rising prestige of Korean art in the global art arena and take pride in the Pavilion for having served as the stage for its progress.

This year will be remembered as a particularly special year, as many special exhibitions featuring Korean artists or curators opened concurrently with the Venice Biennale—not only *Every Island is a Mountain*, but also more than ten other exhibitions, of which four are official collateral events of the Venice Biennale Foundation. Arts Council Korea served as the integrated platform for publicizing Korean art, bridg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sought to create opportunities to promote Korean art. Additionally, the special exhibition became a turning point, allowing Arts Council Korea to re-establish its role a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provid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its exhibitions, archiving, networking, and fundraising activities.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3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의 취지에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 참여 작가분들의 섬세한 협조와 역대 예술감독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를 공식 후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신한은행, 에르메스, 러쉬코리아, 대한항공 등 여러 후원사와 협찬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이정표 삼아, 특별전시 개막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문화, 외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관 건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고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오프닝 퍼포먼스를 공동기획한 백남준아트센터,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비엔날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공공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한 드리프팅 커리큘럼, 협업 기관 TBA21 재단의 오션 스페이스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시를 총괄 기획하고 운영한 아르코미술관 및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함께 전시 기획에 참여한 큐레이터, 디자이너, 본 도록에 귀한 글을 실어준 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섬은 산이다》의 전 과정을 수록한 이 도록을 길잡이 삼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I wish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was involved with us in the Korean Pavilion's 30th anniversary exhibition and provided support, both materially and emotionally. Special words of acknowledgement go out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for their meticulous engagement and former curators for their generous advice. To Hyundai Motor Company, the official partner of the exhibition, and many of our sponsors and collaborators, including Shinhan Bank, Hermès, LUSH Korea, and Korean Air—we are sincer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I extend my words of gratitude to the public officers in the culture and foreign affairs divisions who joined us at the exhibition opening and delivered special addresses as we also commemorate the 140-year milestone in the Korea-Italy diplomatic relations.

I also deeply thank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team, with whom we co-curated the opening performance in memory of Nam June Paik who made key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of the Korean Pavilion, Drifting Curriculum, with which we co-organized a public program on art in the Anthropocene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biennial system, and our collaborator TBA21 Academy at Ocean Space. Finally, I express my gratitude to ARKO Art Center, the Venice Biennale TF, and the curators, designers, and contributors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My hope is that this exhibition catalog that traces the entire journey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will serve as the guiding light for the Korean Pavilion as it continues to walk for greater achievements, toward the vision of a sustainable future.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를 기획하며

임근혜 (예술감독 / 아르코미술관 관장)

1. 한국관 커미셔너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기획자가 담당했으나, 이후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 전시기획자가 예술감독(curator)의 역할로 이원화됐다.

2.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 웹사이트 www.arko.or.kr/kr-pavilion은 아카이브북, 전시도록, 연계 프로그램 동영상 등 전시 관련 콘텐츠를 국영문으로 수록하여 전시 종료 후에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의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한국관 30년, 연결과 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시각예술 국제교류 사업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이 국제교류부에서 아르코미술관으로 부서 이관된 것은 2023년 7월이다. 이를 계기로, 역대 예술감독¹과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커미셔너로서의 예술위의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재원확충과 시설개선 외에도 매회 새롭게 선정되는 예술감독과 작가가 베니스비엔날레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얻은 다양한 유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공공재로 환원하기 위한 아카이빙과 연구 방안, 즉 그리고 효율적인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와 홍보마케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주체이자 커미셔너로서의 예술위의 역할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한국관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기획한 일련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² 전시에 앞서 2019년부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협조로 기획한 한국관의 공동설계자 프랑코 만쿠조 교수와의 대담, 한국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15회에 걸친 미술전시의 회차별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북 『마지막 국가관』 출간,

근현대미술사학회와 공동기획한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한국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이 도록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의 전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개별적으로 기획되었던 한국관 전시를 하나의 전시로 펼쳐내는 일은 매우 큰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 자체의 서사와 한국 동시대 미술의 성좌를 이루고 있는 예술감독과 작가의 존재다. 1990년대 냉전 체제 붕괴 이후 글로벌리제이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로컬과 글로벌이 교차하며 한국미술의 과거-현재-미래가 전개된 공간이자 동시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일년 동안 전시를 위해 역대 커미셔너/예술감독과 참여작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실무를 논의하는 과정 자체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의 동시대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과도 같았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기억과 기록의 편린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관이 단지 한국 작가를 세계에 선보이는 전시 공간일 뿐 아니라 비엔날레가 제시한 거대 담론과 상호작용하며 글로벌 미술의 동시대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장소라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Jade Keunhye Lim (Artistic Director)

1. From 1995 to 2017, the curato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also served as the commissioner. Since then, the Arts Council Korea, the operating organization, has divided these roles, with the Council itself assuming the role of commissioner while designating a separate curator for the exhibition.

2. The website for *Every Island is a Mountain* (www.arko.or.kr/kr-pavilion/en) features all exhibition-related content, including the archive book, exhibition catalogue, and videos of related program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is site will continue to function as an archive for the exhibition even after it has concluded.

모든
섬은
산이다

30 Years of the Korean Pavilion: Connections and Discoveries

In July 2023,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a flagship international project of Arts Council Korea (ARKO), transitioned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to ARKO Art Center. This transi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assess and realign ARKO'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As a result of collecting expert opinions from the industry as well as from former curators of the Korean Pavilion, a consensus emerged on expanding ARKO's roles beyond the ongoing need for securing additional funding and improving facilities.¹ This includes reinforcing archiving and research to transform the diverse tangible and intangible social capital accrued by the curators and artists, who are newly appointed each year at the Venice Biennale, into public assets for future generations. It also involves enhancing networking and marketing efforts to effectively disseminate its achievements.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Korean Pavil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is not just a one-off event but part of a series of projects conceived and plann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Korean Pavilion to move forward into a new future, grounded in a thoughtful reflection on ARKO's role as the operator and 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² The exhibition builds upon key components, including a conversation with Professor Franco Mancuso, one of the

architects of the Korean Pavilion,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ARKO Arts Archive, which has systematically collected related materials since 2019; the publication of the archive book *The Last Pavilion*, which contains information from 15 editions and various studies on the pavilion's history and the curatorship of Korean exhibitions at the Venice Biennale; and an academic conference on the sustainable future of the Biennale, jointly organized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This catalogue encapsulates the entire process of the 30th-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titled *Every Island is a Mountain*. Bringing together the Korean Pavilion exhibitions, which had been individually curated over the past 30 years, into a single cohesive exhibition was a significant challenge. Nevertheles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project was the narrative of the Korean Pavilion itself, along with the presence of the curators and artists who form the constellation of contemporary Korean art.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born in the irreversible wave of globalization following the Cold War's demise in the 1990s, can be regarded as a space embody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art. It stands as an emblem of the current times in which the local and the global interact to forge contemporaneity. Over the past year, the endeavor of consulting former curators and participating artists to seek advice and deliberate on

섬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여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개막 주간에 첫선을 보인 《모든 섬은 산이다》는 한국관 역대 참여작가 중 36명을 한자리에 초대하여 한국미술이 지나온 30년간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전시 제목 ‘모든 섬은 산이다’는 ‘예술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연결’을 상징한다. 이는 섬과 섬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해저 지형과 해양 생태계로 산맥처럼 연결되듯이 고립된 개인의 삶과 예술이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전시를 통해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갈라놓은 유라시아 연속체에 대한 상상과 초연결의 미디어 기술을 통해 분열된 세상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백남준의 예술이 이번 전시의 개념적 출발점이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기후 위기와 생태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생명의 순환으로서의 섬에 대한 상징과 은유를 담은 출품 작품, 베니스 지역 해양 생태학자 및 활동가와의 교류 그리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인 에두아르도 글리상의 ‘군도적 사고’의 개념이 전시 구성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물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린 《모든 섬은 산이다》는 과거-현재-미래, 개인과 공동체, 지역과 글로벌,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예술적 사유와 실천에 주목하며

1995년 한국관 개관 당시 선보인 작품부터 최근의 신작까지 지난 30년간 생산된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 개인의 예술 작업이 다양한 감각과 서사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예술적 비전으로 연결되며 섬과 산을 넘나드는 상상적 풍경으로 펼쳐졌다. 도입부에는 아르고 예술기록원이 수집한 한국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했다. 전시는 작은 방이 밀집한 수도원의 실내와 고즈넉한 중정 그리고 탁 트인 야외정원으로 펼쳐지며 베니스의 중세와 한국 동시대의 시간이 서로 중첩되었다. 그리고, 중간 지대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운드 아트는 군도처럼 존재하는 개별 작품을 바다처럼 둘러쌌다. 또한, 자르디니에 위치한 한국관의 아웃라인을 본떠 만든 야외 정원의 ‘투명한 파빌리온’은 수도원의 이웃과 비엔날레 방문객에게 열린 휴식과 장소이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기관 및 기획단체와의 협업으로 진행될 공공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유의 장소로 기능했다.

방법으로서의 섬과 바다

30주년을 위한 특별전시를 만들기 위해 비엔날레 재단 대표부터 베니스 주민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을 만나고, 전시 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 문화재관리국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30년 전

practical matters for the exhibition was akin to mapping the landscape of contemporary Korean art, with the Venice Biennale serving as a milestone. Through the process of interlinking scattered fragments of memories and records, it became clear that the Korean Pavilion is not merely a space showcasing Korean artists to the world but also a site that engages with the grand narratives presented by the Biennale's them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global art's contemporaneity.

Journey from Island to Mountain

Through this process, *Every Island is a Mountain* was opened. Debuting during the opening week of the 60th Venice Biennale, the exhibition brought together 36 artists who had previously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vilion, showcasing the journey of Korean art over the past 30 year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symbolized the connection between time and space through art. Just as islands are interconnected beneath the sea through underwater terrain and marine ecosystems, the theme suggested that individual lives and art are intrinsically linked to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Serving as a conceptual anchor was the philosophy of media art of the late Nam June Paik,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the Korean Pavilion. His Golden Lion prize-winning work at the German Pavilion in 1993 proposed that envisioning the Eurasian continuum and the unifying potential of media technologies could reconnect a world divided by West-

ern-centric ideologies. Additionally, the exhibition drew inspiration from conversations with participating artists about the exacerbated ecological and climatic challenges follow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It included artworks that used islands as symbols and metaphors for the circle of life, engagement with marine ecologists and activists in Venice, and "archipelagic or oceanic thinking," emphasizing a non-hierarchical, decentralized approach.

Hosted at Ordine di Malta, *Every Island is a Mountain* showcased artistic thought and practice that transcended the boundaries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individual and community; local and global; and technology and art. It featured works produced over the past 30 years, from those presented at the opening of the Korean Pavilion in 1995 to recent works. The artists' individual practices, interwoven through diverse senses and narratives, resonated with universal human values and artistic visions, unfolding into imaginative landscapes that spanned islands and mountains.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exhibition featured a documentary video that reinterpreted archival materials related to the Korean Pavilion, collected by ARKO Arts Archive, thereby recalling past memories to the present. The exhibition extended into the Palazzo's intimately clustered chambers, tranquil courtyards, and outdoor gardens, intertwining the timelines of medieval Venice with contemporary Korea. Furthermore, intermittent sound art pieces in the interstitial spaces enveloped the individual

자르디니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다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관을 지은 공동 건축가 고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 그리고 한국관 건립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미술인과 문화행정가들의 노고를 미약하게나마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작가와 큐레이터를 포함하여 500여명의 국내외 미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라이브 퍼포먼스 〈본 조르노, 시노르 백〉(백남준아트센터 공동기획)은 한국관 건립에 기여한 많은 인물 중, 동과 서, 유럽과 아시아,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에 대한 헌사이자 전시의 인트로였다. 전시 기간 중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중정에서 진행된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드〉를 비롯한 공공 프로그램 역시 로컬과 글로벌이 조우하고 교감하며 연결되는 또 하나의 섬이자 산이 되었다. 이처럼 오픈형 퍼포먼스와 담론 프로그램은 한국관 건립 당시와 3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을 연결하는 서사와 맥락을 제공했다.

『모든 섬은 산이다』의 기록

전시 개막에 맞춰 발간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년 미술전 아카이브북 『마지막 국가관』³이 한국관 건축설계자, 역대 예술감독, 참여작가의 글과 자료를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면, 본 도록은 30주년 특별전시《모든 섬은 산이다》의 전시 기획에 참여하거나 직접 관람한 다양한 필자의 시각으로 한국관의 현재를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시구성을 담당한 심소미는 본 전시가 “기념전의 형식과 위계 및 규약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관과 한국미술의 서사를 현재 진행 중인 지식이나 실천으로 접근”한 과정을 글에 담았다. 아카이브 연계 출판과 전시를 담당한 호경윤은 전시 아카이빙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을 “수동적으로 보관된 기록물이 아닌, ‘지금-여기’의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동적인 자원으로서의 아카이브 실천(practice)”으로 풀었음을 밝힌다. 베니스비엔날레의 오랜 관람객이자 연구자인 정연심 교수는 본 전시가 “한국미술이 국제적인 담론과 함께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평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 싱가포르 큐레이터로 참여한 김해주는 국가관의 유효성에 질문을 던지며 “탈세계화에서 더욱 국수주의로 향해가는 현재에 그나마 이렇게 세계의 조각들과 몽상의 꿈을 모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전시연계 담론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한 조주현은 동시대 미술과 제도기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타진하며 “베니스 지역의 생태 환경적 문제의식을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해역의 문화적, 역사적

3. 아카이브북은 전시 웹사이트 www.arko.or.kr/kr-pavilion의 ‘연보’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works, much like islands embraced by the sea. The Transparent Pavilion, nestled in the outdoor garden and modeled after the Korean Pavilion in Giardini, provided a haven of respite for both the Palazzo's neighbors and Biennale visitors.

Island and Ocean as Methodologies

In the process of curating this 30th-anniversary exhibition, we engaged with a diverse range of individuals, from the people of the Venice Biennale Foundation to the neighbors of the monastery, the exhibition venue. Navigating the stringent approval procedures of the heritage authority of the cit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xhibition space allowed us to gain a modest yet profound appreciation for the dedication and efforts of the late Seok Chul Kim and Franco Mancuso, the co-architects who constructed the Korean Pavilion in the Giardini Garden 30 years ago under the condition of "not harming a single blade of grass or tree." This experience also reminded us of the contributions of the artists and cultural administrators who devoted themselves to realizing the Korean Pavilion project.

The live performance *Buon Giorno, Signor Paik*, co-presented by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over 5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 professionals, served as both an introduction to the exhibition and an homage to the late Nam June Paik, a media artist who, among the many contributor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pro-

posed a new worldview that transcended the boundaries between East and West, Europe and Asia, and center and periphery. Additionally, during the exhibition, public programs such as *Dear Ocean Friends*, a discourse program held in the courtyard space connecting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Ordine di Malta, functioned as another island and mountain where the local and global encountered and interacted. These events and public programs provided the narrative and context that linked the era of the Korean Pavilion's establishment with the present commemoration of its 30th anniversary and projected into the future.

The Record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While the archive book *The Last Pavilion*,³ published in time fo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reflects on the past through the writings and visual materials of the pavilion's architects, former curators, and artists, this catalogue 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Pavilion and proposes future vis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various contributors who participated in or directly observed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Somi Sim, who was responsible for the composition, reflected on the process of "critically examining the formats, hierarchies, and conventions of commemorative exhibitions, often confined to a singular narrative, and approaching the narrative of the Korean Pavilion and Korean art as ongoing knowledge and practice, unbound

3. The archive book can be downloaded from the "Archive" section of the exhibition website (www.arko.or.kr/kr-pavilion/en).

내러티브와 연결하여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 탈식민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연대와 협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시 아카이브와 기록으로서의 『모든
섬은 산이다』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국가와 제도기관이
주축이 된 문화정치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인의 교류와 연대의 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섬과 산을 잇는
여정을 함께 한 참여작가, 역대 예술감독,
협력기관, 후원사 그리고 각각 운영과 기획에
참여한 예술위와 기획단의 동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by these constraints.” Kyoung-yun Ho, who oversaw the archival publications and exhibition, shared her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archiving, emphasizing the need to “avoid allowing these records to remain as passive entities in storage, and instead develop an archival practice that serves as active resources genera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here and now.’” Yeon Shim Chung, a long-time observer and scholar of the Venice Biennale, noted that this exhibition “highlights the growth of Korean art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iscourse.” Haeju Kim, who curated the Singapore Pavilion at this year’s Venice Biennale, raised questions about the relevance of national pavilions in the current era, emphasizing their role “in today’s world that has begun to drift away from globalization and is steering toward nationalism [...] as places where different fragments of the world or dreams come together.” Lastly, Juhyun Cho, who co-curated the discourse program related to the exhibition, examined the sustainable future of contemporary art and institutions, proposing that the program was designed to “develop new ways of thinking and offer practical alternatives regarding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Venice [...] by considering the challenges related to the cultural and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waters in Asia,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while further advocating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a postcolonial narrative” as a key strategy for addressing today’s challenges.

Every Island is a Mountain, the publication serving as an exhibition archive and record, encapsulates the message that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is not merely an outcome of cultural politics l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but also a space of exchange and solidarity among artists and curators who respond to social changes and challenge conventional thinking to create new worldviews. Finally, heartfelt gratitude is extended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former curators of the Korean Pavilion, collaborating institutions, sponsors, and the esteemed colleagues of Arts Council Korea and the curatorial team who have journeyed together in connecting islands and mountains.



Every Island is a Mountain(2024) View of the Exhibition Entrance,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Photograph by Sam Kim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모든 섬은 산이다》(2024) 전시장 입구 전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사진: 김영삼

베니스비엔날레 자르디니의 마지막 국가관으로서 1995년에 세워진 한국관은 미술전에서 2024년 현재까지 39명의 참여 작가와 여러 커미셔너 및 협업자가 오가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 세계 곳곳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해 왔다. 이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선형적 축을 따르나, 참여 작가의 시간은 하나의 섬이자 다른 섬과의 만남을 통해 변형되고 이동하면서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모국어와 외국어로,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그 역방향으로, 그리고 여러 영토를 횡단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해 왔다. 본 전시기획의 시발점에서는 하나의 서사로 종속되곤 하는 기념전의 형식과 위계 및 규약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얽매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관과 한국미술의 서사를 현재 진행 중인 지식이자 실천으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마련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 《모든 섬은 산이다》는 각 회차로 분리돼 수직적 연대기로 인식되어 온 한국 미술을 수평적인 시간대로 펼쳐 내, 섬과 산을 넘나드는 글로벌 연대의 지형도로 상상하고 재구성한 전시이다. 여기서 역대 참여작가들 및 한국관 관계자들과의 무수한 대화로부터 촉발된 전시 주제인 ‘모든 섬은 산이다’는 섬과 산의 분리된 풍경을 엮어내는 생태학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여러 경계를 횡단하고 교류하며 전개되어 온 한국미술의 상호교차적 논의를 다각적으로 증폭시키는 모티프이다.

상이한 차원의 세계를 연결하는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전시에서는 전시구성, 참여 작품, 공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과 전시 디자인에 걸쳐 유기적인 모티프로 작동한다.

중세 건축 공간의 역사와 장소성에 응답한 한국미술

전시에서 선보이는 역대 한국관 참여작가 36명(팀)의 작업은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건축 공간이 지닌 오랜 역사적 지층과 포용의 정신에 응답하며, 현대의 무대로서 공존을 위한 전시 구성을 취한다. 건축적 배경으로서 전시장소인 몰타기사단 수도원은 12세기에 베니스의 카스텔로 지구의 운하 앞에 지어진 오랜 역사를 지닌다. 수 세기 동안 베니스에는 십자군, 순례자,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물 위의 도시를 지나갔고, 16세기의 원형으로 알려진 수도원 건물은 요동하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변화해 오면서도 오늘날까지 지역 커뮤니티에게 교류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자리해 오고 있다. 전시 구성은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동시대 한국미술의 정신과 메시지를 유기적으로 매개하는 흐름을 통해, 개인과 국가, 예술과 현실,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과 교류의 장을 향한다.

전시는 수도원의 건축 공간이 지닌 유서 깊은 장소성을 바탕으로, 내부와 외부, 장소와

The Community of Islands and Mountains Pledging the Future of the Korean Pavilion

Somi Sim (Co-Curator)

Established in 1995, the Korean Pavilion marks the final national pavilion of the Venice Biennale nestled within the Giardini gardens. Over its history, the pavilion has hosted 39 artists along with numerous commissioners and collaborators, becoming a crucial intersection that blends cultural boundaries across Korea, Italy, and the wider world. While remembering this time follows a linear axis, the time experienced by the participating artists resembles an island, transformed and traversed through encounters with various other islands—shifting from one culture to another, from native tongues to foreign languages, from past to present and vice versa, and across multiple territories. At the inception of this exhibition, the formats, hierarchies, and conventions of commemorative exhibitions, often confined to a singular narrative, were critically examined. We approached the narrative of the Korean Pavilion and Korean art as ongoing knowledge and practice, unbound by these constraints.

Thus, 30th-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Every Island is a Mountain*, transitions from segmented, vertical time-lines to a unified, horizontal narrative, reimagining the exhibition as a global network of solidarity, connecting islands and mountains. The theme of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inspired by countless conversations with participating artists and Korean Pavilion officials, serves as a motif that amplifies not only

the ecological imagination that intertwines the separate landscapes of islands and mountains but also the interdisciplinary discourse of Korean art that has evolved through crossing and interacting with various boundaries. Grounded in an ecological and cyclical worldview that connects different dimensions, the exhibition functions as an organic motif across graphic design, exhibition design and composition, participating works, and public programs.

Korean Art Responding to the History and Place of Medieval Architectural Spaces

The works of the 36 artists (teams) in the Korean Pavilion respond to the ancient historical layers and inclusive spirit of th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with the exhibition configured as a stage for hospitality and coexistence. As an architectural backdrop, this exhibition space boasts a long history, having been built in the 12th century along a canal in Venice’s Castello district. For centuries, Venice has welcomed crusaders, pilgrims, merchants, and others through its watery streets, and the Palazzo building, known as a 16th-century structure, has adapted to various purposes throughout its turbulent history, yet has continuously served the local community as a space for exchange and renewal. The exhibition is designed to organically connect the history and place of Palazzo Malta with the spirit and message of contemporary Korean art, creating a space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across

백종관, 〈기다리는, 호흡하는〉,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션.



Paik Jongkwan, *Waiting and Breathing*, 202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8min. Commissioned by Arts Council Korea

1. 아카이브 전시 파트는 본 전시를 공동 기획한 호경윤(아카이브 책임 연구원)의 전시 소개글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노송희, 〈RAS(임의접속공간)〉,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션.



Songhee Noh, *RAS(Random Access Space)*, 202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2min. Commissioned by Arts Council Korea.

비장소, 주공간과 부공간, 상이한 시공간과 문화적 경계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 복도를 두고 양옆으로 펼쳐지는 전시실, 건물 한가운데 위치한 중정과 이를 에워싸는 회랑, 중세 마구간 공간, 최근에 복원된 프레스코실 등 수도원의 상이한 건축적 조건을 각각의 ‘섬’이라고 할 때, 전체적인 전시 구성은 36명(팀)의 참여작가를 통해 관람객의 호흡을 ‘섬과 섬’ 사이에서 조율하며 해저에 존재하는 산맥의 다층적 지형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변에 경계를 구축하지 않는 현대의 공간으로서 전시에서 생성되는 장소성에 주목하고, 탈영토, 생태, 연대, 지속가능성을 상상하고 함께 논의하는 접경지대를 도모해 본다. 방문객이 건물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본전시는 아카이브 전시, 대표 작품 전시, 야외 전시의 흐름으로 전개된다.

지역과 글로벌을 이어온

한국관 30년 : 아카이브 전시

그 첫 번째로서, 전시의 진입부에는 한국관의 역사적 맥락 및 장소성을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가 구성되어 과거의 목소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전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입체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관의 설립에 기여한 백남준의 예술적 세계관과 함께

건축가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의 준공 과정 등 조명되지 않았던 스토리를 담는다. 이를 통해 베니스비엔날레가 제시한 동시대 미술 담론을 흡수하며 지역과 글로벌을 연결해 온 여정을 되돌아본다. 전시에는 1995년 첫 전시에 참여한 김민겸과 전수천의 조각과 드로잉, 윤형근의 드로잉, 그리고 2003년/2005년에 참여한 박이소의 드로잉에 더해, 차세대 작가들의 시선으로서 노송희(1992년생), 백종관(1982년생)이 제작한 아카이브 영상은 한국관의 3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아카이빙과 기억 사이에서 남겨진 이야기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특별한 시각을 더한다.’ 백종관의 〈기다리는, 호흡하는〉(2024)은 한국관 전시를 둘러싼 관객의 발길과 소리, 빛, 그림자, 길고양이까지 무수한 찰나들이 중첩된 주변부의 서사를 시적으로 담아 내고, 노송희의 〈RAS(임의접속공간)〉(2024)은 인터넷을 부유하는 파편적 정보의 흔적을 역동적인 가상공간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아카이브에 대한 또다른 잠재력을 펼쳐낸다.

차이와 분리를 넘은 공존의 세계를

향한 장 : 대표 작품 전시

두 번째는, 몰타기사단 수도원 곳곳의 다양한 건축 공간 내외부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대표 작품 전시’이다. 전시장의 입구에 설치된 이완의

27 Lee Wan, *KonneXus: Mountains in Islands*, 2024, Single-channel video, screening, color, sound, 30 min.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이완, 〈커넥서스: 섬 속의 산〉, 2024,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0분. Bf 제공. 사진: 권현정.

1. The Archive Exhibition section draws from an exhibition text by Kyoung-yun Ho, the Senior Archive Researcher and co-curator of the exhibition.

모든
섬은
산이다

individuals and nations, art and reality, cultures and borders.

Drawing on the profound historical and locational significance of the Palazzo's architecture, the exhibition unfolds in a flow that seamlessly transition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reas, places and non-places, main and auxiliary spaces, and across various temporal and cultural divides. Viewing each distinct architectural feature of the Palazzo—such as the corridor-flanked exhibition rooms, the centrally located courtyard encircled by a cloister, medieval stables, and the newly restored fresco room—as 'islands,' the exhibition's layout thoughtfully guides visitors through these 'islands,' creating a nuanced topography akin to submerged mountain ranges, showcased through the works of 36 artist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sense of place generated by the exhibition as a space of hospitality without boundaries, aspiring to create a borderland where deterritorialization, ecology, solidarity, and sustainability can be envisioned and discussed. This exhibition, which visitors can explore as they organically move through the entire building, unfolds as a flow of archival displays, marquee works by previous Pavilion participants, and outdoor exhibitions.

Archive Exhibition: 30 Years of The Pavilion Bridging Local and Global

As a prologue, the archive exhibition is situated at the threshold of the exhibition

venue, surveying the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Pavilion's location while delivering the voices of its past and the visions for its future. Using archives preserved by the Arts Archive of Arts Council Korea, the exhibition offers a multi-layered perspective spanning three decades, illuminating hidden narratives, including Nam June Paik's foundational philosophical insights and the Pavilion's architectural evolution by Seok Chul Kim and Franco Mancuso. This section revisits the journey from local to global, encapsulating the dialogues of contemporary art initiated by the Venice Biennale. Featured are sculptures and drawings by Kim In Kyum and Jheon Socheon from the inaugural 1995 showcase, Yun Hyong-keun's drawings, and Bahc Yiso's contributions from 2003 and 2005. Moreover, archive videos from emerging artists Songhee Noh (b.1992) and Paik Jongkwan (b.1982) offer new insights, reinterpreting the dialogue between archival records and collective memory, charting the Korean Pavilion's 30-year journey.¹ Paik Jongkwan's *Waiting and Breathing* (2024) poetically captures the narrative of the periphery, with myriad superimposed moments of footsteps, sounds, lights, shadows, and even stray cats surrounding the Korean Pavilion exhibition. Meanwhile, Songhee Noh's *Random Access Space* (2024), explores another potential for archives by reconstructing the fragmentary traces of information floating on the internet into a dynamic virtual space.

Bae Young-whan, *Anxiety-Seoul 5:30 PM*, 2012, stainless steel, photograph, sound, dimensions variable, 10 min. 53 sec.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배영환, 〈걱정—서울 오후 5:30〉, 2012, 스테인리스 스틸, 사진, 사운드, 가변 크기, 10분 53초. Bf 제공. 사진: 권현정.

〈커넥서스: 섬 속의 산〉(2024)은 한국관의 30년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다루고, 주제 대담과 AI 도슨트로 풀어냄으로써 인문·기술학적 상상력을 확장해 보인다. 앞서 소개한 아카이브 전시를 지나 본격적으로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정은영의 작업은 현존하는 국극 1세대 여성의 마지막 아카이브를 재정리하는 동시에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사라지는 역사와 기억의 문제에 대한 깊은 시선을 끌어낸다. 건물의 흐름을 따라 만나는 역사와 장소성의 변화라는 조건을 적극 활용한 내부 전시에서는 기억, 역사, 이웃, 공동체의 규범과 범위에 대한 인식을 열어놓는 작업으로서 정은영, 성낙희, 김소라, 박세진, 이용백, 노상균, 이주요, 함진, 김범, 문성식, 제인 진 카이젠, 김홍석, 김윤철, 박기원, 정연두의 작업을 선보인다. 이러한 참여작가의 작업은 분열되고 비선형적인 역사와 삶의 파편에서 기억을 복구하고자 하는 사유를 불러일으키며, 수도원의 건물 안으로 관람객의 완급과 호흡을 조절하면서 차분한 발길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수도원의 건축 공간이 가진 건축적 맥락과 장소성에 반응하는 장소특정적 작업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 전시는 수도원 공간의 역사적 유산과 맥락을 존중하면서, 한국미술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한다. 영토, 국가, 정체성으로 인한 차이와 다름을 부각하기보다는, 동시대 갈등과

전쟁, 혼돈과 절망이 가득한 세계에서 연결에 대한 성찰이 작품 곳곳에 담긴다. 그 대표적인 작업으로 배영환의 〈걱정-서울 오후 5:30〉(2012)은 수도원의 중정에 설치되어, 해 질 녘 서울 근교의 절 열두 곳에서 녹음된 범종의 소리와 베니스의 종소리가 함께 울려 퍼짐으로써 분리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생의 울림을 전한다. 한편, 회랑 공간에 설치된 또 다른 작업으로서 오형근의 사진은 확장한 젊은 여성들의 초상으로 동시대 정체성을 전하고, 과거 마구간이라는 독특한 장소성을 동시대 감각으로 전환해보인 문경원&전준호, 이형구, 코디 최의 영상 및 미디어 설치 작업, 알츠하이머 노인들의 공동체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선보이는 서도호, 이형우, 김수자의 작업은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간극에 자리한 사유를 찬찬히 끌어올림으로써 차이를 넘어 공존의 세계를 향한 대안적 관점을 전한다. 이에 더해 프레스코화가 복원된 역사적 공간에서의 마이클 주와 황인기의 작업, 정원을 앞두고 내부 전시의 마지막에 선보이는 작업으로 남화연이 2020년 한국관 전시에서의 식물을 기록한 아카이브 설치의 상이한 문화에 공존하는 복수의 사회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서로 다른 영토, 장소, 사람을 엮어내는 장으로서 마련된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역대 참여 작가의 신작 및 최근작이 다수 소개되어, 동시대 미술 현장 및 사회적 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The Featured Exhibition: Towards a World of Coexistence Beyond Difference and Separation

The second segment unfolds across th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architectural spaces of Palazzo Malta, showcasing marquee works from former Korean Pavilion artists. At the entrance, visitors encounter Lee Wan's *KonneXus: Mountains in Islands* (2024), which delves into 30 years of the Korean Pavilion's history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ding upon the humanistic and technological imagination via thematic dialogues and AI docents. Following the archival exhibition, the first major work within the main exhibition space is by siren eun young jung. Her work meticulously reorganizes and documents the final archiv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female Gukgeuk performers, drawing profound attention to the issues of vanishing history and memory. This segment of the exhibition fully engages with the historical and locational transformations of the Palazzo, presenting works that open perceptions to memory, history, friendship, neighborliness, and the norms and boundaries of community. Featured artists include siren eun young jung, Nakhee Sung, Sora Kim, Park Sejin, Lee Yongbaek, Noh Sang-Kyoon, Jewyo Rhii, Ham Jin, Kim Beom, Sungsic Moon, Jane Jin Kaisen, Gimhongsok, Yunchul Kim, Kiwon Park, and Yeondoo Jung. These artists' pieces evoke contemplation on recovering memory from fragmented and nonlinear histories and lives, guiding visitors

through the Palazzo's spaces with a measured pace and rhythm, inducing a calm and reflective journey.

This exhibition particularly centers on site-specific works that respond to the architectural context and sense of place inherent in the Palazzo's spaces. The exhibition respects the historical heritage and context of the Palazzo while exploring a peaceful coexistence with Korean art. Rather than emphasizing differences and divergences stemming from territories, nations, and identities, the exhibition reflects on connection amid a world rife with contemporary conflicts, wars, chaos, and despair. A quintessential example is Bae Young-whan's *Anxiety-Seoul 5:30 PM* (2012), installed in the Palazzo's central courtyard. This piece resonates with the sounds of temple bells recorded at twelve temples around Seoul at dusk, harmonizing with the chimes of Venetian bells to convey a harmonious resonance that transcends separation and boundaries. Meanwhile, Heinkuhn Oh's photographs, displayed in the cloister, depict portraits of made-up young women, conveying contemporary identity. The former stable, reinterpreted through contemporary sensibilities, features video and media installations by Moon Kyungwon & Jeon Joonho, Hyungkoo Lee, and Cody Choi. In the community space for Alzheimer's patients, Do Ho Suh, Hyung Woo Lee, and Kimsooja present works that thoughtfully bridge the gap between cultural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propos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wards a world of co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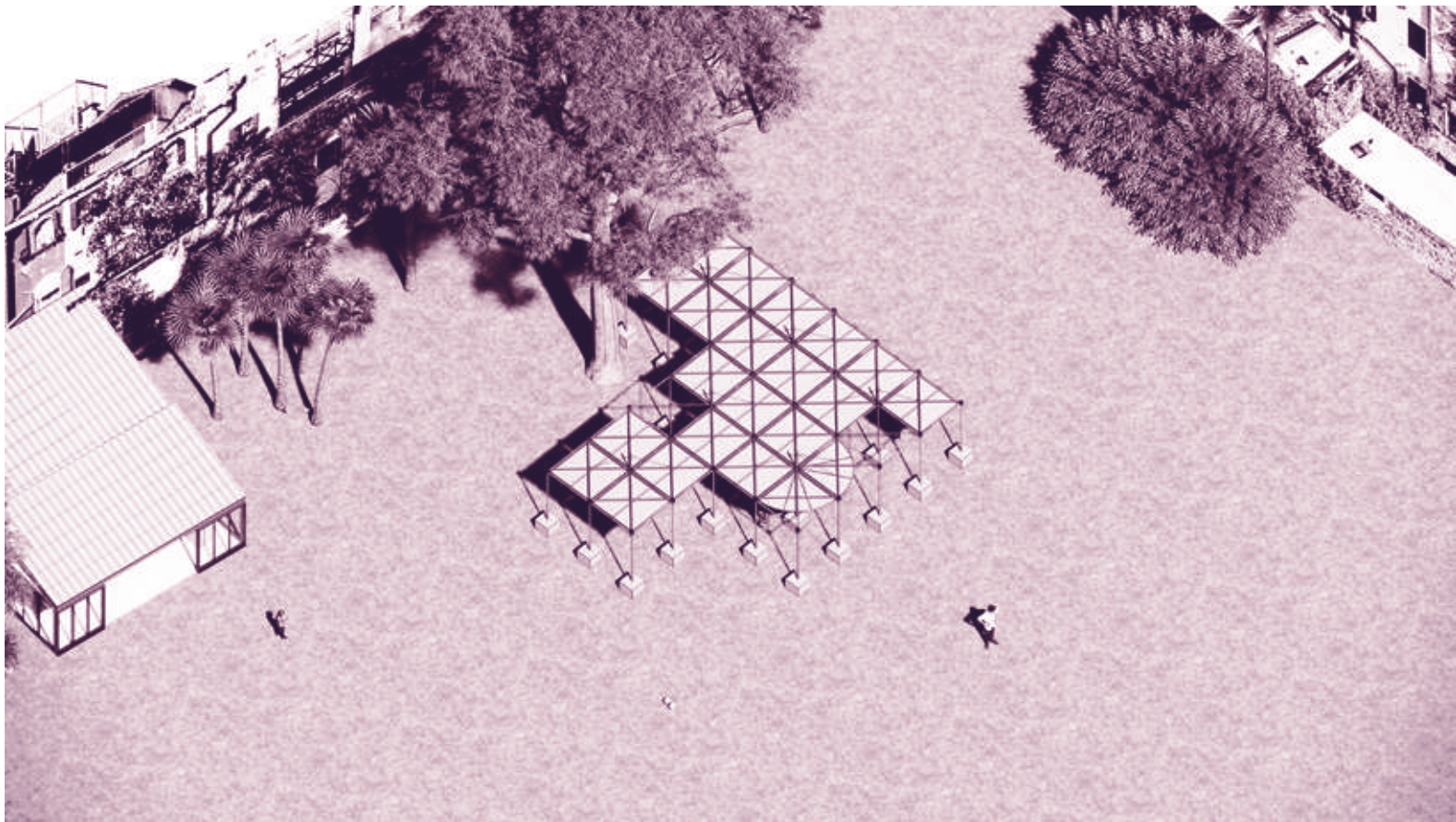
한국미술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조망한다. 앞서 소개한 이완의 〈커넥서스: 섬 속의 산〉(2024)과 더불어 사운드 경험의 존립 방식을 되묻는 김소라의 〈얼어붙은 방귀의 싸늘한 냉기〉(2024), 생동하는 물질로서 반고체를 다룬 김윤철의 〈스트라타(Strata)〉(2024), 죽음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제인 진 카이젠의 영상 〈Guardians〉(2024), 작업의 주변에서 서로를 지탱해온 무수한 협업자들을 기억하는 이주요의 〈Outside the Comfort Zone〉(2024), 전통과 문명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시대 회화에 도전하는 황인기, 문성식, 성낙희의 신작 회화 외에도 다수의 최근작이 동시대 한국미술의 역동성과 다종다양한 스펙트럼을 전한다.

한국미술의 새로운 도전의 장은 신작뿐만 아니라 한국관 전시에서의 역대 참여 작품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2001년 참여작으로 수만 장의 졸업앨범 사진을 벽지로 구성한 서도호의 〈Who Am We?〉(2000), 2005년 참여작으로 한국사회의 가족과 주거의 풍경을 다룬 정연두의 〈상록타워〉(2001), 그리고 1995년 한국관 개관 당시 옹기 설치와 진행된 대금 연주 및 비구니 스님의 퍼포먼스로 화제가 되었던 곽훈의 〈겹/소리-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1995), 아카이브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김인겸과 전수천의 작업, 문화 패권주의에 대한 박이소의 비판적 드로잉은 문화적 특수성과

시차를 넘어 보편적 사유와 깊은 통찰의 관점을 전한다.

생태학적 연대와 현대의 장소로서 야외 전시

전시의 후반부에 마련된 ‘야외 전시’는 열린 장소성을 바탕으로 공유지를 도모한다. 전시 동선을 따라 건물을 한 바퀴 돌듯 복도, 회랑과 중정, 마구간, 커뮤니티 공간 등 곳곳을 방문한 후 외부로 나오면 베니스의 이웃 풍경을 향해 펼쳐진 광활한 정원이 등장한다. 촘촘한 실핏줄처럼 엮여진 물 위의 도시에서 3,000㎡에 달하여 베니스 사설 정원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장소에서는 여유롭게 야외 전시를 이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적 만남을 상상하는 장이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전시 주제가 전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설치 작업과 더불어, 분쟁과 갈등이 심화된 전지구적인 위기의 시대에 있어 예술적 실천과 대안적 공동체를 도모하는 ‘공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기체와 사물이 하나의 포즈로서 선언된 정서영의 〈증거〉(2014), 실향민 어르신들이 그린 드로잉 수백 여 점으로 이루어진 강익중의 신작 〈아리랑〉(2024), 페스티로폼 돌탑을 통해 생태적 연결과 공존의 가능성을 기원하는 최정화의 〈nATuReNuRture〉(2023-24)와 앞서 소개한 곽훈의 1995년 한국관 참여작은 전 지구적 분쟁과 생태적 위기에





OUR LABOUR, *Transparent Pavilion*, 2024, Stainless Steel 11.5 × 11.5 × 3.5 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beyond differences. Furthermore, works by Michael Joo and Inkie Whang are displayed in the historically significant space with restored frescoes. Near the end of the indoor exhibition, preceding the garden, Hwayeon Nam's archival installation, documenting plants from the 2020 Korean Pavilion exhibition, navigates multiple social boundaries, weaving together disparate territories, places, and people.

Meanwhile, this exhibition showcases numerous new and recent works by past participating artists,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and societal spher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n art. Alongside Lee Wan's previously mentioned *KonneXus: Mountains in Islands*, the exhibition features Sora Kim's *an icy chill of a frozen fart* (2024), which questions the existence of sound experiences; Yunchul Kim's *Strata* (2024), dealing with semi-solids as living materials; Jane Jin Kaisen's video *GUARD-IANS* (2024), traversing the boundary of death; Jewyo Rhii's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commemorating numerous collaborators who have supported each other on the periphery of artistic practice; and new paintings by Inkie Whang, Sungsic Moon, and Nakhee Sung, which reinterpret tradition and civilization, showcasing the vibrancy and breadth of contemporary Korean art.

New challenges in Korean art arise not only from the creation of new works but also from the reinterpretation of past contributions to the Korean Pavilion through

contemporary lenses. Highlighted in this context are Do Ho Suh's *Who Am We?* (2000), creatively transforming thousands of graduation photos into wallpaper for his 2001 showcase; Yeondoo Jung's *Evergreen Tower* (2001), depicting the landscapes of family and residence within Korean society for his 2005 exhibit; Kwak Hoon's *Kalpa/Sound: What Marco Polo Left Behind* (1995), renowned for its Onggi (traditional Korean earthenware pottery) installation and accompanying performances, such as a Daegeum (traditional Korean transverse bamboo flute) concert and a Buddhist nun's performance, marking the Pavilion's 1995 debut; reconfigured works by Kim In Kyum and Jheon Socheon in archival form; and Bahc Yiso's incisive drawings critiquing cultural imperialism, all extending beyond the confines of cultural and temporal limitations and offering insights that resonate on a universal level.

Outdoor Exhibition: Space of Symbiosis and Welcome

Moving toward the concluding part of the exhibit, the outdoor exhibition unfolds, creating a shared space rooted in its openness. Following an architectural voyage within the Palazzo, traversing hallways, cloisters, stables, and communal areas, visitors emerge into a vast garden extending towards the scenic views of Venice. This garden, known as the largest private garden in Venice at 3,000 square meters, with its intricate, vein-like waterways, continues the exhibition leisurely while simultaneously

대응하는 예술 실천과 평화의 목소리 및 연대의 시급함을 전한다.

분열되고 분리된 세계를 너머 과거와 현재,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 섬과 산을 연결하고자 하는 한국 작가들의 메시지는 현대의 장소이자 열린 국가관으로 향해나가는 한국관의 미래와 공명한다. 이를 탐색하는 공유지로서 한국관의 개방적인 건축구조를 오마주하며 제작된 아워레이보의 <투명한 파빌리온>(2024)은 모두에게 열린 쉼터이자, 대화와 교류, 우정과 현대가 교차하며 미래로의 시간을 함께 도모하는 공동의 플랫폼으로 마련된다. 이렇듯 한국관 30년의 아카이브 전시로 시작하여 역대 참여작가들의 대표 작품 전시로 섬과 산의 지형을 매개해 나가는 《모든 섬은 산이다》는 야외 전시와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군도의 풍경을 도모하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일으킴으로써, 미래의 한국관에 도래할 만남과 접속의 공동체를 약속한다.

providing a space to imagine new communal encounters. It serves as a platform for installations inspired by the ecological imagination central to the exhibition's theme, as well as a series of public programs aimed at promoting artistic endeavors and fostering alternative communal models amid a global crisis deepened by strife and conflict. Highlights include Chung Seoyoung's *Evidence* (2014), where living beings and objects come together in a collective stance; Ik-Joong Kang's recent work *Arirang* (2024), compiling hundreds of refugee drawings; Choi Jeong Hwa's *nATuReNuR-ture* (2023-24), promoting ecological synergy and cohabitation with a styrofoam cairn; and Kwak Hoon's distinguished piece from the 1995 Korean Pavilion. Each work emphasizes the vital role of artistic engagement in addressing global conflicts, ecological challenges, and the quest for peace and unity.

Korean artists endeavor to connect disparate realms—unit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the celestial with the terrestrial, humanity with nature, and islands with mountains—reflecting the Korean Pavilion's aspiration for a future marked by hospitality and openness. In homage to the Pavilion's ethos of architectural accessibility, OUR LABOUR's *Transparent Pavilion* (2024) stands as a welcoming sanctuary for all. This area champions dialogue, exchange, friendship, and hospitality, fostering collective moments that pave the way to the future. Spanning the Archive Exhibition that encapsulates three decades of the Pavilion's

legacy, a showcase of past contributors' marquee works, and the outdoor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crafts new archipelagic landscapes, invoking the essence of islands and mountains. By interweaving the Outdoor Exhibition and the public programs, the exhibition fosters an environment ripe for unity and dialogue, envisaging a future replete with community interactions and connections.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모든 섬은 산이다》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2024. 4. 19 — 9. 8, 몰타기사단 수도원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전시장에 입장하실 때,
왼쪽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When entering the exhibition,
follow the signs on the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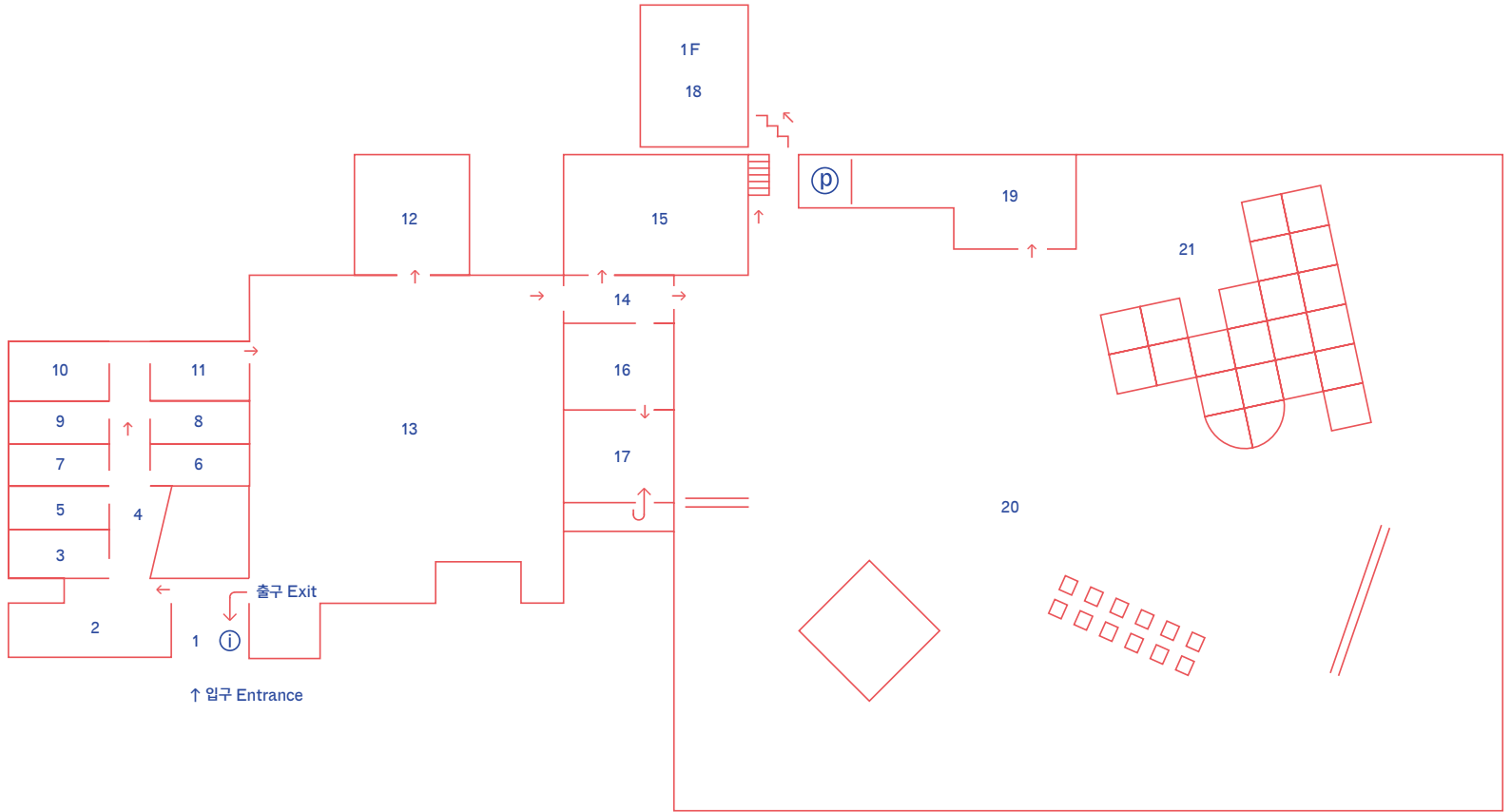


전시장을 나갈 때,
오른쪽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When exiting the exhibition,
follow the signs on the left.

1			
이완			
2			
아카이브 전시:			
김인겸			
전수천			
윤형근	8		
박이스	함진	14	
노송희	김범	성낙영	
백종관			
3	9	15	
정은영	문성식	문경원 & 전준호	
4	10	코디 최	
성낙희	제인 진 카이젠	이형구	19
김소라	11	16	남화연
5	김홍석	서도호	20
박세진	김윤철	이형우	정서영
6	12	17	강익중
이용백	박기원	김수자	최정화
노상근	정연두	곽훈	
7	13	18	21
이주요	배영환	2층:	아워레이보
	오형근	황인기	<투명한
		마이클 주	파빌리온>

1				
Lee Wan				
2				
ARCHIVE				
EXHIBITION:				
Kim In Kyum				
Jheon Soocheon				
Yun Hyong-keun	8			
Bahc Yiso	Ham Jin	14		
Songhee Noh	Kim Beom	Nakyoung Sung		
Paik Jongkwan				
3	9	15		
siren eun young jung	Sungsic Moon	Moon Kyungwon & Jeon Joonho		
4	10	Cody Choi		
Nakhee Sung	Jane Jin Kaisen	Hyungkoo Lee	19	
Sora Kim	11	16	Hwayeon Nam	
5	Gimhongsok	Do Ho Suh	20	
Park Sejin	Yunchul Kim	hyung woo Lee	Chung Seoyoung	
6	12	17	Ik-Joong Kang	
Lee Yongbaek	Kiwon Park	Kimsooja	Choi Jeong Hwa	
Noh Sang-Kyoon	Yeondoo Jung	18	Kwak Hoon	Every
7	13	Second Floor:	21	Island
Jewyo Rhii	Bae Young-whan	Inkie Whang	OUR LABOUR	is
	Heinkuhn Oh	Michael Joo	Transparent Pavilion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 ① 안내데스크 Infodesk
- Ⓟ 홍보실 PR Room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 –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Thursday, April 18th, at 6p.m

레퍼토리

- 백남준, 더글라스 데이비스, 요셉 보이스, <도큐멘타 6 텔레캐스트>, 1977
- HWI, <Prayer>, 2024
- HWI, <너의 전생>, 2024
- HWI,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2022
- 백남준, <부수적인 음악>, Bit-Pop Station (NHK), 1984
- 백남준, <글로벌 그루브>, 1973
- 권희수, <폴리네이터>, 라이브 퍼포먼스, 백남준아트센터, 2024
- 황소윤, 백남준의 「예술과 위성」(1984) 낭독, 2022
- 백남준, <피아노 콘서트>, SeOuL NYmAX, 1997
- 이양희, <시머링> 솔로 버전, 음악: 망 이실로, 2024

<본 조르노 시뇨르 백>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공연이다. 한국관 건립에 기여한 백남준에 대한 오마주와 과거-현재를 연결하는 서사를 통해 한국관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며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 공연은 40년 전 파리와 뉴욕의 예술가들을 위성으로 연결했던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을 따라 기획되어, 백남준의 대표적 퍼포먼스 비디오와 현재의 작가들이 만나며 소통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본 공연에는 권희수, 이양희, HWI, 망 이실로와 황소윤이 참여하였다.

기획: 이수영, 임채은(백남준아트센터), 이준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작가: 권희수, 망 이실로, 백남준, 이양희, 황소윤, HWI(휘)
 공식후원: 현대자동차

Opening Performance *Buon Giorno Signor Paik*

Repertoire

- Nam June Paik, Douglas Davis, Joseph Beuys, *Documenta 6: Satellite Telecast*, 1977
- HWI, *Prayer*, 2024
- HWI, *Your My Past Life*, 2024
- HWI, *My Jubilee ist Unverhemmet*, 2022
- Nam June Paik, *Incidental Music, Bit-Pop Station* (NHK), 1984
- Nam June Paik, *Global Groove*, 1973
- Kwon HeeSue, *Pollinators*, live performance, Nam June Paik Art Center, 2024
- So Yoon, reading Nam June Paik's *Art and Satellite* (1984), 2022
- Nam June Paik, *Piano Concert*, SeOUL NYmAX, 1997
- Lee Yanghee, *Shimmering* (solo ver.), music by Mang Esilo, 2024

Buon Giorno Signor Paik is the opening performance announcing the start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Through homage to Nam June Paik, who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and narratives connecting the past and present, this performance reflects on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by looking back on the past 30 years of its history. *Buon Giorno Signor Paik* is curated following Nam June Paik's *Good Morning, Mr. Orwell* (1984), which connected artists from Paris and New York via satellite 40 years ago. It depicts scenes of rendez-vous between Paik's iconic performance videos and contemporary artists. Kwon HeeSue, Lee Yanghee, and HWI, Mang Esilo and So Yoon are featured in this performance.

Curators: Lee Soo Young, Lim Chae Eun (Nam June Paik Art Center), Junyoung Lee (Arts Council Korea)
 Artists: HWI, Kwon HeeSue, Lee Yanghee, Mang Esilo, Nam June Paik, So Yoon
 In partnership with Hyundai Motor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백남준, 〈부수적인 음악〉, Bit-Pop Station
섬은 (NHK), 198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산이다 사진: 박지민.



HWI, *Your Past Lives*, 2024.
Courtesy of Nam June Paik Art Center.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권희수, 〈폴리네이터〉, 라이브 퍼포먼스,
백남준아트센터, 2024.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Lee Yanghee, *Shimmering* (solo ver.),
music by Mang Esilo, 2024.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 개막행사 중 망 이실로의
애프터 디제잉. Bf 제공. 사진: 권현정.

모든 섬은 산이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1995 –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 – 2024



〈커넥서스: 섬 속의 산〉, 2024,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0분. 작가 제공.

KonneXus: Mountains in Islands,
2024, single-channel video, screening, color,
sound, 30 min. Courtesy of the artist.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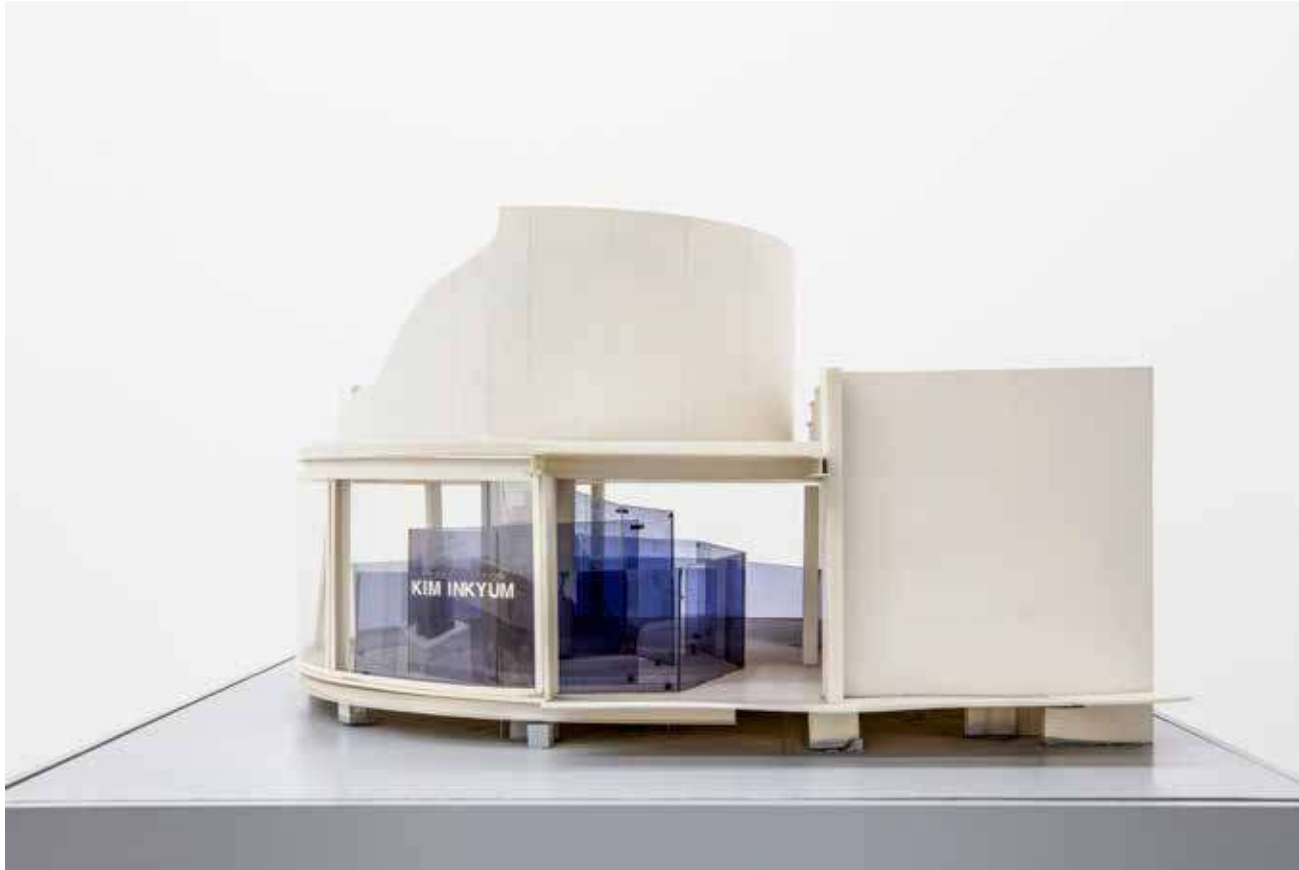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프로젝트21—내추럴 넷〉 모형,
1995, 복합 매체, 80 × 76 × 62 cm. 김인겸 유족
제공, 사진: © Kim San.

Miniature model of *Project 21—Natural Net*,
1995, mixed media, 80 × 76 × 62 cm.
Courtesy of Kim In Kyum Estate.
Photograph: © Kim San.



모든
섬은
산이다

〈프로젝트21-내추럴 넷〉 드로잉,
1995, 한국 고서에 수채, 29.3 × 34.5 cm.
김인겸 유족 제공.

Concept drawing of *Project21-
Natural Net*, 1995, watercolor on Korean
old book, 29.3 × 34.5 cm.
Courtesy of Kim In Kyum Estate.



〈방황하는 혹성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 1995, 혼합 매체, 가변 크기.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및 작가 제공.

T'ou Amongst Wandering Planet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1995,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ARKO Arts Archive, Arts Council Korea and the Artist.

〈방황하는 혹성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 중 토우, 1995, 테라코타, 19.5 × 5 × 6 cm (2). Bf 제공. 사진: 권현정.

clay doll from *T'ou Amongst Wandering Planet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1995, terracotta, 19.5 × 5 × 6 cm (2).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윤형근 Yun Hyong-keun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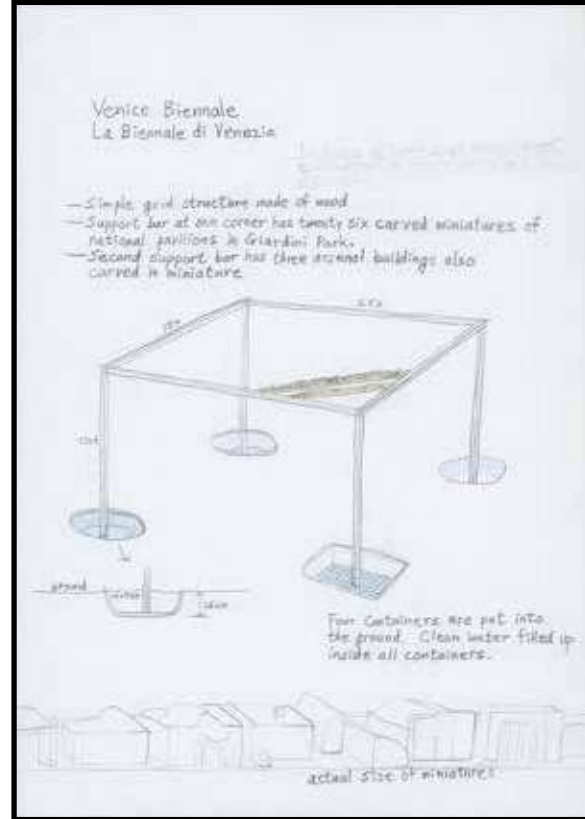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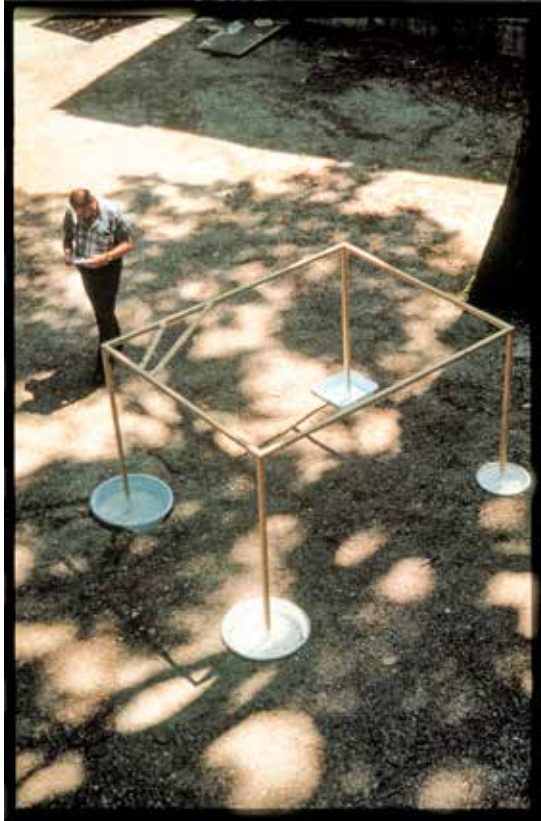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무제〉, 1981, 한지에 유채, 52 × 83 cm.
© 윤성열. PKM갤러리 제공.

Untitled, 1981, oil on hanji, 52 × 83 cm.
© Yun Seong-ryeol. Courtesy of PKM Gallery.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전경.
2003(2024 전시용 사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소장. 이소사랑방 기증.

Venice Biennale, Installation view of Venice
Biennale, 2003 (2024 exhibition copy).
Courtesy of MMCA Art Research Center
Collection. Gift of Yiso Sarangbang.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드로잉, 2003 (2024
전시용 사본). 종이에 연필, 색연필.
29.7 × 21 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소장. 이소사랑방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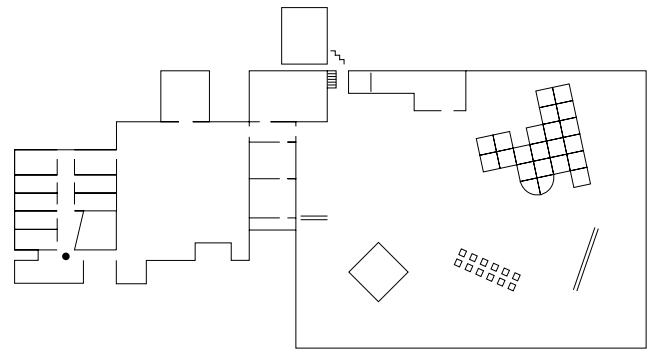
Drawing for Venice Biennale, 2003
(2024 exhibition copy), pencil, colored pencil
on paper, 29.7 × 21 cm. Courtesy
of MMCA Art Research Center Collection.
Gift of Yiso Sarangbang.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지연된 아카이브〉, 2023,
혼합 재료,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Deferral Archive, 202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It's written here on the back like this,
yet the back is unprinted.

It was...

This, too, is true and the Proof Holder...

That's the drawing room...
It was General Chaikin,
if possible of you, had?
I remember it all, Ah...



〈Cozy Cardio〉, 2023, 종이에 과슈, 색연필,
오일파스텔, 펜, 41 × 93 cm. 작가 제공.

Cozy Cardio, 2023, gouache, color
pencils, oil pastels, pen on paper, 41 × 93 cm.
Courtesy of the artist.

〈Cozy Cardio〉, 2023, 시트지(디지털 프린트),
종이에 과슈, 색연필, 오일파스텔,
펜(원화),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Cozy Cardio, 2023, adhesive sheet
(digital print), gouache, color pencils,
oil pastels, pen on paper (original work),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김소라, 〈얼어붙은 방귀의 싸늘한 냉기〉,
A SORA KIM PROJECT 2023-2024.

Sora Kim, *an icy chill of a frozen fart*.
A SORA KIM PROJECT 2023-2024.

프로덕션: 아파랏/어스 with 신진영 (프로듀서),
이지현 (그래픽디자이너), 임오성 Pe-look (웹),
장영규(사운드 편집) 그리고 참여자들
(여기요, 김시원, 마지막, 손경호, 두바이, 연희동,
뽕, 보엠, 비밀, 조수빈, 알수없는, 후!, 하나,
Changu, SON, J, 91, 7 외 익명의 참여자들)

Produced by apparat/us with Jinyoung
Shin (Producer), Jiheon Lee (Graphic
designer), Re-look (Web), Jang Younggyu
(Sound editor) and contributors (Yeogiyoo,
Siwon Kim, last, Kyung-ho Sohn, Dubai,
Yeonheedong, BAM, BOHEME, secret, Subin
Cho, Unknown, Hoo!, one, Changu,
SON, J, 91, 7 and many other anonymous

Every
Island
is
a
Mountain

<https://apparatus.or.kr/frozenfart>



〈새벽〉, 2006. 캔버스에 아크릴,
60.5 × 72.7 cm. 작가 제공. 사진: 임장활.

Daybreak, 2006, acrylic on canvas,
60.5 × 72.7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Janghwal Lim.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NFT 미술관: 피에타〉, 2022.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 2022.
〈NFT 미술관: 비너스〉, 2022.
작가 제공

NFT Museum: The Pieta, 2022.
NFT Museum: The Thinker, 2022.
NFT Museum: The Venus, 2022.
Courtesy of the artist.

〈NFT 미술관: 비너스〉, 202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분 39초. 작가 제공

NFT Museum: The Venus,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 min. 39 sec.
Courtesy of the artist.

Every
Island
is
a
Mountain

A problem has been detected and Physical Art has been shut down to prevent damage to your Art Universe.

DRIVER_IRQL_NOT_LESS_OR_EQUAL

If this is the first time you've seen this stop error screen, restart your mind, if this screen appears again, follow these steps:

Check to make sure any new hardware or software is properly installed. If this is a new installation, ask your A.I. for any information updates you might need.

Technical information:

*** STOP: 0x000000D1 (0x0000000C, 0x00000002, 0x00000000, 0xF86B5A89)

*** gv3.sys - Address F86B5A89 base at F8685000, DateStamp 3dd991eb

Beginning dump of physical memory

Physical memory dump complete.

contact your A.I. or shaman for further support.



〈송배자를 위하여〉, 2014-2016. 섬유유리와
폴리에스터 레진으로 만든 불상 위에
시퀀, 118 × 93.5 × 76.5 cm. 갤러리시몬 제공.

For the Worshipers, 2014-2016,
sequins on the Buddha statue of polyester
resin and fiberglass, 118 × 93.5 × 76.5 cm.
Courtesy of Gallery Si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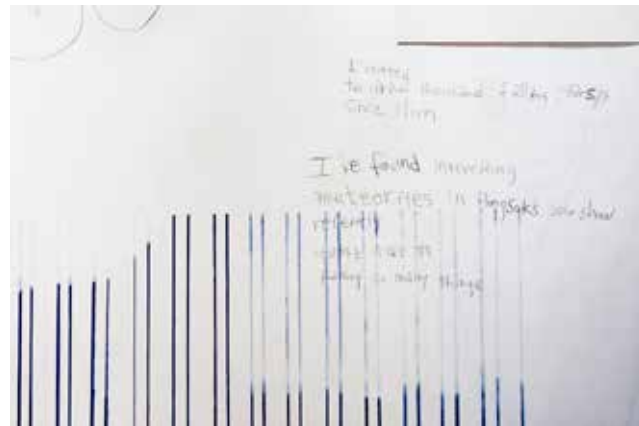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이주요 Jewyo Rhii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혼합 재료,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Handwritten notes in Korean, likely describing architectural concepts or design details. The text is dense and covers most of the page.

Handwritten notes in Korean, continuing the design or architectural discussion. The text is organized into several paragraphs.



Handwritten notes in Korean, positioned below the photograph of the person in the room.



Handwritten notes in Korean, positioned below the photograph of the person on the bench.







〈이름 없는 11〉, 2022, 폴리머 점토, 알루미늄
철사, 바니시, 9.6 × 3 × 2.5 cm.
〈이름 없는 10〉, 2022, 폴리머 점토, 알루미늄
철사, 바니시, 11.2 × 5 × 5 cm.



No Name 11, 2022, polymer clay,
aluminium wire, varnish, 9.6 × 3 × 2.5 cm.
No Name 10, 2022, polymer clay,
aluminium wire, varnish, 11.2 × 5 × 5 cm.



〈행성 4〉, 2021, 폴리머 점토, 스테인리스
스틸, 6.2 × 5.4 × 4.8 cm.
작가 제공. 사진: 권오열.

Planet 4, 2021, Polymer clay, Stainless
steel, 6.2 × 5.4 × 4.8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Kwon Oyeol.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켄타우루스와 미노타우루스〉(원형 버전),
2020, 단채널 비디오, 57초, 반복 재생. 작가 제공.

Centaur and Minotaur (prototype version),
2020, single-channel video, 57 sec.,
loop. Courtesy of the artist.

Every
Island
is
a
Mountain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빛과 어둠〉, 2023, 나무 판넬에
유화, 연필, 아크릴릭, 과슈, 은박, 15 × 15 cm.
작가, 국제갤러리 제공.

Light and Darkness, gouache, acrylic,
pencil, oil and silver leaf on wood
panel, 15 × 1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할망〉, 2023, 단채널 비디오,
4K,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2분.
〈수호자들〉, 2024, 단채널 비디오,
4K,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2분.

HALMANG, 2023, film, 4K,
color, stereo sound, 12 min.
GUARDIANS, 2024, film, 4K,
color, stereo sound, 12 min.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침묵의 고독—대학생〉, 2017, 레진, 발포 고무,
의류, 직물, 55 × 192 × 65 cm,
텍스트보드: 26 × 16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Solitude of Silences—Student, 2017, resin,
foam rubber, clothes, fabric, 55 × 192 × 65 cm,
textboard: 26 × 16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침묵의 고독—청소부〉, 2019, 레진, 발포 고무,
의류, 직물, 종이 가방, 93 × 125 × 59 cm,
텍스트보드: 26 × 16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Solitude of Silences—Cleaner, 2019,
resin, foam rubber, clothes, fabric, a paper
bag, 93 × 125 × 59 cm, textboard:
26 × 16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김윤철 Yunchul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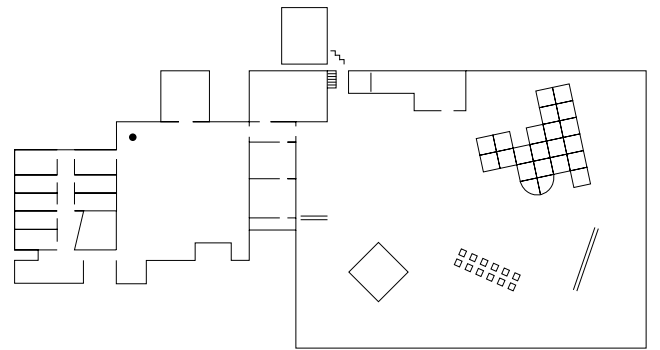
〈스트라타〉, 2024, 스트라타 젤,
아크릴릭, 알루미늄, 100 × 100 × 50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Strata, 2024, strata gel, acrylic,
aluminum, 100 × 100 × 50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대화〉, 2022, 혼합 재료,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Dialogue, 2022,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상록타워〉, 2001, C-print, 32개의 가족 사진,
55 × 80 cm (32). Bf 제공. 사진: 권현정.

Evergreen Tower, 2001, C-print, total 32
family portraits, 55 × 80 cm (32).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배영환 Bae Young-whan



〈걱정—서울 오후 5:30〉, 2012.
스테인리스 스틸, 사진, 사운드, 가변 크기,
10분 53초. Bf 제공. 사진: 권현정.

Anxiety—Seoul 5:30 PM, 2012, stainless
steel, photograph, sound, dimensions
variable, 10 min. 53 sec.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윤정서, 17세, 2007년 7월 19일〉, 2007.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34 × 102 cm,
‘소녀들의 화장법’ 중에서.

Jeongsuh Yun, age 17, July 19, 2007, 2007,
archival pigment print, 134 × 102 cm,
from the series *Cosmetic Girls*.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Raving〉, 2024, 사운드, 종이에 피그먼트 프린트, 사운드, 작가 제공.

Raving, 2024, sound, pigment print on paper. Courtesy of the artist.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미지에서 온 소식: 이클립스〉, 2022, 단채널 영상
설치, 17분 5초. Bf 제공. 사진: 권현정.

News from nowhere: Eclipse, 2022,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17 min. 5 sec.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코디 최 Cody Choi



〈다운 사이드 이즈 헤비〉, 2010-2011, 네온,
210 × 136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Downside is Heavy, 2010-2011, neon,
210 × 136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Measure〉, 201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8초. 작가 제공.

Measure, 2014,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5 min. 8 sec. Courtesy of the artist.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Who Am We?〉 (Multicoloured), 아트선재센터
설치전경, 2003, 사진: 작가, 아트선재센터,
리만머핀(뉴욕/서울/런던) ©서도호

Who Am We? (Multicoloured), Installation
view at Art Sonje Center, 2003.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rt Sonje Center,
Seoul and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Do Ho Suh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Who Am We?〉 (Multicoloured), 2000,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Who Am We? (Multicoloured), 2000,
digital print on paper,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이형우 hyung woo Lee



〈무제〉, 2023, 나무,
90 × 110 × 110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untitled, 2023, wood,
90 × 110 × 110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바늘여인 - 자오선〉, 2023,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5 × 100 cm. 작가 제공. 사진: Sergio López

A Needle Woman – Jaoseon, 2023,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75 × 100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Sergio López



〈보따리 - 커플〉, 2020, 작가 소유의 헌 옷과 천, 60 × 60 × 50(h)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Bottari – a couple, 2020, Used clothing, cloth, 60 × 60 × 50(h).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모든
섬은
산이다

〈불의 기하학 -자오선〉,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5 × 100 cm. 작가
제공. 사진: Sergio López

Geometry of Fire –Jaoseon, 2023,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75 × 100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Sergio López



〈바늘여인 – 자오선〉, 2023,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5 × 100 cm.
작가 제공. 사진: Sergio López

A Needle Woman – Jaoseon, 2023,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75 × 100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Sergio López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연역적 오브제 - 보따리〉, 2023,
종이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5 × 100 cm.
작가 제공. 사진: Sergio López

Deductive Object – Bottari, 2023,
archival pigment print on paper,
75 × 100 cm. Courtesy of the artist.
Photograph by Sergio López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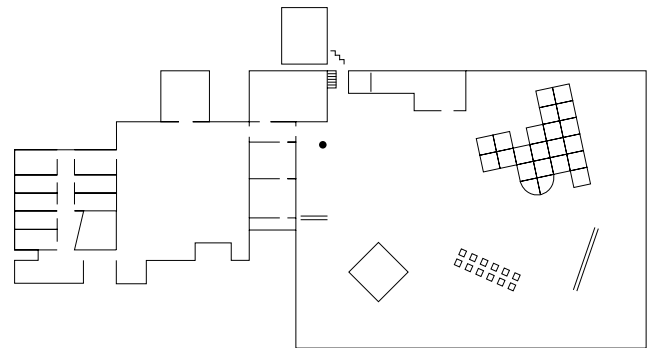
18
First Floor
Inse Whang
Michael Joo

19
Haebyeon Nam

20, 21
Chang Seoyoung
Se-jong Kang
Choi Jeong Hee
Kwak Hoon
Transparent Pavilion
(by OUR LABOUR)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 –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18.4 – 8.9, 2024,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황인기 Inkie Whang



〈이보게〉, 2023, 혼합 재료,
160 × 270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Hey, buddy, 2023, mixed media,
160 × 270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Single Breath Transfer (Ute), 2017.
불어 만든 유리, 42.5 × 21 × 21.6 cm. 작가,
국제갤러리 제공. 사진: Keith Park.

Single Breath Transfer (Ute), 2017.
Mold-blown glass, 42.5 × 21 × 21.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Photograph by Keith Park.



〈*Liminus (East Landing 2)*〉, 2017.
캔버스에 질산은과 에폭시 잉크, 158 × 122 cm.
작가, 국제갤러리 제공. 사진: Keith Park.

Liminus (East Landing 2), 2017, silver nitrate
and epoxy ink on canvas, 158 × 12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Photograph by Keith Park.

Every
Island
is
a
Mountain







남화연 Hwayeon Nam



〈이태리의 정원〉, 2024, 아카이브,
혼합 재료,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A Garden in Italy, 2024, archive,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증거〉, 2014. 작가 제공.

Evidence, 2014. Courtesy of the artist.

〈증거〉, 2014, 실사출력,
230 × 355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Evidence, 2014, custom size photograph
print, 230 × 355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아리랑〉, 2024, 혼합 재료,
350 × 400 × 400 c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션. Bf 제공. 사진: 권현정.

Arirang, 2024, mixed media,
350 × 400 × 400 cm. Commissioned by
Arts Council Korea.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nATuReNuRture〉, 2023-2024,
해양 쓰레기로 만든 스티로폼
조각, 철판, 아연 파이프, 콘크리트판,
385 × 92 × 110 cm,
345 × 90 × 110 cm,
345 × 50 × 80 cm,
365 × 65 × 170 cm,
354 × 88 × 120 cm,
384 × 85 × 130 cm,
384 × 75 × 170 cm,
384 × 60 × 90 cm,
354 × 90 × 100 cm,
256 × 46 × 89 cm,
364 × 65 × 100 cm,
270 × 85 × 140 cm.
Bf 제공. 사진: 권현정.

nATuReNuRture, 2023-2024,
styrofoam sculpture made
with marine debris, steel plate,
zinc pipe, concrete plate,
385 × 92 × 110 cm,
345 × 90 × 110 cm,
345 × 50 × 80 cm,
365 × 65 × 170 cm,
354 × 88 × 120 cm,
384 × 85 × 130 cm,
384 × 75 × 170 cm,
384 × 60 × 90 cm,
354 × 90 × 100 cm,
256 × 46 × 89 cm,
364 × 65 × 100 cm,
270 × 85 × 140 cm.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전시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Installation view.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곽훈 Kwak Hoon



〈컵/소리-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
1995, 옹기, 낙엽송, 밧줄, 가변 크기.
Bf 제공. 사진: 권현정.

Kalpa/Sound; What Marco Polo Left Behind,
1995, earthenware, larch wooden bar,
rope, dimensions variable.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139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당시 작가는 직접 가마를 만들어
구운 수십개의 옹기를 일렬로 설치하여
하나의 거대한 악기를 형상화한
설치작품 <겁/소리-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선보였고,
이를 대금연주가 김영동의 퍼포먼스와
결합하였다. 이번 전시 개막을 알리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 행사에서는 최초의 국립국악원 여성
대금연주가인 서승미가 곽훈 작가의
작품과 그가 집필한 시를 재해석하여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의 소리가
베니스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다시 한번 연출하였다.

서승미(대금 연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음원 프로듀서: 백다솜
훈 Featuring: 송경근
의상 전통한복: 김영석
사진 촬영 : 권현정, 박지민
영상 촬영 : 이종훈, 진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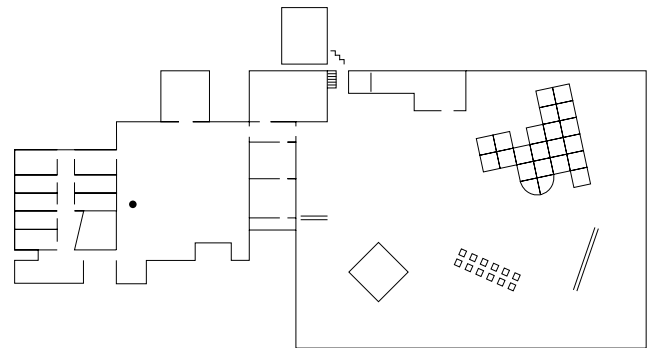
When Kwak Hoon represented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in 1995, the artist exhibited *Kalpa/Sound; What Marco Polo Left Behind* (1995), an installation resembling a monumental instrument with an array of dozens of onggi (Korean earthenware pots) he fired in a kiln he built himself, and it was featured with Kim Young Dong's daegeum (woodwind used in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ance. At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which marked the opening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first female daegeum musician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Seo Seung Mi performed music that reinterpreted Kwak Hoon's installation and a poem he penned, bringing the sound of Korea back to Ordine di Malta, from which it resonated throughout Venice.

Suh Seung Mi (Daegeum Player, Council Member of Arts Council Korea)
Audio Produced by Baek Da Som
Song Kyeong Keun on the Hun
Traditional Hanbok by Kim Young Seok
Filmed by Lee Jong heun and Jin Gyeonghui
Photograph by Hyunjung Kwon, Park Jimin









Ik-Joong Kang
Kwak Hoon
Kim Beom
Sora Kim
Kimsooja
Yunchul Kim
Kim In Kyum
Gimhongsok
Hwayeon Nam

Noh Sang-Kyoon
Michael Joo
Moon Kyungwon & Jeon Joonho
Sungsic Moon
Kiwon Park
Park Sejin
Bahc Yiso
Bae Young-whan
Do Ho Suh

Nakyoung Sung
Nakhee Sung
Heinkuhn Oh
Yun Hyong-keun
Lee Wan
Lee Yongbaek
Jewyo Rhii
Hyungkoo Lee
hyung woo Lee

Jheon Socheon
Chung Seoyoung
Yeondoo Jung
siren eun young jung
Jane Jin Kaisen
Choi Jeong Hwa
Cody Choi
Ham Jin
Inkie Whang

강익중
곽훈
김범
김소라

김수자
김윤철
김인겸
김홍석

남화연
노상균
마이클 주
문경원 & 전준호

문성식
박기원
박세진
박이소

배영환
서도호
성낙영
성낙희

오형근
윤형근
이완
이용백

이주요
이형구
이형우
전수천

정서영
정연두
정은영
제인 진 카이젠

최정화
코디 최
함진
황인기

강익중은 1980년대 초 미국 유학 시절에 3×3인치의 작은 그림을 서로 더하고 이어 붙인 작업으로 시작하여, 회화, 조각, 대형 설치, 장소 특정적 설치, 벽화, 공공 미술 등 연결과 공존의 의미를 전하는 작업을 여러 도시에서 전개해 왔다. 특히, 그의 작업은 참여형 예술을 통해 개인, 공동체, 그리고 단절된 세계 사이에서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메시지가 되어 오고 있다.

4m 정방형으로 제작된 〈아리랑〉(2024)은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원과 희망이 담긴 작업이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나가면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이자 동시에 잊어져 가는 고향을 기리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작가가 흠어진 실랑민 커뮤니티를 만나 수집한 수백 여 점의 개별 드로잉에는, 북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 풍경, 집, 가족의 얼굴 등 말할 수 없던 사적인 역사가 정성스럽게 펼쳐진다.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평화로운 정원 한쪽에 자리한 〈아리랑〉은 오늘날 심화되어가는 분쟁과 전쟁으로 상처 난 지구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써, 평화와 공존이 실현될 그날에 대한 실랑민들의 염원을 담는다.

Ik-Joong Kang's artistic journey began with assembling small 3x3 inch paintings during his academic year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1980s, expanding into a broader spectrum of practice that included painting, sculpture, expansive installations, site-specific works, murals, and public art, unfolding across various cities. Kang's work aims to convey the importance of connectivity and mutual existence. The participatory nature of his art engages the public, bridging gaps between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nnections severed in divided worlds.

The 4-meter square piece *Arirang* (2024) captures the collective yearning and hope of those living in the shadow of the legacy left by wartime division. More than seventy years after the onset of the Korean War, the memories of those burdened by its aftermath serve as both a relentless reminder of suffering and the sole beacon of hope for commemorating a homeland that is gradually fading from memory. Kang has collected hundreds of individual drawings from a scattered diaspora of people displaced by war. Situated in the peaceful garden of Ordine di Malta, *Arirang* delivers a poignant message to humanity, wounded by today's escalating conflicts and wars, echoing the displaced individuals' aspirations for a future where peace and coexistence prevail.

곽훈 b.1941

곽훈은 불교사상과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심오한 영적세계를 흙, 옹기, 소나무, 한지 등의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는 기(氣), 겁(劫)과 같은 관념을 담은 표현주의적인 회화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설치작품을 통해 관객들의 시적인 명상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마주친 고래 뼈, 울산 반구대암각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롭게 강렬한 붓놀림으로 그려낸 〈할라잇〉 연작을 선보였다.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당시 작가는 이전에 직접 가마를 만들어 구운 수십개의 옹기를 마치 통소처럼 보이도록 소나무 장대에 줄줄이 매달아 늘어뜨리고 이를 20명의 비구니들이 들쳐 메고 행진한 후 한국관 외부에 설치하는 작품 〈겁/소리-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선보였다. 이는 음악적인 요소를 담은 제의적 퍼포먼스와 결합된 작품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대금연주자 김영동이 대금을 연주하기도 했다. 대금 소리가 대기를 울리며 대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비구니 스님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며 공명하도록 하여 한국의 소리가 베니스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정원에 다시 설치되는 이 작품은 3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미술의 실험성과 도전정신을 보여준다.

Kwak Hoon b.1941

Kwak Hoon's work deeply engages with Buddhist thought and Eastern philosophy, utilizing traditional Korean materials such as clay, earthenware, and pine trees. His oeuvre, which encompasses expressionist paintings and experimental installations, encapsulates notions like "Qi" and "Kalpa," inviting viewers into poetic meditation. His recent *Halaayt* series, inspired by whale bones encountered in Alaska and the Bangudae Petroglyphs in Ulsan, demonstrates Kwak's vigorous and unrestrained brushwork.

At the 1995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Kwak presented *Kalpa/Sound; What Marco Polo Left Behind* (1995). This installation featured dozens of earthenware pots, crafted in Icheon and strung across pine poles to echo a tungso (a traditional Korean flute), weaving a visual and auditory connection to Korean heritage. The performance, involving 20 Buddhist nuns carrying and then installing the pots outside the Korean Pavilion, merged ritualistic elements with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nhanced by renowned daegeum musician Kim Young Dong, the performance allowed the daegeum's melodies to resonate through the air and the interconnected bamboo, spreading the sound of Korea throughout Venice. Reinstalled in Ordine di Malta's garden for this exhibition, the work showcases the enduring experimental spirit and daring nature of Korean art from three decades ago to the present.

김범은 회화, 드로잉, 조각, 비디오, 아티스트 북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인간의 지각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세계를 다루어 왔다. 관습을 뒤집는 진지한 유머와 부조리한 제안이 특징인 그의 시각언어는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관념적인지를 해학적으로 드러내왔다.

김범의 작업에서 인간이 도구 혹은 수단의 대상과 결합하는 상황은 큰 관심사로 등장해왔다. 영상 작업 〈켄타우루스와 미노타우루스(원형 버전)〉(2020)에는 로데오 경기에서 야생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과 이에 저항하는 동물, 그 둘 사이에서 주종 관계를 둘러싼 격렬한 긴장 상태가 담긴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두 가지 다른 본능과 영혼이 격렬하게 다투는 과정은 고대 신화에서 흔하게 등장해온 반인반수 혹은 괴물의 서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명의 전개 속 인간과 도구과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성찰을 불러 일으킨다. 4점의 연속사진 작품에서 모든 장면을 이어 제작한 이 영상은 초기 사진기법에 따라 인화된 청사진 프린트(cyanotype)와 반다이크 프린트(vandyke print)의 푸른색과 갈색을 따른다.

Kim Beom explores a world where the core of human perception is fundamentally challenged, through a wide spectrum of artistic endeavors including painting, drawing, sculpture, video, and artist's books. His visual language, characterized by profound humor and absurd propositions, humorously reveals how fragile and conceptual our system of perception and knowledge about real objects can be.

A significant theme in his work i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objects or tools, highlighting how they merge as subjects. In *Centaur and Minotaur (prototype version)* (2020), Kim encapsulates the fierce tension between the desire of humans to dominate the wildness in a rodeo and the resistance of the animals involved, reflecting on the hierarchical dynamics between them. This clash of divergent instincts and souls within a unified state harks back to the narratives of centaurs or monsters common in ancient mythology, prompting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ools, and between conquerors and the conquered, within the unfolding of civilization. Employing early photographic techniques, the video piece—a series of four photographs—adopts the cyanotype's blue and the vandyke print's brown hues.

김소라 b.1965

A SORA KIM PROJECT 2023-2024
프로덕션: 아파랏/어스 with 신진영
(프로듀서), 이지현(그래픽디자이너),
임오성 Re-look(웹), 장영규(사운드
편집) 그리고 참여자(여기요, 김시원,
마지막, 손경호, 두바이, 연희동, 뱀,
보엠, 비밀, 조수빈, 알수없는, 후!, 하나,
Changu, SON, J, 91, 7 외 익명의
참여자들)

떠다니는 움직임, 언어, 허상의
단면을 포착해 그린 지도와 같은
김소라의 작업은 세계의 보이지 않는
가능성들과 그 가능성이 지닌 0와 같은
무게를 드러내왔다. 미결정의 단서에서
출발해서 이를 여러 협업자에게
전달하며 전개되는 작가의 결과물은
언어 밖에서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등의 형태로 잠시 뭉쳤다 곧 사라진다.

모든
섬은
산이다

김소라, <일어붙은 방귀의 싸늘한 냉기>,
A SORA KIM PROJECT 2023-2024.

김소라는 시각언어에서 감각하기
어려운 파동과 번짐,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공기로서의 전시 경험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작업은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건축공간, 특히 전시 경험의
주변부로 남겨진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을 바탕으로 두고 구상이 되었다.
복도의 천장에 설치된 두 개의
스피커에서는 작가의 지침에 응한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소리의
파편들이 펼쳐지기도 응집되기도
하며 쏟아진다. 복도를 관통하는
관객들이 우연적으로 듣게 되는 이
작업은 “문장이자 노래이며, 외침이자
기침같은 덩어리”로서 뭉쳐지는 순간
이내 곧 흩어지는 운동이자 리듬으로
공간에 머문다. 이 낯선 타인들의
웅성거림은 통로 공간을 지나가는 신체
및 소리와 마주치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낸다.

김소라는 2005년 제6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던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Sora Kim b.1965

A SORA KIM PROJECT 2023-2024
Produced by apparat/us with
Jinyoung Shin (Producer), Jiheon
Lee (Graphic Designer), Re-look
(Web), Jang Younggyu (Sound
editor), and contributors (Yeo-
giyo, Siwon Kim, last, Kyung-ho
Sohn, Dubai, Yeonheedong, BAM,
BOHEME, secret, Subin Cho,
Unknown, Hoo!, one, Changu, SON,
J, 91, 7 and many other anonymous
contributors)

Sora Kim's works, reminiscent
of maps charting ephemeral
movements, languages, and illu-
sions, reveal the hidden potentials
of the world and their inherent,
intangible mass. Originating from
ambiguous hints and extended
to a variety of collaborators, her
creations briefly coalesce into
expressive forms beyond words—
encompassing sound,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before swiftly
fading away.

Sora Kim, *an icy chill of a frozen fart*.
A SORA KIM PROJECT 2023-2024.

Sora Kim has a keen interest in
transforming the exhibition expe-
rience into something akin to air,
enabling visitors to feel the subtle
vibrations, blurs, and flows that
are elusive in visual language. *an
icy chill of a frozen fart* (2023-2024)
is conceived with the architectural
space of Ordine di Malta in mind,
especially focusing on peripheral
spaces like corridors left on the
fringe of the exhibition experience.
Various sound fragments, collected
from participants following the
artist's directions, resonate and
merge from two speakers installed
on the corridor ceiling, creating
a dynamic auditory experience.
Encountered randomly by visitors
as they traverse the corridor, this
work embodies a motion and rhythm
that quickly coalesce into “phrases,
songs, shouts, and cough-like
clusters” before dispersing again.
The murmurs of these unfamiliar
strangers initiate a new phase of
world recognition as they intersect
with the bodies and sounds navi-
gating the passageway.

Sora Kim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nominated artist
of the 6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5.

김수자는 이주와 정주, 삶과 죽음,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서 존재론적 사유와 경험의 장을 장소 특정적 작업, 설치, 퍼포먼스, 영상, 회화,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로 심도있게 탐구해 왔다. 그의 작업에서 삶의 함축적 오브제로 시작된 '보따리'는 영토와 경계 너머의 세계와 관계 맺는 태도이자 실천의 형태로 제시된다.

김수자가 1999년부터 세계 곳곳을 돌며 진행한 〈바늘 여인〉 시리즈의 최근작으로서 〈바늘 여인 - 자오선〉(2023)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가장 짧은 수직의 거리로 연결하는 원형의 선인 자오선 (Jaoseon)에서 유래한다. 멕시코 푸에르토 에스콘디도에서의 지정학적 조건을 반영한 이 작업은 건축공간 안에서 빛이 기하학적 구조로 변화하는 순간 빛의 길이와 신체적 작도를

함께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시장의 바닥에 나지막이 자리한 무채색의 〈보따리 - 커플〉 (2020)은 작가의 삶과 예술관을 관통하는 사물이자, 멕시코에서의 자오선이 품은 지질학적 시공간과 새로운 접속의 장을 여는 작업이다. 작가 자신과 작고한 남편의 옷가지가 싸여있는 이 작업은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기억과 물성을 보따리로 담아냄으로써, 자아와 타자, 부재와 현전, 생과 사,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남겨진 불연속적인 차원을 유기적 형태로 포용한다.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수평적 질서에 조응한 다섯 점의 퍼포먼스 사진과 그 한편에 배치된 보따리는 대지와 하늘, 햇빛과 그림자 사이를 너그럽이 직조하여, 무수한 경계를 가로지르며 삶을 성찰해 온 작가의 세계관과 그 너머의 여정을 암시한다.

Kimsooja delves into the theme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life and death, as well as ontological contemplations and experiences straddling the material and immaterial, employing a variety of media such as site-specific works, installations, performances, video art, paintings, and objects. In her practice, the 'bottari'—initially an implicit object of life—emerges as a mode of engagement and a practice for relating to the world beyond territories and boundaries.

A Needle Woman - Jaoseon (2023) is the latest work in her *A Needle Woman* series, which she has been developing since 1999 and has taken her across the world. Derived from the concept of Jaoseon—the shortest vertical line connecting the Earth's poles, forming a circular path, this work mirrors the geopolitical nuances of Puerto Escondido, Mexico and captures the ephemeral moments when light morphs into geometric shapes within architectural con-

ditions, documenting the interplay of light's path and bodily form. At the exhibition's core, the monochrome *Bottari - a couple* (2020) sits understatedly—an object that threads through the artist's life and philosophy and a work that opens a realm of new connections with the geological spacetime embraced by the Jaoseon in Mexico. With garments that belonged to the artist herself and her late husband enfolding the piece, it ensnares deeply personal and intimate recollections into a bottari. This act organically encompasses the discontinuous dimensions between self and other, absence and presence, life and death, and humanity and nature.

Within the horizontal order of Ordine di Malta, the five photographs of performance, with the bottari placed at their center, generously interlace the realms of space and sky, light and shadow, intertwining the artist's journey of reflecting on life across countless boundaries.

김수자, 〈바늘여인 - 자오선〉, 2023
 김수자, 〈보따리 - 커플〉, 2020
 김수자, 〈불의 기하학 - 자오선〉, 2023
 김수자, 〈연역적 오브제 - 보따리〉, 2023

김수자는 2010년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Kimsooja, A Needle Woman - Jaoseon, 2023

Kimsooja, Bottari - a couple, 2020
Kimsooja, Geometry of Fire - Jaoseon, 2023,
Kimsooja, Deductive Object - Bottari, 2023

Kimsooja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in the framework of her participation in the solo exhibition presented at L'Atelier Hermès, in 2010.

Every Island is a Mountain

김윤철 b.1970

김윤철은 시각예술 작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겸 전자음악 작곡가이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온 김윤철은 물질의 잠재적 성향에 주목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실재에 대한 상상과 창조의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상상한 물질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의 작품 세계는 문화 혹은 언어 이전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파생시킨다. 인간과 비인간, 기계와 물질, 그리고 질료는 작가의 작업에서 지각할 수 없는 사건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능동적 행위자’로서 작동한다.

나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자신의 가지들을 뻗어간다면, 작품 〈스트라타〉(2024)는 나무가 분자 구조의 상태로 분해되면서 다름 아닌 중력에 의해 깊은 시간의 틈으로 층화되는 물질의 경계면을 드러낸다. 2022년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크로마 V〉(2022), 그리고 〈태양들의 먼지〉(2022) 등을 비롯하여 작가는 그간 합성고분자, 깊은 땅속으로부터의 광물, 바다의 해초 등의 물질들, 질료의 구조색을 통해 드러나는 색의 깊이와 결, 그리고 빛의 패턴들을 탐구해왔다. 이번 신작 〈스트라타〉는 나무에서 추출된 셀룰로스 분자의 카이랄성(chirality)을 통해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 즉 반고체의 상태를 유지하며, 온도, 습도, 빛의 굴절을 통한 빛과 시간, 그리고 층화된 물질의 경계면을 드러낸다.

Yunchul Kim b.1970

Yunchul Kim is an artist and electroacoustic music composer active internationally today. The artist, who has ask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material” since studying abroad in Germany, has shown the possibilities of imagination and the creation of another reality that goes beyond the realm of human experience, paying attention to its potential tendencies. Yunchul Kim’s body of work embodies the material world imagined by the artist and is a story of a dimension before humans formed cultures or were defined by language. His works, in which humans, non-humans, machines, materials, and substances are considered equal, exist as a “non-human agency” and “initiating agent,” as the subject of imperceptible events.

If a tree stretches its branches towards the sky in defiance of gravity over time, *Strata* (2024) reveals the boundaries of matter, stratified by gravity into deep chasms of time as the tree decomposes into molecular structures. In his works, including *Chroma V* (2022) and *Dust of the Suns* (2022), presented at the Korean Pavilion at the Biennale Arte 2022, the artist has been exploring the depth and texture of colour, and patterns of light through the materials such as synthetic polymers, minerals from deep underground, and seaweed from the ocean that are revealed through the structural colours of materials.

지질학에서의 깊은 시간(deep time)처럼 물질들은 중력을 통해 자기 자신의 깊은 시간으로 응화된 채 봉인되지만, 여전히 빛과 열에 열려 있는 채 하루, 그리고 계절의 운행에 따라 다채로운 빛의 현현으로 변화한다. 공기, 깊은 바다 혹은 부서진 광물의 절단면과도 같은 깊이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통해 관객은 표면의 색이 아닌 작품 안으로 응화된 물성의 실재가 트랜스매터링되는 색의 깊이를 경험할 것이다.

Through the chirality of the molecules of cellulose extracted from trees, *Strata* maintains a state of semi-solidity, an intermediate state between solid and liquid, revealing the boundaries of light, time and stratified matter through temperature, humidity and refraction of light. Like deep time in geology, the materials are stratified and sealed by gravity into their own deep time, but are still open to light and heat, transforming into colourful manifestations of light as the day and seasons pass. Through events that take place in the depths of the air, the deep ocean, or the cut of a broken mineral, the spectator will experience a depth of colour that transmatters not the colour of the surface, but the reality of a laminated materiality into the work.

김인겸 1945 - 2018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김인겸은 단순한 형태와 재료가 지니는 물성을 활용하여 사유의 공간을 만드는 작가이다. 공간 자체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프로젝트〉 연작을 시작으로 작가는 공간이라는 조형요소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게 되었으며 2018년 작고하기까지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조형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작품의 모형과 드로잉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21—내추럴 넷〉(1995)는 작가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거운 철판 대신 투명한 질감의 청보라 빛 아크릴 구조물을 활용하여 한국관 내부의 나선형 계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이다. 나선형 계단을 감싸는 구조물 안에 물을 채운 후 공기 압축기로 이를 역동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였고, 이 계단을 오르면서 CCTV에 찍힌 관람객이 2층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구성되었다. 작가는 〈프로젝트21—내추럴 넷〉을 “자연과 현대과학이 만나 소통하는 네트워크”라고 지칭하고 건축적으로 겹겹이 세워진 구조물 안에 소용돌이치는 물소리와 아크릴에 환영처럼 비치는 관람객의 얼굴이 어우러져 한국관을 찾은 이들에게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김인겸, 〈프로젝트21—내추럴 넷〉
모형, 1995.
김인겸, 〈프로젝트21—내추럴 넷〉
드로잉, 1995.

모든
섬은
산이다

Kim In Kyum 1945 - 2018

Kim In Kyum,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vilion exhibition at the Venice Biennale in 1995, was an artist who created spaces of contemplation through the use of simple forms and the inherent properties of materials. Beginning with his *Project* series, which actively drew the space itself into the composition of his works, Kim placed an emphasis on the sculptural element of space, persistently delving into the essence of form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works until his passing in 2018.

Project21-Natural Net (1995),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through a miniature model and a piece of concept drawing, offers a glimpse into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s design centered around the spiral staircase inside the Korean Pavilion. Utilizing the transparency of the blue-purple acrylic structure, the design of the installation, enveloping the staircase, creates dynamic circulation by filling the encircling structure with water, propelled by an air compressor. As visitors ascend the staircase, they are captured by a surveillance camera and can see themselves on monitors installed on the second floor. This piece, as Kim described, is a 'network where nature and modern science meet and communicate,' offering a mystical experience to visitors of the Korean Pavilion, with the swirling sound of water and the reflections of visitors' faces merging like a mirage within the layered structures.

Kim In Kyum, Miniature model of
Project21-Natural Net, 1995.
Kim In Kyum, Concept drawing of
Project21-Natural Net, 1995.

김홍석은 서구 모더니티에 의해 탄생한 한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서구화된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해석과 번역 작업을 통해 교란된 동양의 새로운 질서를 해학적으로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 보여주는 서구 현대미술의 윤리적 정치성, 그리고 퍼포먼스의 보존에 대한 탐욕적 실현 등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매체와 한 미술가가 하나로 표상되는 이미지를 거부하며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통해 자신의 미술을 표현한다.

김홍석의 <침묵의 고독> 프로젝트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극사실 조각을 통해 재현한 작품이다. 김홍석은 현대 퍼포먼스에 미술가 자신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고, 미술가와 퍼포머 간의 위계적인 부분을 비판한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자본적 보상 및 그들의 위치가 미술가보다 언제나 하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그는 '실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극사실적 조각을 제작하여 퍼포먼스로 대체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직업군은 대체로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평소에 미술관 운영시간에 올 수 없는 이들과 미술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대상화한다.

김홍석, <침묵의 고독—청소부>, 2019.
김홍석, <침묵의 고독—대학생>, 2017.

Gimhongsok explores the nation and society of Korea as shaped by Western modernity. He humorously critiques the disrupted new order of the East through hi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Westernized society and culture. Furthermore, he critiques both the ethical politicization of Western contemporary art, as depicted in art history, and the greedy pursuit of performance preservation. Rejecting the notion that an artist can be represented by a single image, he expresses his art through a diverse array of mediums and materials.

The Solitude of Silences project features hyperrealistic sculptures that represent workers or people taking a brief rest. Gimhongsok critiques the hierarchical divide between artists and performers in contemporary art,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various roles beyond that of the individual artist. By substituting real people with hyperrealistic sculptures, he critiques the capitalist compensation system and the systematically lower status of performers relative to artists. The depicted professions specifically spotlight those unable to visit art museums during regular hours due to their jobs, and impoverished artists marginalized within the art world.

Gimhongsok, *Solitude of Silences—Cleaner*, 2019.
Gimhongsok, *Solitude of Silences—Student*, 2017.

남화연 b.1979

남화연은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를 넘나들며 대상을 추적하고, 역사적 상황과 물리적 시간 속에 내재한 현상을 가로지른다. 또한, 인물과 사물, 공간과 시간, 사회 구조와 현상 등을 안무적인 움직임으로 포착하고, 인간의 욕망과 그에 관련된 문화적 재생산 구조들에 집중하여 영상 작업과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현재라는 시간 개념에 질문을 통해 창작활동의 수행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태리의 정원〉(2024)은 남화연이 다년간의 연구를 진행한 근대무용가 최승희(1911-1969)*의 육성으로 1936년 녹음한 음반 제목이자, 동명의 곡 제목이다.

*최승희(1911-1969)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열여섯에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무용가 이시이 바쿠(石井 漢, 1886-1962)를 사사하고 이후 다시 한국 전통 무용과 동양 무용을 탐구한 근현대 시기 중요 무용가이다. 최승희의 춤과 행보는 당시 조선과 일본,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구 사이에 선 예술가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갈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든
섬은
산이다

2019년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예술감독: 김현진)에의 〈이태리의 정원〉(2019)은 한국관 뒤편 정원에 동양에 기원을 둔 식물들을 개화 시기로 분류하여 식재한 설치 작업으로, 1시간 간격으로 최승희의 육성이 담긴 노래를 함께 재생하였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에서는 지난 전시 당시 약 10종의 식물의 발화기에 맞춰 촬영한 사진 작업 일부와 아카이브 자료, 30분마다 고요하게 재생되는 최승희 육성 음원을 통해 최승희의 “동양 무용”을 정치적 선택과 예술적 욕망이 뒤얽혀 진동했던 분열적 시기로 응시한 남화연의 연장된 연구를 재구성한다.

남화연, 〈이태리의 정원〉, 2024.

남화연은 2009년 제10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던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Hwayeon Nam b.1979

Hwayeon Nam traverses various archival realms to trace subjects, working across phenomena inherent in historical contexts and physical time. Additionally, she captures individuals, objects, spaces, and temporal sequences in choreographed movements, concentrating on human desires and the associated mechanisms of cultural reproduction via video creations and performances. Through this process, Nam constructs the performative nature of her artistic practice by questioning the concept of the present time.

A Garden in Italy, (2024) derives its name from a 1936 record by the modern dancer Seung-hee Choi (1911-1969), who is a focal point of Nam's in-depth research.

*Seung-hee Choi (1911-1969), born in the era of Japanese colonial rule, ventured to Japan at sixteen to apprentice with the modern dancer Bac Ishii (石井 漢, 1886-1962). She subsequently explored Korean traditional and Eastern dances on her own terms, becoming a pivotal figure in the era of modern dance. Choi's dance and journey encapsulate the dilemmas and epochal conflicts of an artist straddling Korea and Japa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East and the West.

Exhibited at the 58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s 2019 exhibition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Art Director: Hyunjin Kim), *A Garden in Italy* (2019) was an installation featuring Asian-origin plants categorized by their blooming periods in the garden behind the Korean Pavilion, which was accompanied by an hourly playback of Seung-hee Choi's voice. This exhibition features a selection of photographs aligned with the blooming periods of about ten plants from the previous exhibition, archival materials, and quiet, half-hourly playbacks of Seung-hee Choi's voice recordings. Together, they delve into Seung-hee Choi's 'Eastern Dance' during a divisive period marked by political choices and artistic desires, recontextualizing Nam's extensive research.

Hwayeon Nam, *A Garden in Italy*, 2024.

Hwayeon Nam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nominated artist of the 10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9.

노상균 b.1958

노상균은 플라스틱 시퀀을 사용하여 캔버스의 평면에 배열하거나 불상, 예수상, 마네킹과 같은 조각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다. 주로 옷이나 가방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던 대중적인 재료인 시퀀은 빛의 각도와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서 변화하며 강렬한 색채와 입체감을 보여준다. 최근 작가는 햇빛이나 조명의 빛을 흡수하여 축적했다가 어두울 때 다시 방출하는 축광안료를 사용하여 빛과 에너지의 반복과 순환, 시간성을 보여주는 작품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깊은 사색과 깨달음이 담긴 대표 작품, 〈송배자를 위하여〉(2014-2016)를 선보인다. 종교적 상징물인 불상에는 검은 시퀀이 반복적으로 부착 되어있으며 검은색 시퀀 빗줄로 부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상반신을 포박하듯 둘러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퀀 속 좌불은 속세의 어떤 혼돈과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듯 고요히 정좌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전통적인 조각이 지니는 기념비적인 기능과 의미에 도전하며,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상균, 〈송배자를 위하여〉, 2014-2016.

Noh Sang-Kyoon b.1958

156

Noh Sang-Kyoon is recognized for his innovative use of plastic sequins, applying them to flat canvases or attaching them onto figures such as Buddha statues, Christ statues, and mannequins. Sequins, a material commonly used for decorating clothes and bags, imbue his works with vibrant colors and a sense of dimensionality that changes with the light's angle and the viewers' perspectives. Noh continues to explore the repetitive and cyclical nature of light and energy, as well as the aspects of temporality. This exploration is through the use of photoluminescent pigments, which absorb light from the sun or artificial sources and later emit light in darkness.

In this exhibition, he presents *For the Worshippers* (2014-2016), one of his signature works imbued with deep reflection and enlightenment. The piece involves meticulously attaching black sequins to a religious symbol, specifically a Buddha statue, by covering the eyes and ears and encircling the upper body with ropes made of black sequins as if to bind it. Despite the apparent restraint, the seated Buddha, enshrined within the sequins, remains serene, seemingly untouched by any external turmoil or change. Through this piece, Noh challenges the monumental function and meaning traditionally held by sculpture, offering audience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holy and the secular.

Noh Sang-Kyoon, *For the Worshippers*, 2014-2016.

Every
Island
is
a
Mountain

마이클 주 b.1966

마이클 주는 과학과 인문학, 인류와 자연 사이에서의 경계와 주변부 및 전방에서 작업하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범위와 구획에 도전해 왔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Liminus>(2017)는 작가가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하여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화산섬인 독도를 방문하여 제작한 연작 회화이다. 독도에 드물게 존재하는 평평한 바닥에 캔버스를 깔아 72시간을 기다린 이 작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요소와 바람에 휩쓸린 풍경, 심지어 이동하는 송새의 자취까지 담긴 독특한 예폭시 풍경을 드러낸다.

<Liminus>를 지지하고 있는 투명한 구조체는 이탈리아계 브라질 여성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 1914-1992)의 개방적인 전시 구조물에 대한 작가의 오마주로 제작된 것으로, 프레스코화가 있는 전시 공간에서 시공간적 차원의 대화를 끌어 내고 분열된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긴급함을 일깨운다. 함께 전시된 유리 조각인 <Single Breath Transfer>(2017)는 작가와 유리 블로워 사이에서 비닐과 종이봉투를 통해 인간의 날숨이 유리로 변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포착한 작업이다. 연약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전이 상태에 대한 조각적 기록을 보여주는 이 작업은 물질적 상태, 인간의 신체와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환기시킨다.

마이클 주, <Liminus (East Landing 2)>, 2017.

마이클 주, <Liminus (West Landing 2)>, 2017.

마이클 주, <Liminus (East Landing 3)>, 2017.

마이클 주, <Single Breath Transfer (Devil's Tower 1)>, 2017.

마이클 주, <Single Breath Transfer (Ute)>, 2017.

마이클 주, <Single Breath Transfer (Merrick's)>, 2017.

Michael Joo b.1966

Michael Joo transcends traditional boundaries between science and humanities, humankind and nature, often working at their borders, edges and frontiers. *Liminus* (2017) are a series of paintings created during Joo's visits to the remote and largely untouched islands of Dokdo, ancient volcanic cinder cones at the far eastern edge of the Korean Peninsula. Here, he took unique epoxy impressions on canvases affixed to the islands' few horizontal surfaces in a 72-hour long process involving exposure to Dokdo's tempestuously shifting natural elements, wind swept landscapes and even migrating songbirds. The dramatic yet delicately textured resulting surfaces were then visually amplified with silver in a process derived from photographic printing techniques.

The blown glass vessels of the *Single Breath Transfer* series works (2017-24) capture the passing of a human breath between Joo and a glass-blower using plastic and paper bags, which disintegrate in their perfectly captured transformation to glass. These works evoke the interplay between physical matter, the human body, and consciousness; sculptural records of human transmission both fragile and in constant flux. The transparent supporting walls of the *Liminus* paintings pay direct homage to Italian-Brazilian architect Lina Bo Bardi (1914-1992) and her open display structures, fostering a dialogue between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of the frescoed exhibition space and further evoking the urgency of bridging that which divides us.

Michael Joo, *Liminus (East Landing 2)*, 2017.

Michael Joo, *Liminus (West Landing 2)*, 2017.

Michael Joo, *Liminus (East Landing 3)*, 2017.

Michael Joo, *Single Breath Transfer (Devil's Tower 1)*, 2017.

Michael Joo, *Single Breath Transfer (Ute)*, 2017.

Michael Joo, *Single Breath Transfer (Merrick's)*, 2017.

문경원 & 전준호 b.1969, b.1969

문경원과 전준호는 2009년부터 듀오로 활동하며, 급변하는 세계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탐구해 왔다. 대표적 작업으로 <미지에서 온 소식> (2012-)은 다학제적 연구, 리서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미래에 대응하는 상호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미지에서 온 소식: 이클립스>(2022)는 망망대해에서 구명선에 탄 채 아슬아슬하게 삶을 이어가는 한 인물의 투쟁기를 담은 작업이다. 거친 파도와 위험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된 인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폐쇄 가능한 구명선과 신호 없는 주파수뿐이다. 고조되는 위험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물의 모습은 실재와 허구, 현실과 가상의 혼재 속에서 암울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투영한다. 인물이 처한 상황은 영상과 동기화된 조명 효과를 통해, 점멸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급함 및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신호가 되어 현실 공간과 축각적으로 매개된다. 배우 류준열이 열연한 이 작업은 2022년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첫선을 보인 후 아트바젤 언리미티드 섹션(2023), 누르 리야드(2023) 등에서 전시되었다.

문경원 & 전준호, <미지에서 온 소식: 이클립스>, 2022.

Moon Kyungwon & Jeon Joonho b.1969, b.1969

Moon Kyungwon and Jeon Joonho have been working as a duo since 2009, exploring the social function and role of art based on reflections on the crises facing our rapidly changing world. Their notable project, *News from Nowhere* (2012-), is a long-term initiative grounded in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vestigation, and collaboration, serving as a platform for exchange and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the future.

News from Nowhere: Eclipse (2022) captures the struggle of a person striving to survive at sea aboard a lifeboat. Amidst turbulent waves and perilous waters, the ship-wrecked protagonist's only reliances are a sealable lifeboat and a radio frequency devoid of signals. Despite escalating dangers and despair, the protagonist's unwavering hope embodies the human spirit's capacity to navigate through a grim future amidst the blurring lin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the tangible and the virtual. The protagonist's predicament, amplified through synchronized video and lighting effects, serves as a critical signal that cuts across the boundaries of art and reality, highlighting the urgency of our present and future, and facilitating a tactile mediation between the artwork and the physical space. This work, featuring a compelling performance by actor Ryu Junyeol, debuted at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in 2022 and has been exhibited at Art Basel's Unlimited section and Noor Riyadh in 2023.

Moon Kyungwon & Jeon Joonho, *News from nowhere: Eclipse*, 2022.

문성식 b.1980

문성식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유형형의 감각들을 포착하여 다양한 재료로 화면에 그려낸다. 문성식이 작품 속에서 담아내는 ‘삶’은 단순한 관찰과 재현의 방식을 넘어선다. 작가의 시선으로 투과하고 굴절해 낸 ‘삶’의 단상은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발생시킨다. 작가는 본인만의 민감하고 서정적인 감수성을 통해 자연과 삶의 장면들을 그려내는데, 그가 사용하는 특유의 기법은 한국적 미학을 작가의 개성 있는 선과 필치로 재해석하여 회화로 고착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문성식, 〈매화나무〉, 2023.

문성식, 〈정원과 가족〉, 2023.

문성식, 〈목련〉, 2023.

문성식, 〈정원과 개와 닭〉, 2023.

문성식, 〈오이냉쿨〉, 2023.

문성식, 〈석류나무〉, 2023.

문성식, 〈모과나무와 새〉, 2023.

문성식, 〈빛과 어둠〉, 2023.

문성식, 〈비둘기들〉, 2023.

문성식, 〈집들〉, 2023.

문성식, 〈돌과 물〉, 2023.

문성식, 〈겨울 산〉, 2023.

모든
섬은
산이다

어두운 전시장에서 빛나는 문성식의 작품 한 점 한 점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연상시킨다. 벽면을 가득 채우는 작가의 신작 19점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담고 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은박을 활용한 상감기법의 표면 처리는 일상의 장면을 박제한 듯한 아름답고 생경한 회화적 경험을 열어준다. 빛에 반사된 은박의 질감 위에 그려진 자유로운 획의 드로잉은 평소 작가가 가진 미학적 습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한국회화의 어법들을 반영한다. 그의 작품들은 흡사 고가구 자개의 질감이나 한국회화의 구성을 연상시키면서 다차원적인 기시감을 보여준다. 이 세계의 아름답고 기묘한 순간을 독특한 물질화로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한국회화의 새로운 숙련된 반복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Sungsic Moon b.1980

Sungsic Moon captures all tangible and intangible sensations found in life, translating them onto the canvas using a variety of materials. The life depicted in Moon's works transcends mere observation and reproduction. The fragments of life, filtered and refracted through the artist's gaze, evoke variou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With his sensitive and lyrical sensibility, Moon paints scenes of nature and life, and his distinctive technique seeks to solidify Korean aesthetics into painting through his unique lines and strokes.

Sungsic Moon, *Plum Blossom*, 2023.

Sungsic Moon, *Garden and a Family*, 2023.

Sungsic Moon, *Magnolia*, 2023.

Sungsic Moon, *Garden, a Dog and a Rooster*, 2023.

Sungsic Moon, *Cucumber Vine*, 2023.

Sungsic Moon, *Pomegranate Tree*, 2023.

Sungsic Moon, *Quince Tree and a Bird*, 2023.

Sungsic Moon, *Light and Darkness*, 2023.

Sungsic Moon, *Pigeons*, 2023.

Sungsic Moon, *Houses*, 2023.

Sungsic Moon, *Stone and Water*, 2023.

Sungsic Moon, *Winter Mountain*, 2023.

Each piece by Moon, glowing in the dimmed exhibition space, reminds viewers of stars twinkling in the night sky. His 19 recent works, filling the walls, encapsulate both nature and human life. The new surface treatment utilizing foil inlay techniques,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opens up a beautifully strange pictorial experience, as if everyday scenes are preserved. The spontaneous lines drawn on the reflective surface of the foil reflect traditional Korean painting techniques, rooted in Moon's aesthetic tendencies. His works evoke the depth of mother-of-pearl inlays or the composition of Korean paintings, presenting a multidimensional sense of déjà vu. By showcasing the world's beautiful and strange moments in a unique materialization, his work proposes new repertoires and possibilities within Korean painting.

박기원은 공간이 가진 고유한 장소성과 재료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장소특정적 설치, 대형 설치, 공공미술, 회화 등을 선보여왔다. 공간의 구조와 표면에 최소한의 물성으로 개입해온 그의 작업은 공간과 신체 사이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하며 세계를 향한 인식의 장을 넓혀오고 있다.

〈대화〉(2022)는 동전 모양의 금속판(동, 신주, 아연도금, 니켈도금, 스테인리스 스틸)이 가상의 낙엽과 같이 설치된 작업이다. 2022년 서울식물원에서 대형 바닥 설치를 통해 첫선을 보인 이 작업은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는 사람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상이한 재질의 금속판이 관객들의 발걸음에 의해 밟을 때마다 소리가 발생하는 이 작업은 건축적 질서 너머에서 자연과 매개된 다양한 공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몰타기사단 수도원의 고유한 장소성을 존중하며 바닥에 깔린 금속판은 건축의 고정불변한 성격을 유동적이고 삼투적 구조로 변모시키며, 공간의 규범을 가로지르는 예술의 대안적 상상과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Kiwon Park creates site-specific installations, large-scale installations, public art, and paintings, rooted in his insights in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spaces and materials. His work is characterized by minimal physical intervention in the structure and surface of spaces, weaving experiences between space and body, thereby broadening the field of perception towards the world.

Dialogue (2022) presents an assembly of metal plates in the shapes of coins (copper, brass, zinc-plated, nickel-plated, and stainless steel), installed to resemble a scattering of virtual leaves. This piece, first showcased at the Seoul Botanic Park in 2022 as a large floor installation, drew inspiration from the experience of walking over fallen leaves. The interaction of varied metallic textures and the resultant sounds from the spectators' movements redefines the interplay between space and the human form, offering a multitude of synesthetic experiences mediated by nature beyond the architectural order. Honoring the distinct sense of place at Ordine di Malta, the metal plates spread across the ground shift the fixed essence of architecture to a fluid and permeable structure, unveiling the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imagination and practices of art that cross the norms of space.

박세진 b.1977

박세진은 풍경화를 통해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화의 시간성을 보여주며 사진처럼 하나의 순간만을 포착하려고 하는 관객들에게 어떤 것이 작품이 그려내는 풍경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작가에게 밤의 풍경은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이며 하나의 고유한 색을 지니지 않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풍경 1993-2002〉(1993-2002)은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출품하였던 작품으로 1993년 작가가 경계의 끝인 비무장지대에서 바라본 지평선을 2002년에 다시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원경의 지평선 너머 시선이 닿지 않던 장소를 상상하게 하는 회화의 힘을 깨닫게 되었고, 작가가 그리는 풍경의 기본요소가 된다. 어둠이 자리한 시간대의 풍경을 담은 작품인 〈새벽〉(2006)과 〈남원_만인의 총〉(2016)은 베니스의 운하와 맞닿아 있는 창문 옆에 설치되어 들어오는 빛의 조건에 따라 매순간 보는 이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남원_만인의 총〉속 밤을 바라보면 캔버스 위에 겹겹이 중첩된 붓질의 흔적과 작가가 경험한 긴 밤에 대한 축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빛에 따라 변화하는 작품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에게 밤의 색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Park Sejin b.1977

Park Sejin showcases the ever-changing temporality of painting through her landscapes. Her work prompts viewers, who often attempt to capture mere moments, to question the true representation of the depicted landscapes. For Park, the nightscapes evoke a world of boundless imagination and do not possess a single, definitive color.

The piece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Landscape 1993-2002* (1993-2002), was previously exhibited at the Korean Pavilion during the 2005 Venice Biennale. It was created by revisiting and repainting in 2002 a horizon that the artist first observed in 1993 from the Demilitarized Zone, the boundary's edge. This work underscored the artist's belief in the power of painting to envision places beyond the visible horizon, thus shaping the core elements of her depicted landscapes. *Daybreak* (2006) and *Park at Night* (2016), which depict moments shrouded in darkness, are positioned near a window facing the Venetian canals. These pieces interact dynamically with the ambient light, offering viewers varied appearances based on the light's conditions. *Park at Night* invites viewers to discover the intricacies of brushwork and the depth of long nights experienced by the artist, layered upon the canvas. Through these light-responsive works, Park engages viewers to reflect on the essence of night's color.

모든
섬은
산이다

박세진, 〈풍경 1993-2002〉, 1993-2002.
박세진, 〈남원_만인의 총〉, 2016.
박세진, 〈새벽〉, 2006.

Park Sejin, *Landscape 1993-2002*, 1993-2002
Park Sejin, *Park at Night*, 2016.
Park Sejin, *Daybreak*, 2006.

박이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예술가, 미술공간 운영자, 큐레이터, 평론가, 교육자 등 여러 역할로 미술의 사회적 관계를 도모해 왔다. 예술을 생산하는 행위와 그 배후의 무력함에 대한 단상을 거침없이 드러낸 그의 작업은 동시대 시스템과 예술의 틈새를 파고드는 예리한 질문과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박이소는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설치 작업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드로잉에 담아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이소가 2003년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인 《아이들의 풍경》에 출품한 설치작 〈베니스 비엔날레〉(2003)를 위해 그린 드로잉 사본과 설치 전경을 촬영한 기록 사진 사본을 선보인다. 한국관 앞마당에 허술해 보이는 구조로 설치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사각형의 뼈대를 구성하는 네 개의 각목이 물이 찬 4개의 세숫대야에 다리를 내려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작업이다. 당시 이 설치의 한쪽 모서리에는 비엔날레 건물과 여러 국가관이 축소된 미니어처 조각이 함께 배열되어, 예술 행사의 문화 패권적 구조와 비엔날레의 권위를 재치 있게 풍자하였다.

Bahc Yiso (1957–2004) played various roles—as an artist, art space operator, curator, critic, and educator—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rom the mid-1980s to the early 2000s, fostering social relationships within the art world. His works candidly reveal his thoughts on the act of producing art and the inherent powerlessness behind it, invoking sharp questions and profound reflections that delve into contemporary systems and art.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Bahc Yiso meticulously documented his ideas and plans for installations in detailed drawings. Reconstituted as an archive for this exhibition, his works include drawings and photographic records of the installation process for Venice Biennale (2003), presented at the 50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s exhibition, *Landscape of Differences*. The installation, named Venice Biennale, appeared as a fragile structure in the Korean Pavilion's front yard, with four wooden beams precariously standing in basins filled with water. A corner of this installation featured miniature sculptures of the Biennale building and various national pavilions, wittily satirizing the cultural hegemony and authority vested in art events.

박이소,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드로잉, 2003(2024 전시용 사본).

박이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전경, 2003(2024 전시용 사본).

박이소는 2002년 제3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Bahc Yiso, *Drawing for Venice Biennale*, 2003 (2024 exhibition copy).
Bahc Yiso, *Venice Biennale*, *Installation view of Venice Biennale*, 2003 (2024 exhibition copy).

Bahc Yiso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awarded artist of the 3rd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2.

Every Island is a Mountain

배영환 b.1969

배영환은 현대사회 속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특유의 감수성으로 조명하고 형상화한다. 하나로 특징짓기 힘든 그의 방법론은 설치, 미디어, 평면, 공공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유행가나 일상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극도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인류 보편의 문제를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하게 접근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재제작된 〈걱정—서울 오후 5:30〉(2012)은 흰색의 입방체처럼 추상화된 형태의 종루와 서울 지역 사찰 12곳에서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울리는 종소리를 녹음하여 섞은 사운드, 그리고 해당 종들의 이미지를 겹쳐 만든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맥락에서 범종의 종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소리를 듣는 동안 잠시라도 번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종의 존재 이유는 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나 종루 안에는 종이 없다. 이렇듯 종 없는 흰 종루는 마치 만인의 걱정이 하나로 결집되었다 소리로 흩어진 것과 같은 인상을 주며, 시각적인 요소보다는 청각에 온전히 집중하게끔 유도하며 작품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이번 전시에서 울리는 서울의 종소리는 몰타기사단 수도원 교회에서 울리는 베니스의 종소리와 만나 지정학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넘으며 공명한다.

Bae Young-whan b.1969

Bae Young-whan illuminates and shapes the collecti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 of contemporary individuals with his unique sensibility. His methodology, which defies characterization by a single approach, spans a variety of mediums, including installation, media art, two-dimensional works, and public art. He engages with the universal issues of humanity delicately yet incisively, utilizing not just popular music and everyday objects but also deeply abstract and symbolic visual elements.

Recreated for this exhibition, *Anxiety—Seoul 5:30 PM* (2012) features a sound mix of bell sounds recorded at 5:30 PM from twelve different temples in the Seoul area, alongside a bell tower abstracted into a white cube and photographs that layer the images of these bells. In the context of Buddhism, the sound of the temple bells is meant to provide a brief respite from worldly anxieties for those who hear them. The bell-less white bell tower creates an impression of all humanity's worries converging into a single sound before fading away. This encourages a focus on auditory rather than visual components, thus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work's intent. The bells of Seoul find a resonant counterpart in the ringing from the church of Ordine di Malta in Venice, transcending geographic and cultural divides through their shared resonance.

서도호는 개인과 집단, 동양과 서양,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탐구에서 비롯된 주제의식을 표현한다. 그는 과거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며 경험한 공간의 전치로 인해 발생한 낯선 감각을 포착하는데, 특히 개인이 거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은 서도호의 작업 세계에 있어 중요한 모티프이다.

벽지의 형태로 제작된 〈Who Am We?〉(2001)는 멀리서 보면 미색의 벽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관찰하면 아주 작은 크기의 얼굴 사진이 뺨뺨하게 채워져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수만 장 모아 벽지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을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인이 가진 특징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졸업앨범 사진은 거대한 군집을 이루는 수많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개별적인 정체성은 사회나 조직 등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정체성에 가려져 때로 불분명하게 인식된다는 점이 드러나며,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인 ‘Who Am We?’라는 제목 또한 개인과 집단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역설한다.

서도호, 〈Who Am We?〉
(Multicoloured), 2000.

서도호는 2003년 제4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Do Ho Suh explores themes derived from a meticulous investigation of the interfaces betwee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and private and public spheres. His works capture the sensations arising from the transposition of spaces experienced through his own migration from Seoul to the United States. Notably, the concept of ‘home’—both as a physical space inhabited by an individual and as a reflection of identity—is a significant motif in Suh’s artistic practice.

Who Am We? (2000), fashioned as wallpaper, masquerades as beige wallpaper from afar but reveals itself to be intricately filled with tiny portrait photographs upon closer examination. Suh compiled tens of thousands of miniscule portraits from his Korean high school yearbook to fabricate this wallpaper. A close look allows the observation of each individual’s unique traits, yet stepping back transforms these detailed portraits into mere dots within a vast aggregation. This method subtly illustrates how individual identities are eclipsed by standardized identities enforced by society or institutions. The grammatically playful title ‘Who Am We?’ underscores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Do Ho Suh, *Who Am We?*
(Multicoloured), 2000.

Do Ho Suh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awarded artist of the 4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3.

Every
Island
is
a
Mountain

성낙영 b.1976

성낙영은 나키온(Nakio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서브컬처의 영향을 받은 음악과 미술작품을 제작해왔다. 그의 작품은 매 순간 작가가 겪는 상황과 기분을 가볍지만 동시에 진지하게 고찰하고 반영하며,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일상적인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인 현실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소란스러움과 혼란에 진입하게끔 한다.

〈Raving〉(2024)은 성낙영이 직접 작곡한 음악의 믹스, 온라인 문화와 지루한 현실 세계 간의 연결을 시도하며 연결과 고립이라는 모순된 키워드를 표현하는 포스터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서브컬처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Raving〉은 마치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작위적으로 만드는 이미지의 모음인 무드보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성낙영은 과잉된 요소들이 순간순간 스쳐지나가는 인터넷의 흐름과 유사한 방식으로 빠르게 작업하는데, 포스터 이미지는 확대된 밈(meme)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패션 광고 같이 보이기도 한다. 뻘해 보이면서도 지루함을 느끼는 듯한 외로운 인물 주변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작은 사진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며 어두우면서도 무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음악은 특유의 유머러스함을 통해 이 공허함을 증폭시키며 공격적이면서도 빠르게 전환된다.

Nakyoung Sung b.1976

Nakyoung Sung, working under the alias Nakion, creates music and art influenced by subculture. Her creations examine and mirror the situations and emotions she encounters with a lighthearted yet profound approach. They engage viewers in the mental chaos and confusion prevalent in both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Raving (2024) features a music mix by Sung and a poster series that explore the paradoxical themes of connection and isolation, attempting to link online culture with the mundane reality of the physical world. Influenced by various subcultures and social media, *Raving* feels akin to a mood board created randomly in the preparatory phase of a project. As such, Sung's rapid creative process mimics the transient nature of the internet, laden with excessive elements. The poster images resemble enlarged memes or indiscernible fashion advertisements. Small picture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surround the seemingly clichéd yet lonely figures, thereby evoking a somber and apathetic mood. The music, with its distinctive humor, amplifies this sense of void, shifting both aggressively and swiftly.

아크릴 회화와 벽화를 주 매체로 활용하는 성낙희는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선과 형태, 색의 선택을 통해 자유로움을 견지하는 동시에 조직적이고 구성적인 추상화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한 화면 안에서 중심적인 색조의 활용과 그 변주, 그라데이션과 보색을 활용하여 색면 간의 경계가 또렷이 드러나면서도 유동적인 느낌을 담은 구축적인 회화를 제작하고 있다.

벽화의 형태로 선보이는 <Cozy Cardio>(2023)는 굵이치는 유동적인 선과 면, 두드러지는 노란색과 보라색 등 서로 대비를 이루지만 반복적인 색의 활용을 통해 성낙희 작품에서 고유하게 드러나는 음악적인 리듬감을 담아낸다. 작품의 제목인 ‘Cozy Cardio’는 틱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용어로, 편안한 상태에 머물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작품의 제목은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상황과 관계가 있기보다는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가진 느낌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직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붙여졌다. 추상적인 형상들과 과슈, 색연필, 오일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그라데이션, 뿌리기 등을 통해 종이의 표면과 맞닿게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독특한 질감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내면의 울동감을 풍부히 드러낸다.

Nakhee Sung, utilizing acrylic paintings and murals as her primary mediums, creates works that embody both spontaneity and intuition in line, form, and the selection of colors. She maintains a sense of freedom while also adopting a systematic and compositional approach to abstraction. Her latest works are constructive paintings that vividly display fluid yet distinct transitions between color fields, employing central tones, their variations, and complementary colors to enhance the composition within a single canvas.

Cozy Cardio (2023), a mural, encapsulates the musical rhythm inherent in Sung's works with undulating lines, surfaces, and the conspicuous use of contrasting colors like yellow and purple, achieved through repetitive color application. The title, *Cozy Cardio*, originated from aerobic exercises popularized on social networks like TikTok, intended to be performed in a comfortable state. However, the work's title is chosen more for its resonance with the artist's sensations during creation than for its commonly understood context. The use of abstract forms and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gouache, colored pencils, and oil pastels, applied in gradients and sprays on paper, unveils a complex and distinctive texture. This texture richly expresses an inner rhythm that words cannot articulate.

오형근 b.1963

오형근은 한국 사회의 특정 인물 군들의 초상을 통해, 개별적인 초상을 집합적으로 보여줄 때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욕망과 불안을 드러내 보인다. 초기에는 여고생, 군인, 중년여성(아줌마) 등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이들을 담았지만, 2000년대 초에 시작한 〈불안 초상〉(2006-) 시리즈부터는 다양한 인물들의 초상을 통해 현대인의 전면(全面) 너머에 있는 미묘한 불안의 정서를 포착해낸다.

오형근, 〈강수라, 18세, 2008년 7월 19일〉, 2008.

오형근, 〈박소희, 18세, 2008년 7월 19일〉, 2008.

오형근, 〈이유진, 15세, 2008년 2월 20일〉, 2008.

오형근, 〈강다원, 19세, 2007년 8월 13일〉, 2007.

오형근, 〈윤정서, 17세, 2007년 7월 19일〉, 2007.

모든
섬은
산이다

〈소녀들의 화장법(Cosmetic Girls)〉(2006-2008)은 〈불안 초상〉(2006-) 시리즈의 초기 작업으로 화장 짙은 소녀들의 초상을 사회적 보고서 형식으로 담고 있다. 사진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화장을 하였지만,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였던 하얀 피부 화장과 컬러 렌즈, 볼터치, 짙은 아이라인 등으로 대표되는 공통적인 특성이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더욱 선명하게 관찰된다. 또한 극명한 클로즈업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이는 피부 톤과 화장, 무표정한 표정의 반복과 병치는 ‘10대 소녀’라는 하나의 유형이 갖는 특징을 포착한다. 초상 속의 소녀들은 화장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욕망을 표현해 보이고자 하지만, 여러 점의 초상을 집합적으로 보았을 때 드러나는 것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아름다운 여성이나 성인의 이미지에 대한 욕망과 이로부터 비롯된 정체성의 불안이다.

Heinkuhn Oh b.1963

Heinkuhn Oh explores the paradoxical desires and anxieties within Korean society by presenting individual portraits collectively among specific groups. Initially, he focused on capturing groups such as high school girls, soldiers, and middle-aged women (ajummas), by treating them as seemingly homogeneous categories. Later, starting with the *Portraying Anxiety* series in 2006, he broadened his perspective to explore the nuanced anxieties concealed behind the faces of a diverse array of individuals.

In *Cosmetic Girls* (2006-2008) from the *Portraying Anxiety* series, Oh critiques societal standards through heavily made-up young women. Despite the individual makeup application, the portraits reveal a uniformity in beauty trends that were prevalent in Korea over 15 years ago, including pale skin, colored lenses, blush, and bold eyeliner. Extreme close-ups that focus on the skin and makeup, alongside the repetition of emotionless expressions, underscore the stereotypical image of ‘teenage girls.’ These portraits, while showcasing attempts at individual expression through makeup, collectively uncover the underlying anxieties about desires and identities shaped by societal and media standards of beauty, illustrating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personal expression and collective societal norms.

Heinkuhn Oh, *Sura Kang, age 18, July 19, 2008*, 2008.

Heinkuhn Oh, *Sohui Park, age 18, July 19, 2008*, 2008.

Heinkuhn Oh, *Yujin Lee, age 15, February 20, 2008*, 2008.

Heinkuhn Oh, *Dawon Kang, Age 19, August 13, 2007*, 2007.

Heinkuhn Oh, *Jeongsuh Yun, age 17, July 19, 2007*, 2007.

윤형근은 1995년 당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도록에 수록된 그의 작가노트에서 ‘자연은 늘 소박하고, 신선하고, 아름답기’에 자신의 작업도 그와 같은 세계를 지닐 수 없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에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연의 늘 보아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1981년 그린 드로잉 〈무제〉가 전시된다. 다양한 색감을 풍부하게 사용했던 초기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윤형근은 1970년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어두운 색채로 작품을 그리게 된다. 특히, 그는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ultramarine blue)과 땅을 상징하는 다색(burnt umber)을 혼합하여 만든 오묘한 검은색을 사용하여 캔버스를 가르는 거대한 검은 획을 그어, 관람객에게 담담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전달한다.

In his note included in the catalogue for his participation in the inaugural Korean Pavilion exhibition at the Venice Biennale in 1995, Yun Hyong-keun stated that he always contemplates whether his work could embody the same world as nature, which is “always simple, fresh, and beautiful.” He aimed to capture the essence and everlasting beauty of nature in his artwork, which never ceases to amaze.

Contrasting his early, color-rich works, *Untitled* (1981), exhibited in this exhibition, delves into the painful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through dark hues. A vast stroke of enigmatic black, blended with ultramarine blue for the sky and burnt umber for the earth, bisects the canvas. This delivers a calm yet profound resonance to the viewers.

이완 b.1979

이완은 세계화, 자본주의, 정치, 역사, 문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을 기반으로 조각, 설치,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영화, 인공지능이 융합된 미디어 기술에도 이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작가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적 생성세계와 실존적 인간생활계의 상호초월적 공진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KonneXus’는 연결하다 (connect), 연결고리(nexus), 우리(us)라는 의미를 지니는 세 단어의 합성어로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관의 모든 전시 정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조합하고 풀어낸 열린 아카이브 작업이다. 과거의 30년과 연계적 미래 30+년을 상상하며 기억과 기록의 지형도를 보여주는 이번 작업은 철학자이자 시인, 비평가인 큐 리 뉴욕시립대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큐 리 교수와 ‘우리’라는 바운더리, 있다(존재)/있다(연결)에 대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KonneXus(우리 안팎에 우리 있다/있다)라는 주제를 정했으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cage)에 갇히지 않은 군도적, 행성적 동존체 (Cohabitus)를 상징한다. 영상작업에는 고용된 도슨트와 이완작가 그리고 큐 리 교수가 인공지능을 통해 재구성되어 등장하며 초기 산업혁명 시대 인간을 대체한 기계를 떠올리는 기시감을 경험하게 한다.

Lee Wan b.1979

Lee Wan, known for his performative exploration of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capitalism, politics, history, and culture on individual lives, is a multimedia artist whose expansive practice synthesizes sculpture, installation, performance, documentary filmmaking, and more recently, AI technology. His current work focuses on the coevolu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emerging world of generative AI and the life world of humans.

KonneXus, “a nexus of us in connection,” is a future-facing, open archival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as a whole, where the last thirty years of the Korean Pavilion meet its next three decades through myriads of relevant data assembled and reanimated with the help of AI technology as part of “us.”

Compos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Professor Kyoo Lee — a philosopher, poet, and critic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this piece shows how a cartography of inscriptive remembrance emerges through concurrent acts of archival re-membering, generating along the way a sense of Cohabitus: archipelagic planetary communities. Through a series of dialogues, two Lees arrived at the concept of this work, the porous topology of “we,” “us in/outside us (Woori, we/cage),” and thus KonneXus, born from that conversation, remains “connectively” (Itda) “present” (Itda) to its own otherness. Appearing as AI characters with an AI docent hired for the project, which adds a subtle shock of déjà vu from the early day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here humans feared being replaced by machines, the artist and the philosopher continue to chat about “us” in/outside the Korean Pavilion, contemporary Korean art, the Venice Biennale, the global art scene, etc., and the video concludes open-endedly.

이용백 b.1966

이용백은 회화, 공연,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예리한 비평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특히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불안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세 점의 영상 작품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2022), 〈NFT 미술관: 피에타〉(2022), 〈NFT 미술관: 비너스〉(2022)를 선보인다. 작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같은 미술사적 가치를 가지는 명작을 거대한 블루스크린으로 덮어낸 후 덧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블루스크린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보편적 공포가 아닌 작가가 경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포- 의사소통의 단절, 메타버스 세계로의 진입 장벽, 그리고 개인 역사의 상실-를 보여준다. 코로나 19의 유행 이후에 인류는 사회구조 전반이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전쟁의 공포, 극심해지는 환경문제와 세계 정치의 긴장감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블루스크린처럼 인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이용백, 〈NFT 미술관: 비너스〉, 2022.
이용백, 〈NFT 미술관: 피에타〉, 2022.
이용백, 〈NFT 미술관: The Thinker〉, 2022

Lee Yongbaek b.1966

170

Lee Yongbaek traverses multiple genres, including painting, performance, media, and installation, to critically address socio-political issues. His current focus delves into the emerging anxieties stemming from societal dependency on technology.

This exhibition features his three video pieces: *NFT Museum: The Thinker* (2022), *NFT Museum: The Venus* (2022), and *NFT Museum: The Pieta* (2022). The artist overlays iconic works such as Rodin's *The Thinker* and Michelangelo's *Pieta* with a massive blue screen, showcasing their fleeting disappearance. The blue screen, typically appearing when a computer encounters a fatal error, represents not the universal fears of the physical world but the fears of a new paradigm experienced by the artist—such as communication breakdowns, barriers to entering the metaverse, and the loss of personal histories.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humanity has faced the abrupt halting of societal structures, compounded by the terror of war, escalating environmental issues, and tense global political climates, placing us in a highly challenging situation. The blue screen appearing on computer monitors acts as a cautionary message to humanity.

Lee Yongbaek, *NFT Museum: The Venus*, 2022.
Lee Yongbaek, *NFT Museum: The Pieta*, 2022.
Lee Yongbaek, *NFT Museum: The Thinker*, 2022.

Every
Island
is
a
Mountain

이주요 b.1971

이주요는 임시적이고 가변적 속성의재료와 구조를 통해 사회 시스템의 주변부에서 존재해 온 잠재적 가치와 지속력에 관심을 두어 왔다. 드로잉, 설치, 퍼포먼스, 공연, 출판 등 폭넓은 매체적 실험을 해온 작가는 동료들과 상호의존이 가능한 창고 시스템이자 대안 플랫폼인 〈Love Your Depot〉(2019-)를 여러 도시에서 마련해 오고 있다.

벽화 형식의 신작 〈Outside the Comfort Zone〉(2024)은 90년대 후반, 20대부터 이주요가 서울의 미술계에서 만났고, 바라봤고, 동료로 일해온 작가들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주어진 제도에 온전히 속할 수 없어 스스로 시스템에서 비껴 사는 매우 특별한 운명을 가진 아티스트들에 대한 사적 기억을 기록해왔다. 그러한 이주요의 서랍에는 인상적인 이미지와 농담, 실제 에피소드가 뒤섞인 간단한 드로잉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들에서 일부 발췌한 것을 벽화로 재구성하여 설치한다. 이것은 한 도시에서 같은 시간대에 활동하는 작가들 간의 영향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작가 개인들이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었던 한국 동시대 미술씬을 상상할 수 있는 최근 25년 간의 심미적 아카이브이다.

Jewyo Rhii b.1971

Jewyo Rhii has consistently explored the transient and mutable qualities of materials and structures, showcasing her deep interest in the latent value and resilience of those existing on the periphery of societal systems. Through diverse mediums such as drawing,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publication, she has created *Love Your Depot* (2019-), an innovative storage system and alternative platform fostering interdependency among peers across various cities.

Her mural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narrates the stories of artists she encountered, observed, and collaborated with in Seoul's art community since her late twenties in the late 1990s. Rhii has captured intimate memories of artists living with unique destinies, navigating life on the margins of established institutions. Her work is rich with simple drawings that intertwine vivid imagery, humor, and authentic episodes, now selected and reimagined as murals for this exhibition. These pieces subtly expose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among contemporary artists coexisting in the same urban space, offering a 25-year aesthetic archive. This archive imagines the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as a dynamic space where individual artists emerge as catalysts for reform and change.

모든
섬은
산이다

이주요,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이주요는 2007년 제8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던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Jewyo Rhii, *Outside the Comfort
Zone*, 2024.

Jewyo Rhii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nominated
artist of the 8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7.

이형구 b.1969

이형구는 인간의 신체와 감각, 그리고 예술 사이의 관계를 매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 탐구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레진, 플라스틱, 금속, 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형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각, 사진, 영상,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말의 시각과 마장마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서 시작된 영상 작품 〈Measure〉(2014)를 선보인다. 작가는 마장마술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말의 움직임과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몸을 통해 재현하고자 한다. 특히, 말의 뒤쪽 다리의 비례를 계산하여 만든 금속 튜브와 말의 꼬리가 합체된 장치 〈Instrument 1〉(2014)를 몸에 장착하고 마치 말이 된 것처럼 걷고 달리는 행위를 계속한다.

이형구, 〈Measure〉, 2014.

작가는 영상 속에서 무작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장마술 경기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우아한 말의 동작과 동선을 그대로 드로잉 작업을 통해 계획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몸을 일종의 타악기처럼 사용하여, 말발굽과 신체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박자를 악보로 전환하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단순한 물리적 모방을 넘어, 작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제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관람객에게 인간의 신체와 감각, 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Hyungkoo Lee b.1969

172

Hyungkoo Lee is renowned for his original and experimental explor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ody, senses, and art. Using his body as the primary research subject, Lee continues his sculptural experiments with materials such as resin, plastic, metal, and urethane, showcasing a broad spectrum of work across sculpture, photography, video, and performance.

In this exhibition, Lee presents *Measure* (2014), a video piece underpinned by meticulous research on equine vision and dressage. The work reenacts the elegance and motion of horses through the human body, using *Instrument 1* (2014)—a contraption comprising metal tubes modeled after a horse's hindquarters and tail—to replicate a horse's gait and gallop.

Lee's movement in the video is intentional; he meticulously analyzes dressage to design and execute the graceful motions and pathways of horses accurately, employing drawing as a preparatory method. In this way, Lee transforms his body into a percussion instrument, transposing the rhythms produced by hooves and human movement into a musical composition. Lee's work transcends mere physical mimicry, demonstrating an intimate understanding and mastery of his physique. He offers a unique experience that obscures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animal locomotion, inviting viewers into the captivating realm of artistic allure.

Hyungkoo Lee, *Measure*, 2014.

Every
Island
is
a
Mountain

이형우 b.1955

이형우는 '존재(the there is)'로의 환원 과정과 결과를 '예술의 순수함' [Eye & Mind(1961)]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또한, 그는 오브제의 표피적인 가시성을 탈피하고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틈을 통해 도달한 내면을 작품화하여 보이게끔 한다. 이 과정은 사물의 '본성' 또는 '완전한 있음(the there is)'으로 번역된다.

〈무제〉(2023)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혹은 '보여야 할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형우의 미학적 노동의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제〉는 오늘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극명한 '가변성'의 물리적 가벼움과 이동성 등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면적으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항상성'의 무게감을 포착하려는 일관된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정해진 정량의 편백나무를 반복된 행위로 얇게 펴서 깎아 낸 〈무제〉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지탱 과정과 같이, 분리된 개체들이 서로의 무게와 형태를 유지하며 견고한 육면체를 유지한다. 면에서 선으로 재구성된 〈무제〉는 밀도를 해체하고 그 공백에 전시 공간의 공기를 담아내고, 보이지 않는 환원적 구조를 시간성과 함께 부여한다.

hyung woo Lee b.1955

hyung woo Lee's work visualizes a return to 'the there is,' employing the diverse methodologies of 'the purity of art' explored in *Eye & Mind* (1961). He seeks to reveal the inner essence by stripping away and deconstructing the superficial visibility of objects, a process that embodies the 'nature' or 'complete being (the there is)' of these objects.

untitled (2023) represents the artist's endeavor to render the 'unseen' into the 'visible,' exposing that which should be seen. While capturing the notable variability of physical lightness and mobility, the piece also ambivalently reflects the artist's determined quest to discern the hidden weight of 'permanence.' *untitled* is created by finely shaving a specific quantity of hinoki cypress through repeated actions, achieving a stable hexahedron shape. This echoes the natural supporting mechanisms i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here separate elements support one another's weight and form. Recomposed from surface to line, this work breaks down density, fills the void with the ambiance of the exhibition space, and imparts an unseen reductive structure, introducing an element of temporality.

전수천은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제시하며 인간의 내면세계와 이들이 축적해온 역사, 그리고 그 삶의 근원에 대해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신화,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와 혼돈 등 시공간의 보편성을 초월하는 주제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형상화한다.

전수천은 1995년 첫번째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초청받아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설정하고 평면적인 회화, 토우와 같은 조각, 영상 그리고 빛을 결합시키는 작업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방황하는 혹성들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1995)은 TV 모니터, 작가가 직접 수집한 자동차 엔진, 환풍기, 라디오 진공관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 폐기물과 함께 '토우(土偶)'를 거대한 유리로 된 전시장바닥 위에 상징적으로 설치하였다. 작품에서 토우는 한국인의 소박하고도 순수한 정신세계를 상징하며, 산업폐기물로 상징되는 산업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방황과 불확실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 이상과 현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작품에 담았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의 주제인 이질성과 동질성이라는 주제와 공명하며 한국작가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수천, <방황하는 혹성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 중 토우, 1995.

Jheon Socheon was an artist who has devoted his life to exploring the depths of human interiority, history, and the roots of existence through a multifaceted presentation of diverse media. Driven by his boundless imagination, his works animate themes that transcend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delving into myths and the interplay of order and chaos governing the cosmos.

Invited to the inaugural exhibition at the Korean Pavilion during the 1995 Venice Biennale, Jheon transformed the entire exhibition hall into an immersive artwork, merging painting, clay, video, and lighting to offer a holistic artistic vision. His piece, *T'ou Amongst Wandering Planet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1995), was symbolically placed on a vast glass floor, surrounded by industrial remnants such as TV monitors, car engines, ventilation fans, and radio vacuum tubes, all gathered by the artist. Through *T'ou*, Jheon conveys the authentic and unembellished spirit of the Korean people, contrasting it with industrial debris to reflect on the spiritual disorientation and uncertainty confronting individuals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 This installation, encapsulating the dialectics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ideals versus reality, and certainties against uncertainties, aligned with the Biennale's themes of diversity and unity. It earned Jheon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first Korean artist honored with the *Menzione d'Honore*.

Jheon Socheon, clay doll from *T'ou Amongst Wandering Planet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1995.

정서영 b.1965

정서영의 작품은 작가의 내면과 사물이 일시적으로 공명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주로 일상적인 사물이나 재료를 사용하지만,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료의 재질과 외관이 부여하는 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작가가 사물과 총체적, 직관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서영의 작품은 상징적인 의미작용을 비껴가는 존재로서 관람객에게 말을 걸어 온다.

〈증거〉(2014)는 사람의 손이 두 자루의 펜과 구겨진 종이 조각, 나뭇잎과 가지를 한 번에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전면적으로 포착한 사진이다. 일상적이거나 인공적인 사물, 식물 등의 자연물, 인간의 신체와 같이 서로 낯선 사물들이 하나의 견고한 덩어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들 간에 길항하고 있는 힘이 정지된 장면 속에서도 보인다. 이 특수한 모습의 근거나 배경을 이루는 외부적인 서사나 이야기에 대한 추측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장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뒤엉켜 있는 모든 사물들의 모습 그 자체가 실은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족적인 증거임을 암시한다.

Chung Seoyoung b.1965

Chung Seoyoung's work captures fleeting moments of resonance between her inner self and the surrounding objects. She utilizes everyday items and materials not just for their physical attributes but as a means to establish a deep, intuitive connection with them. Thus, her art transcends symbolic interpretation, directly engaging with viewers on a more elemental level.

Evidence (2014) is a photograph showcasing a hand tightly holding two pens, crumpled paper, leaves, and branches simultaneously. This assembly of mundane or artificial objects and natural elements, along with human body parts, forms a unified entity, yet subtly exposes the inherent tensions among them. While the unusual combination invites speculation about its context, the image ultimately eschews the need for a logical explanation. It posits that the mere entanglement of these objects within the world acts as self-evident proof of their existence.

정연두 b.1969

정연두는 시각예술과 퍼포먼스, 공연과 영화의 맥락을 넘나드는 복합 매체 작업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 환경 속의 상황을 접합하는 작품을 주로 만들어왔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인물을 연결하거나 다큐 멘터리와 픽션,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고, 시·음악·연극의 언어를 통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역설의 태도를 견지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현지 연구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관계성과 수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 실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상록타워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이름이다. 낯선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은 거실, 똑 같은 방 크기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건물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잘 알지 못한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단서를 잡기 위해 어느 날 ‘예술가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라는 전단지 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사진을 찍어준다. 찍어낸 듯 똑같이 보였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지만 작품을 통해 공적인 공간으로 드러난 집안과 가정의 모습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개성과 그들이 지닌 각기 다른 경험과 이야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표면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개인적인 삶과 그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준다.

정연두는 2004년 제5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던 작가로 에르메스의 후원을 받았다.

정연두, 〈상록타워〉, 2001.

Yeondoo Jung b.1969

176

Yeondoo Jung, known for his multi-disciplinary work that spans visual arts, performance, theater, and cinema, frequently connects themes across diverse cultural landscapes. His work often links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figures, blending documentary with fiction, and the individual with society, and maintains a paradoxical stance that re-examines reality through the languages of poetry, music, and drama. His practice, marked by long-term local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ose who have experienced historical events, showcases an art practice characterized by relationality and performativity.

Evergreen Tower, both the title of his piece and the name of an apartment complex in Gwangjang-dong, Gwangjin-gu, Seoul, explores the anonymity of urban living. Despite residing in identical concrete buildings with similar living rooms and bedrooms, we remain unfamiliar with our neighbors. Jung captured this narrative by offering to take family photos for free, using flyers. The spaces might appear mundane and routine, but through his work, they reveal the individuality of family members and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stories. Beyond merely capturing superficial appearances, his work delves into a deeper investigation of personal human lives and their inner worlds.

Yeondoo Jung, *Evergreen Tower*, 2001

Yeondoo Jung benefits from the support of the maison Hermès, as nominated artist of the 5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n 2004.

Every Island is a Mountain

정은영 b.1974

정은영은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에 걸쳐 한국 해방 직후에 형성되어 1950-60년대에 큰 인기를 얻은 공연 장르인 '여성국극'을 연구해 왔다.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성국극 프로젝트>는 영상과 설치, 퍼포먼스와 공연 등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전시되며, 여성주의 및 퀴어 관점에서 형식을 넘나드는 실험과 연구로 지속되고 있다.

<먼지>(2023)와 <지연된 아카이브>(2023)는 정은영이 <여성국극> 프로젝트 초반부터 함께 한 여성국극 배우들과의 정서적 연대와 경의를 포함,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부재한 아카이브를 다루고 있다.

영상 작업 <먼지>는 배우 조영숙 개인의 아카이브를 허공에 부유하는 먼지 속에 띄우면서 작가와 기억을 더듬어 가는 대화를 그사이에 배치한다. 설치 작업 <지연된 아카이브>는 이제는 거의 잊혀진 여성국극 배우들의 이름, 출생 연도, 희망 글귀를 자필로 기록한 16개의 자수 휘장과 아카이브 사진 자료로 구성하고 있다. 작가는 여성국극사에서의 주요 증인인 배우들의 작고로 흐려지는 주체들을 기록하고 시각 언어로 서술해 번칙적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뿌옇게 먼지가 쌓여 가고 있는 아카이브에 숨결을 불어 다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 방식은 단순한 보존과 계승의 중요성이 아닌 편파적 역사기록에 대한 작가의 저항 의식이 담겨 있다.

siren eun young jung b.1974

Since 2008, siren eun young jung has been investigating 'Yeoseong Gukgeuk,' a form of performance art that gained popularity in the 1950s and 1960s following Korea's liberation. Her *Yeoseong Gukgeuk project*, emerging from this inquiry, is expressed through diverse artistic mediums such as video,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theater. It maintains a trajectory of exploration and experimentation that transcends boundaries, incorporating feminist and queer perspectives.

Dust (2023) and *Deferral Archive* (a part) (2023) offer emotional solidarity with and tribute to the Yeoseong Gukgeuk actors, central to the project since its inception, and to the previously absent archives unearthed during the research.

The video *Dust* disperses actor Cho Young Sook's personal archives among drifting particles, creating a dialogue that traces memories alongside the artist. The installation *Deferral Archive* (a part) features 16 embroidered banners capturing the names, birth years, and inspirational quotes in the handwriting of nearly forgotten Yeoseong Gukgeuk actors, complemented by archival photos. The artist documents the diminishing prominence of these actors—pivotal witnesses to Yeoseong Gukgeuk's history—and creates an unconventional archive by rendering their experiences into visual language. This method of reanimating archives burdened with dust embodies the artist's critique of biased historical records, underscoring an act of resistance beyond the importance of mere preservation and continuation.

제인 진 카이젠 b.1980

제인 진 카이젠의 작업 방식은 폭넓은 학제간 연구, 장기적 협력, 공동체 참여를 아우른다. 그는 거시적인 정치사와 미시적인 삶의 체험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기억, 이주, 경계, 번역, 무속 문화 등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오고 있다.

〈할망〉, 2023

8인의 70-80대 제주 해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할망〉은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모시는 무속 신당 근처 해안에서 촬영되었다. 카이젠의 할머니 역시도 평생 해녀로 일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여인들은 바다를 향해 날마다 떠나갔다. ‘할망’은 제주의 무속 여신을 일컫는 말로, ‘할머니’를 또한 지칭하거나 여성을 부르는 공경의 호칭이 된다. 작품은 소창을 사용하고 매만지는 공동체의 작업을 그려내는데, 이때 소창은 여성의 노동에 밀착된 긴 면직물로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연결 및 생사의 순환을 상징한다.

감사한 분들_해녀 삼촌: 양무옥, 현순자, 구영애, 고병선, 현순심, 오기숙, 오순자, 정춘자. 제작: 인시전스. 편집: 제인 진 카이젠. 촬영: 거스톤 손딘-쿵. 라인 프로듀서: 권소영. 제작 코디네이션: 요이. 제작 보조: 그레이스 성은 김. 음악: 리어 수리만 (해녀노래보존회 강경자가 부른 ‘해녀노래’ 차용_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색보정: 에도아르도 레비치. 음향: 요람 바잔. 도움: 하도리어촌계, 안혜경, 고영봉, 김성내. 제작 지원: 덴마크 예술 연구 기금 프로그램, 덴마크문화재단

Jane Jin Kaisen b.1980

178

Jane Jin Kaisen's practice involves extens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longterm collaborations, and engagement with minority communities. Spanning the mediums of video installation, film, photography, performance, and text, she has continuously explored themes of memory, migration, borders, and spiritual cultures at the intersection of lived experience and larger political histories.

HALMANG, 2023

HALMANG revolves around a group of eight Haenyeo sea divers in their 70s and 80s. It is filmed by the coast of Jeju Island near a shamanic shrine for the wind goddess Yongdeung Halmang. The women used to depart for the sea from this very location where Kaisen's grandmother also worked as a haenyeo during her lifetime. In Jeju, shamanic goddesses are referred to as 'halmang' while it is also the Jeju term for 'grandmother' and a respectful way of addressing women. Central to the work is its focus on the collective use and care for sochang; a long cotton cloth associated with female labor and a symbol of the cycle of life and death and humans' connection to the spirit world.

Acknowledgments: Haenyeo: Yang Mu Ok, Hyun Soon Ja, Gu Young Ae, Koh Byung Sun, Hyun Soon Shim, Oh Ki Sook, Oh Soon Ja, Jung Chun Ja. Production: Incisions. Concept and Editing: Jane Jin Kaisen. Photography: Guston Sondin-Kung. Line Producer: Soyoung Kwon. Production Coordination: Yo-E Ryou. Production assistance: Grace Sungeun Kim. Music: Lior Suliman featuring The Song of the Haenyeos (Jeju Special Governing Province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 by Gang Gyung Ja and Song of Haenyeo Preservation Association. Colorist: Edoardo Rebecchi. Sound Engineer: Yoram Vazan. Special Thanks: Hado Fishing village, Ahn Hye Kyoung, Koh Young Bong, Kim Seongnae. With Support From: The Danish Artistic Research Funding Programm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Danish Arts Foundation.

〈수호자들〉, 2024

제주 방언으로 오름이라 불리는, 풀이 무성한 화구 꼭대기의 한 봉분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손에 꼭두를 들고 있다. 상여를 장식했던 나무 인형 꼭두는 죽은 이를 인도하고 그 여행에 동행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광대, 수호자, 간병인, 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에는 죽은 이들이 기쁨으로 둘러싸여 안전하게 저승에 들어가기로 비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인형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 사이 상호작용은 생명 그 자체로 화한다. 이후 아이들은 말라가는 긴 풀잎 속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짐은 모든 체험의 본성인 사그라짐을, 삶과 죽음 사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가없는 연결을 그려낸다.

감사한 분들_어린이: 허서윤, 허윤우, 주노 히치콕-유, 박세븐, 박소하, 로드리게즈 시아, 로드리게즈 리한.
제작: 인시전스. 편집: 제인 진 카이젠.
촬영: 거스톤 손딘-쿵. 라인 프로듀서: 권소영. 제작 코디네이션: 요이. 음악: 리어 수리만. 가야금: 우 나. 색보정: 에도아르도 레비치. 음향: 요람 바잔. 도움: 홍보람, 박채영, 허수호, 한윤선, 유은주, 그랜트 히치콕, 서인해, 로드리게즈 라자로, 테오 부, 안혜경, 현영지. 제작 지원: 덴마크 예술 연구 기금 프로그램, 덴마크문화재단

GUARDIANS, 2024

GUARDIANS takes place on one of Jeju Island's many volcanic cones, locally referred to as oreum. On its lush grassy top sits an ancestral grave enveloped by a lava stone wall. A group of children arrive at the burial mound carrying with them kkokdu, Korean wooden funerary figures, which used to adorn funeral biers and served to guide and accompany the dead on their journey. The figures represent different characters —entertainers, guardians, caregivers, as well as real and mystical animals— and attest to a desire for the departed to enter the other world safely and surrounded by joy. As the children animate the dolls through their play, their interactions and outbursts of joy become expressions of life itself, the fleeting nature of all experience, and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life and death, nature and the human world.

Acknowledgments: Children: Heo Seoyoon, Heo Yoonwoo, Juno Hitchcock-Yoo, Park Sevon, Park Soha, Sia Rodriguez, Lihan Rodriguez. Production: Incisions. Concept and Editing: Jane Jin Kaisen. Director of Photography: Guston Sondin-Kung. Line Producer: Soyoun Kwon. Production Coordination: Yo-E Ryou. Music: Lior Suliman. Guqin: Wu Na. Colorist: Edoardo Rebecchi. Sound Engineer: Yoram Vazan. Special Thanks: Hong Boram, Park Cheayoung, Heo Sooho, Han Yunseon, Eunju Yoo, Grant Hitchcock, Inhai Seo, Rodriguez Lazaro, Theo Bu, Ahn Hyekeyoung, Yongji Hyun. With Support From: The Danish Artistic Research Funding Programme, Ministry of Culture.

최정화 b.1961

최정화는 근 30년간 플라스틱을 통해 근대성의 신화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도전하는 예술 세계를 전복적인 방식으로 다뤘다. 그의 작업은 플라스틱을 인류가 구축해 온 이분법적 사고관을 뒤흔드는 ‘생동하는 물질’을 제시하며, 생명과 물질,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명 사이의 연결망을 재조직해 보인다.

거대한 돌들을 쌓아 만든 돌탑과 흡사한 〈nATuReNuRture〉(2023-24)은 한국의 남해안과 서해안의 바닷가에서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수집한 해양 쓰레기로 제작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마모되고 부식하여 자연물과 가까워져가는 페스티로폼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돌탑은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작가의 고고학적 성찰이 담긴다. 사물들의 역량을 기념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이 작업은 너와 나, 주체와 객체, 유기물과 무기물, 자연의 본성과 후성적 양육 사이의 이분화된 세계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서로 얽혀서 형성되어가는 실체, 즉 ‘홀로바이온트(holobiont)’로서 생명과 물질에 주목한 작가의 세계관은 기후 위기, 재난과 갈등이 고조된 동시대에 다양한 연결과 공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원에 설치된 12개의 탑은 작가와의 대화에서 착안하여 이번 전시의 주제가 된 “모든 섬은 산이다”와 공명하며 온생명에 대한 헌사와 연결의 메시지를 전한다.

최정화, 〈nATuReNuRture〉,
2023-2024.

Choi Jeong Hwa b.1961

180

For nearly three decades, Choi Jeong Hwa has provocatively addressed the myths of modernity and anthropocentric thought through plastic, presenting it as a ‘living material’ that shakes the foundations of binary thinking built by humanity. His works reconfigure the networks between life and matter, human and non-human, nature and civilization.

His piece *nATuReNuRture* (2024), similar in form to ancient stone towers, is crafted from marine debris gathered with local university students along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lines of Korea.

The weathered and eroded styrofoam, gradually assimilating with natural objects, forms towers that encapsulate the artist’s archaeological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cosystems. By monumentally displaying the potential of objects, this work stands in opposition to human-centric views, prompting a reflective critique of the binary perspectives between self and other, subject and object, organic and inorganic, and the innate and the acquired aspects of nature. Not merely as isolated entities but as interconnected beings—holobionts—the artist’s perspective on life and matter suggests possibilities for diverse connections and coexistence in an era marked by climate crises, disasters, and escalating conflicts. The twelve towers installed in the garden resonate with the exhibition’s theme *Every Island is a Mountain*, inspired by discussions with the artist, delivering a message of homage and connection to whole life.

Choi Jeong Hwa, *nATuReNuRture*,
2023-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코디 최 b.1961

코디 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작가이자 문화이론가로서 활동하며, 현대사회의 문화정체성과 권력관계에 관해 탐구해 오고 있다. 그는 회화, 조각, 설치 등의 작업을 통하여 현시대의 다양한 문화가 빚어내는 충돌과 그 간극에서 탄생한 제3의 문화 혹은 혼종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탄생하는 동시대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 주목한다.

〈다운 사이드 이즈 헤비〉(2010-2011)는 코디 최가 『장자』의 ‘내편(內篇)’에 나오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은 다음, 벽면에 네온 조명으로 써 붙인 텍스트 작업이다. 오랜 타국 생활과 귀국 후의 일상을 이방인의 감각으로 경험한 코디 최는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유교 사상과 서양화된 당시의 한국 분위기를 중첩하여 바라본 풍경에서 아이러니를 느꼈다. 작가는 혼종문화의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한국적 이중 문화를 겸손한 사람들이 그들의 진중함 때문에 오히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동양 철학의 중요 인물인 장자와 그의 사상을 재해석해 시각화했다.

Cody Choi b.1961

Since the mid-1980s, Cody Choi has engaged in an in-depth explora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power dynamics within contemporary society, functioning as both an artist and a cultural theorist. His artistic ventures, encompassing painting, sculpture, and installation, spotlight the clashes and emergent hybrid cultures arising from the interstices of diverse cultures and the ongoing emergence of new societal phenomena.

Downside is Heavy (2010-2011) is a text-based artwork involving Choi's translation of passages from Zhuangzi's *Inner Chapters* into English, phonetically interpreted in Korean, displayed using neon lights on a wall. Reflecting on his extensive experiences abroad and his outsider's perspective upon returning to Korea, Choi identifies an ironic contrast between deeply rooted Confucian values and a Westernized Korean setting. This piece recontextualizes and visualizes Zhuangzi's philosophies, highlighting the ironic downshift individuals experi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a hybrid culture, burdened by their own gravity.

함진은 다양한 색깔의 합성 점토 (폴리머 클레이)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초소형 조각을 만드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돋보기로 들여다봐야만 형상이 보이는 그의 작품은 기존의 세상에는 없던 존재를 재창조해낸 것으로 해양 미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형상이 결합된 괴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큰 풍경보다는 자그마한 세계 안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파고드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을 즉흥적이고 유희적으로 자신의 조각 작품에 담아내며, 그 과정에서 상상력을 덧붙여가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완성시킨다.

함진, 〈이름 없는 11〉, 2022.
함진, 〈이름 없는 10〉, 2022.
함진, 〈인 사이드 2〉, 2022.
함진, 〈행성 4〉, 2021.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색상의 점토를 활용하여 만든 초소형 조각 〈이름 없는 10〉(2022), 〈이름 없는 11〉(2022), 〈인 사이드 2〉(2022), 〈행성 4〉(2021) 네 점이 전시된다. 사람이나 동물이 등장하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같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초기 조각과 달리 최근 작품은 특별한 스토리를 담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는 점토 자체를 철사에 붙여가며 조각을 만들다가 색깔이 섞이고 형태가 비틀리면서 나오는 우연적이고 유동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Ham Jin is well-known for creating micro-sculptures using various colors of polymer clay as his primary material. His creations, which are discernible only upon close observation or through a magnifying glass, manifest entities previously non-existent in our world—resembling marine microorganisms or monstrous amalgamations of various forms. Focused on the intricacies of micro-ecosystems rather than expansive landscapes, Ham dedicates himself to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se miniature realms. He captures the world as he experiences it through his sculptures in an impromptu and playful manner, enriching them with layers of his imaginative insights.

Ham Jin, *No Name 11*, 2022.
Ham Jin, *No Name 10*, 2022.
Ham Jin, *In Side 2*, 2022.
Ham Jin, *Planet 4*, 2021

This exhibition features four colorful clay micro-sculptures: *In Side 2* (2022), *No Name 10* (2022), *No Name 11* (2022), and *Planet 4* (2021). Unlike his early sculptures, which staged scenes akin to stop-motion animation featuring humans or animals, his recent works eschew specific stories or messages. Instead, he explores the accidental and fluid possibilities that arise from the mixing of colors and the twisting of forms as he attaches clay to wires.

황인기 b.1951

황인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동양 고전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산수화 작업을 통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 미술 재료와 일상의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특유한 산수 세계를 구축한 황인기는 뉴욕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연으로의 작업 환경을 이동하면서, 인공적인 관계와 구조, 사회적 관계와의 거리감을 두고, 동시대 자연 풍경을 관찰하여 시각화하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화는 기법과 세부 묘사에 치중하지 않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내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학문과 교양, 그리고 서도(書道)로 연마한 필력(筆力)을 갖춘 상태에서 그려진 고미술의 장르이다. 특히, 직업화가가 아닌 문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남종화가 유입되면서 더욱 많은 문인화가들이 활약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는 강세황(姜世晃), 이인상(李麟祥), 조영석(趙榮), 심사정(沈師正) 등이 있으며, 19세기의 김정희(金正喜)에 이르러 조선의 문인화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섬은
산이다

미래 고고학자와 같은 태도로 임한 황인기의 신작 〈이보게〉(2023)는 50년 뒤 우리의 일상 풍경을 5000년 더 먼 미래에서 바라보는 상상적 관점을 교차하여 기록하고 발굴한 작품이다. 또한, 작가 황인기를 대표하는 디지털 산수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이보게〉는 조선시대 문인화*의 형식과 같이 동시대와 미래의 풍경에 그의 시조가 함께 화면을 메우고 있다. 석회와 함석, 낙하하고 뿌려진 물감들이 뒤섞인 화면 위를 파낸 동시대 문명에 대한 작가의 생각들은 전통적 번역의 방식을 넘어 재해석하고 발굴해 내는 감각을 선사한다. 이는 다른 시대의 풍경과 동시대 일상을 관통해 온 황인기의 지속적인 실험들과 맞닿으며, 더욱 과감한 화면처리를 통해 작품 앞에 선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간성을 경험하게 한다.

황인기, 〈이보게〉, 2023.

Inkie Whang b.1951

Inkie Whang undertakes a complex journey at the confluence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merging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rough his digital landscapes. These landscapes reinterpret both natural surroundings and classical East Asian landscapes with a contemporary lens. Whang combines traditional art materials and everyday tools to create his unique vision of landscapes. Moving his workspace from urban centers like New York and Seoul to natural settings has enabled him to eschew artificial and societal constructs, dedicating his focus to the observation and portrayal of contemporary natural landscapes.

Literati paint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represents a fine art genre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expressing the inner essence of its subjects through scholarship and refinement, prioritizing calligraphic finesse over detailed technique and descriptions. It primarily revolved around scholar-officials rather than professional painters. The late Joseon period saw an increase in literati painters,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Southern School painting from China. Prominent artists such as Kang Sehwang, Yi Insang, Jo Yeongseok, and Sim Sajeong marked this era, with Kim Jeonghee bringing the tradition to its peak in the 19th century.

His latest creation, *Hey, buddy* (2023), is envisio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future archaeologist, offering an imaginative view of our present landscape as seen 50 years from now and from a standpoint 5,000 years ahead. This work encapsulates Whang's signature digital landscapes, merging visions of today and tomorrow in a manner reminiscent of Joseon dynasty's literati paintings. The thoughts on civilization, carved onto the canvas and intertwined with lime, minerals, and layers of paint, transcend traditional interpretations, revealing the complex sensations of contemporary civilization. This piece connects with Whang's ongoing experiments across different eras and everyday life, presenting a bold visual treatment that invites viewers to traverse through past, present, and future timelines.

Inkie Whang, *Hey, buddy*, 2023.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46회	47회	48회	49회	50회	51회	52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시기간	1995.6.11-10.15	1997.6.15-11.9	1999.6.12-11.7	2001.6.9-11.14	2003.6.12-11.2	2005.6.12-11.6	2007.6.10.-11.21
한국관 주제					아이들의 풍경	문 뒤의 비밀	호모 스페시스
커미셔너/예술감독	이일	오광수	송미숙	박경미	김홍희	김선정	안소연
참여작가	곽훈 김인겸 윤형근 전수천	강익중 이형우	노상균 이불	마이클 주 서도호	박이소 정서영 황인기	김범 김소라 김홍석 나키온 문성식 박기원 박세진 박이소 성낙희 배영환 오형근 이주요 정연두 최정화 함진	이형구

53회	54회	55회	56회	57회	58회	59회	60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2009.6.7-11.22	2011.6.4-11.27	2013.6.1-11.24	2015.5.9-11.22	2017.5.13-11.26	2019.5.11-11.24	2022.4.23-11.27	2023.4.20-11.24
응결(凝縮)	사랑은 갔지만 상처는 곧 아물겠지요	호흡: 보따리	축지법과 비행술	카운터 밸런스: 돌과 산	역사는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나선(螺旋)	오도라마 시티
주은지	윤재갑	김승덕	이숙경	이대형	김현진	이영철	이설희 야콥 파브리시우스
양혜규	이용백	김수자	문경원 & 전준호	이완 코디 최	남화연 정은영 제인 진 카이젠	김윤철	구정아

Venice Biennale	46th	47th	48th	49th	50th	51st	52nd
Korean Pavilion	1st	2nd	3rd	4th	5th	6th	7th
Period	June 11 - October 15, 1995	June 15 – November 9, 1997	June 12 – November 7, 1999	June 10 – November 4, 2001	June 15 – November 2, 2003	June 12 – November 6, 2005	June 10 – November 21, 2007
Theme					Landscape of Differences	Secret beyond the door	The Homo Species
Commissioner/ Curator	Lee Yil	Kwang-su Oh	Misook Song	Kyung-mee Park	Kim Hong-hee	Sunjung Kim	Soyeon Ahn
Exhibitors	Kwak Hoon Kim In Kyum Yun Hyong-keun Jheon Socheon	Ik-Joong Kang hyung woo Lee	Noh Sang-Kyoon Lee Bul	Michael Joo Do Ho Suh	Bahc Yiso Chung Seoyoung Inkie Whang	Kim Beom Sora Kim Gimhongsok Nakyoung Sung Sungsic Moon Kiwon Park Park Sejin Bahc Yiso Nakhee Sung Bae Young-whan Heinkuhn Oh Jewyo Rhii Yeondoo Jung Choi Jeong Hwa Ham Jin	Hyungkoo Lee

53rd	54th	55th	56th	57th	58th	59th	60th
8th	9th	10th	11th	12th	13th	14th	15th
June 7 – November 22, 2009	June 4 – November 27, 2011	June 1 – November 24, 2013	May 9 – November 22, 2015	May 13 – November 26, 2017	May 11 – November 24, 2019	April 23 – November 27, 2022	April 20 – November 24, 2024
Condensation	The Love is gone, but the Scar will heal	To Breathe: Bottari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Counter- balance: The Stone & The Mountain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Gyre	Odorama Cities
Eungje Joo	Yun Cheagab	Seungduk Kim	Sook-Kyung Lee	Lee Daehyung	Hyunjin Kim	Young-chul Lee	Seolhui Lee Jacob Fabricius
Haegue Yang	Lee Yongbaek	Kimsooja	Moon Kyungwon & Jeon Joonho	Lee Wan Cody Choi	Hwayeon Nam siren eun young jung Jane Jin Kaisen	Yunchul Kim	Koo Jeong A

파편적 성좌, 그리고 ‘모든 섬은 산이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정연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현재진행형의 아카이브

호경윤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아쿠아 알타의 시간

김해주 (싱가포르 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관 큐레이터)

디어 오션 프렌즈

조주현 (프로그램 기획자 /

드리프팅 커리큘럼 디렉터)

**The Fragmented Constellation,
Where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 Years Since 1995**

Yeon Shim Chung (Professor, Hongik
University)

The Present Progressive Archive

Kyoung-yun Ho (Senior Archive Researcher)

The Time of Acqua Alta

Haeju Kim (Senior Curator at Singapore Art
Museum, Curator of the Singapore Pavilion
at the 60th Venice Biennale)

Dear Ocean Friends

Juhyun Cho (Program Director /
Director of Drifting Curriculum)

파편적 성좌, 그리고 ‘모든 섬은 산이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정연심(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1895년에 설립된 베니스비엔날레는 이후 생겨난 다른 비엔날레에 비해 독특한 역사를 띠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박람회(exposition) 등을 통해 근대적 개념의 국가주의를 홍보하고 디자인(아르누보나 바우하우스)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럽 내에서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 또한 치열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자르디니는 사실 국가적 권력과 위상, 국제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산물처럼, 내셔널 파빌리온이 배치되어 있다. 다른 국제 비엔날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시 공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국가관을 가지려는 노력은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간에도 치열한 경쟁으로 나타났으며, 자르디니에 들어간 국가관은 한국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관 없이 베니스비엔날레(자르디니의 이탈리아 파빌리온의 일부 공간을 사용)에 참여한 미술가들, 백남준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작가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기부자들, 그리고 이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으로 한국관은 1995년에 설립되었다. 전지구화의 물결도 한국관 건립 탄생을 도운 세계적 흐름이었다.

올해 만 30회를 맞이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을 비롯해 커미셔너, 예술감독을 초대해 2024년 4월 19일부터 9월 8까지 《모든 섬은 산이다》이라는 제목하에, 베니스의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열렸다.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가 개최된 시점인 4월 18일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관에 참여했던 작가들이나 감독 등이 초대되어 오프닝이 진행되었는데, 구정아가 전시하는 한국관을 비롯해 유영국,

**The Fragmented Constellation,
Where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 Years Since 1995**

Yeon Shim Chung
(Professor, Hongik University)

The Venice Biennale, established in 1895, boasts a unique history distinct from later biennales. Starting in the mid-19th century, intense competition among European nations vying for dominance promoted the modern concept of nationalism through expositions. These events placed significant emphasis on design movements such as Art Nouveau and Bauhaus. The Giardini of the Venice Biennale is uniquely arranged or organized as a series of national pavilions, reflecting national power, status, international order, and ideology. This distinctive and idiosyncratic nature of the exhibition spaces of the Biennale sets it apart from other international biennales. Ironically, the emphasis on national representation led to intense competition among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Notably, Korea was the last nation to secure a pavilion in the Giardini. Korean artists participated in the Venice Biennale from 1986 to 1993 at the former Italian Pavilion at the Giardini, despite the absence of a Korean Pavilion. In 1993,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notably including Nam June Paik, along with anonymous donors and supportive policymakers, advoc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avilion, which was finally realized in 1995. The globalization movement, which was a dominant trend at the time, also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organized by Arts Council Korea, is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To mark this milestone, the pavilion has invited 36 artists and teams who participated in the Venice Biennale from 1995 to 2024, along with commissioners and artistic directors, to present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from April 19 to September 8, 2024 it is being held at th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in Venice. On April 18, when the main exhibition at the Venice Biennale was held, artists and directo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vilion over the past 30 years were invited to the opening. This year, the Korean Pavilion is exhibiting

이성자, 이승택, 이배, 신성희 등 다양한 한국미술품 전시가 개최되고 있어 해외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된 ‘실험미술’,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1989년도 이후의 한국 미술’ 전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과 보스턴 미술관의 ‘한류’ 전시 등과 함께 한국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비평적 조명을 받기에 충분한 전시였다.

물타기사단 수도권에서의 전시는 사실 베니스의 역사와 중세 기사단의 역사가 함께 녹아 있는 공간으로, 수도권 자체가 가진 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1995년 이후 한국미술 전시가 주로 영상과 설치, 입체 등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서 전시 공간과 설치작품이 서로 조응하며 호흡하는 인상을 준다. 사실 전시 공간으로 따지면 자르디니 국가관 중 가장 난해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소 산만한 전시장일 수도 있다.

임근혜 관장이 주축이 된 이번 전시는 아카이브와 작가들이 실제로 수도원의 공간에 맞게 설치한 장소특정형 작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 전시가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작가가 애초에 전시했던 맥락이나 당시 설치된 작품들을 그대로 구현하거나 전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근 30년 동안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은 한꺼번에 서울이 아닌 베니스에서 ‘전시’하는 것 또한 큐레이팅 관점에서는 녹록지 않은 난제를 보여준다. 전시의 방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미술의 동향과 시대적 흐름 요청, 담론의 변화와 글로벌 미술사와 비평의 흐름으로 그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사실, 베니스비엔날레는 매년 본 전시 주제가 있긴 하지만, 국가관 전시를 담당하는 커미셔너나 예술감독은 이를 따를

수도 있고 독자적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30년 역사를 하나의 전시로 보여주니 이것은 한국미술이 국제적인 담론과 함께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커미셔너는 제1세대 평론가 이일이였다. 당시 전시는 추상화가 윤희근을 비롯해, 곽훈, 조각가 김인겸이 참여했으며, 도쿄와 뉴욕에서 수학하며 국내 학맥이 거의 없었던 설치미술가 전수천이 선정되었다. 곽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고한 상태로 작고 작가의 작품은 소품이나 아카이브 위주의 작품으로 설치되었다. 김인겸의 〈프로젝트 21-내추럴 넷〉을 위한 모형은 1995년 한국관의 공간을 상상하기에 정확하게 고증된 건축 모델이다. 김인겸은 총 4명의 작가가 한국관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점이나 첫 전시로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상황을 비판하며 『공간』지에 투고하기도 했다. 윤희근의 작품이 아카이브 캐비닛 옆으로 설치되어 첫 전시의 혼성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호기심의 캐비닛’을 연상시키는 이 아카이브관에는 전수천이 1995년 한국관에 설치했던 〈방황하는 흑성들 속의 토우—그 한국인의 정신〉(1995) 작품의 일부로 테라코타 토우 한 쌍이 설치되었다. 이 작품으로 특별상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1995년 설치 전체를 재고증해 제대로된 전수천의 회고전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에는 윤희근의 추상회화가 같이 전시되고, 토우 반대편 캐비닛에는 박이소의 〈베니스비엔날레 2003을 위한 드로잉〉과 당시 현장 설치작품을 찍은 사진이 도큐멘테이션의 방식으로 전시된다. 가늘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듯한 베니스비엔날레 설치작은 네 개의 각목 사각형 막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또 다른 막대기가 엮여있고, 이 네 다리는 총 네 개의 세숫대야에 서 있다. 견고하지도 않고 뭔가

the work of Koo Jeong A. Concurrently, other Korean art exhibitions in Venice,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Biennale, feature artists such as Yoo Youngkuk, Seondja Rhee, Lee Seung-taek, Lee Bae, and Shin Sung Hy. Various exhibitions of Korean art are being held internationally, such as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 – 1970s” at the Guggenheim Museum,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and “Hallyu The Korean Wave” at the Victoria & Albert Museum and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These exhibitions are significantly raising global interest in Korean art and have received considerable critical attention and acclaim.

The exhibition at th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is a distinctive space embedded with the history of Venice and that of the monastery throughout the ages. Although the Palazzo Malta itself may have spatial limitations as an exhibition space, Korean art exhibitions since the 1990s have expanded to include diverse mediums such as videos, installations, and three-dimensional works, which can be accommodated within the Palazzo’s rooms. This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exhibition space of the Palazzo and the in situ installations are in harmonious dialogue with the exhibition site. In fact, the Korean Pavilion, which is almost entirely glass, is considered the most esoteric and challenging space among the Giardini National Pavilions, and it may be a somewhat distracting exhibition space.

This exhibition, curated by Jade Keunhye Lim, primarily features site-specific works installed by artists and archives within the Palazzo Malta. Despite commemorating its 30th anniversary,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plicate or display all the pieces in the original context in which they were first shown or created. Additionally, curating an exhibition of works by ar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Venice for nearly 30 years, rather than in Seoul,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and predicaments. The exhibition focuses on the critical transformation and contemporaneity

from 1995 to the present, exploring themes of temporal flow, shifts in discourse, and the global currents of art history and criticism. The Venice Biennale, known for its annual thematic variations, allows commissioners and artistic directors of each national pavilion the flexibility to follow or set their own themes. This exhibition encapsulates its 30-year history in a single presentation, highlighting the growth of Korean art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iscourse.

In 1995, Lee Yil, a critic of postwar Korean art, served as the first commissioner of the Venice Biennale. During this time, abstract painters Yun Hyong-keun and Kwak Hoon, along with sculptor Kim In Kyum,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dditionally, installation artist Jheon Socheon, who primarily studied in Tokyo and New York, was also selected. With the exception of Kwak Hoon, all these artists are now deceased, and their works are displayed as small objects or archive-oriented pieces. Kim In Kyum’s *Project 21-Natural Net* includes an architectural model that accurately represents the space of the Korean Pavilion in 1995. Kim In Kyum also criticized the small size of the Korean Pavilion, which housed four artists, and the inadequate preparation for the inaugural exhibition, as reported in *Space* magazine. Yun’s work is positioned next to the archive cabinet, creating a hybrid atmosphere reminiscent of the first exhibition.

Within this archival cabinet, reminiscent of a “cabinet of curiosities,” a pair of terracotta clay figurines is displayed as part of the installation *T’ou Amongst Wandering Planets; Spirit of the Korean People*, created by Jheon in 1995. Given the special award called “an honorable mention” this work received, it is essential to reevaluate the entire 1995 installation and consider organizing a comprehensive retrospective of Jheon Socheon’s work in the future. In this space/gallery, Yun’s abstract painting is also exhibited, as noted: Opposite Jheon’s terracotta sculptures, Bahc Yiso’s *Drawing for the Venice Biennale 2003*,

아슬아슬하지만, 그 막대기에는 국가관의 파빌리온 실루엣을 상당히 정교하게 목각으로 깎았다. 이 어설플른 설치작에는 견고하거나 구조적이지 않은 반전이 존재한다. 전시된 사이트의 장소성이 중요한 박이소의 설치 또한 작가 사후 매뉴얼의 중요성을 되짚어 준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 근대 국가 간의 경쟁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세기의 상징물로서 국가관의 역사와 파워를 박이소의 은유와 냉소, 풍자의 언어로 치환되어 있다. 스펙터클한 모뉴먼트(국가관)나 설치에 저항하는 박이소의 개념적 어법이 드로잉과 사진 속에 녹아 있다.

다음 전시 공간으로 가기 전에 한국관 건립에 크게 이바지한 백남준의 기억하고 조명하는 월 텍스트와 1993년 독일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백남준이 〈Marco Polo〉라는 작품 앞에 있는 사진이다. 백남준이 1990년대 한국미술에 미친 영향이 워낙 지대하므로 한국관 건립에 미친 그의 위상을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관 건립은 국제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우리 미술계의 전반적 분위기뿐 아니라 국가의 예술정책, 국공립미술관의 발전과도 깊은 영향을 맺는다. 즉, 1988년 올림픽과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개인이 고군분투하던 국제교류(실제로 1986년, 1988년, 1990년, 1993년 동안은 한국관 없이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의 몫은 이제 국가가 예술정책으로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는 점에서 한국관은 여러 요소가 맞물려 1995년에야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낙영은 〈Raving〉(2024) 신작에서 직접 작가가 작곡한 음악과 사운드를 선보인다. 인터넷의 온라인 문화와

리얼리티 공간을 부유하는 포스터 시리즈는 밈(meme) 이미지가 혼성적으로 사용되었다. 성낙희 또한 〈Cozy Cardio〉(2023)에서 반복적인 색채와 음악적 리듬이 함께 엮여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박세진은 2005년 한국관 참여작가로서 〈풍경 1993-2002〉(2005년 한국관 실제 전시 작품)에서 한국 비무장지대의 경계선 속에서 바라본 지평선과 풍경을 표현하여, 가시적인 세계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회화의 힘을 보여준다. 노상균은 마네킹을 비롯해 그리스도나 부처와 같은 성스러운 조각상을 세속적인 플라스틱 시퀀으로 감싸는 작업을 설치해 종교적인 조각의 모뉴먼트적 성격에 도전을 가해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관람자들은 플라스틱 시퀀으로 감싼 부처의 조각상에서 초월의 아름다움이 와해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주요는 〈Outside the Comfort Zone〉(2024)에서 사소하지만, 개념적으로 작가의 작업과 연관된 텍스트를 일부 드로잉으로 구성하며, 동시에 주류 시스템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경험을 자전적인 언어로 해석한다. 그는 개념적 여정과 현장 설치로 수도원의 공간 벽 위에 직접 드로잉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치했다. “It’s been 26 years since I firstly made the humidifiers in 1998 아래층 작업실 정서영의 건조한 피부를 위해 수십 개의 가습기를 만들어 (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실에 배달해 주며 나에게 작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제 26년 전.” 이렇게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자전적 언어들은 노마딕한 작가로서 “떠돌아 다닐거야? Are you gonna be continuously nomadic?”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서 “임민욱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내게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했다. 서울에 할 일이 많다고.” 이러한 파편적인 드로잉에는 작가의

along with photographs of on-site installations from that time, are presented as documentation. Bahc's work, initially installed outside the Korean Pavilion and appearing to be precariously balanced, consists of four square wooden poles. A conspicuous stick connects the two lines of poles, with these four legs standing in a total of four washbasins. Although the installation seems contingent, a closer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architectural silhouette of the national pavilions at the Giardini is meticulously carved into the wood. This fragile installation, which is neither solid nor structural/architectural, contains an ironic twist. Bahc's installation, emphasizing the sense of the exhibited site or locality, also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e artist's posthumous manual, particularly in this type of installation piece.

The Venice Biennale represents a symbol or by-product of the 20th century, a period marked by the emergence of imperialism, nationalism, and competition among modern nations on the global stage. In Bahc's work, however, the historical power of national perspectives is supplanted by the language of metaphor, cynicism, and satire. Bahc's conceptual language, which opposes the spectacular monuments of national pavilions and installations, is manifested in his drawings and photographs, creating a form of counter-monumentalism and conceptualism.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exhibition space, we encounter a photograph of Nam June Paik,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This photograph is accompanied by a wall text highlighting Nam June Paik's influence and his representation of the German Pavilion in 1993 with the piece *Marco Polo*. Paik's impact on Korean art in the 1990s was substantial, and hi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deserves recognition. The creation of the Korean Pavilion reflects not only the evolving atmosphere of the Korean art scene, which began to prioritize international exchange at a national level, but also the

country's broader art policy. Additionally, it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public art museum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in 1995, following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88 Olympics and the 1993 Daejeon Expo, resulted from various factors. It demonstrat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xchange, a concept that individual Korean artists had struggled with until 1993—Indeed, Korean artists had participated in the Venice Biennale in 1986, 1988, 1990, and 1993 without a national pavilion. The inclusion of the Korean Pavilion in 1995 marks its acceptance and integration into Korean art policy.

In the work titled *Raving of 2024*, Nakoung Sung presents a composition of music and sounds created by the artist. This piece includes a series of posters that float within the online culture and reality space of the internet, utilizing a hybrid form of meme images. In *Cozy Cardio* of 2023, Nakhee Sung also exhibits works that intertwine repetitive colors and musical rhythms. Meanwhile, Park Sejin, as a participating artist in the Korean Pavilion in 2005, explores the power of painting to imagine beyond the visible work by depicting the horizon and landscape seen from the border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in *Landscape 1993-2002* (the actual work that he showed at the Korean Pavilion in 2005). Noh Sang-Kyoon, in his installation, enwraps mannequins and sacred statues such as Christ and Buddha in secular plastic sequins. This work challenges the monumental nature of religious sculpture, dissolv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ecular and the sacred. Viewers witness the disintegration of transcendence's beauty in the statue of Buddha, now adorned in plastic sequins.

In *Outside the Comfort Zone* of 2024, Jewyo Rhii juxtaposes drawings with texts that appear trivial but are conceptually connected to the artist's work and statement. Simultaneously, Rhil interprets the subtle experiences within existing art systems and institutions through highly

손 글씨가 쓰여있으며, 그 옆으로는 ‘The Second Plan of the Art depot realised differently 2019-2023’과 같은 퍼블릭 프로젝트 드로잉이 있다. 탈모뉴먼트화 된 그의 공공 조각은 예술작품이 전시 이후 창고로 가버리는 스토리지 관점에서 일시적 퍼블리온으로 관람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계적 공간을 탄생시킨다.

2022년 한국관 참여작가인 제인 진 카이젠은 〈할망〉(2023)과 〈수호자들〉(2024) 신작 영상을 제작해 전시한다. 할망은 제주도의 신화 속에서 제주를 만든 설문대할망의 할망이라는 여신의 뜻이나 영등할망처럼 제주에서 바람과 풍요의 여신, 혹은 일반적인 할머니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띤다. 해녀와 할망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토착적인 신화를 통해서 여성의 노동을 다루고 있으며, 넓게는 인간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삶의 순환적인 사이클인 삶과 죽음의 보편적인 정서를 함께 다루는 깊이 있는 작품이다.

예술적 개념과 일상의 언어를 비트는 작업을 보여주는 김홍석은 〈침묵의 고독—대학생〉(2017) 작품에서 작가가 고용한 대학생 퍼포머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작가가 설명한 캡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빛과 색채가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김윤철은 〈스트라타〉(2024)라는 신작을, 정연두는 〈상록타워〉(2001)를 전시한다. 정연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슷한 아파트 구조에는 개별적 삶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윤정서, 17세, 2007년 7월 19일〉에서처럼 정확한 나이와 사진 촬영 날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담고 있는 오형근의 초상은 이러한 데이터를 지표적 특징으로 삼으며 특이성과 페르소나를 갖춘 한 개인을 포착하고 있다. 동전모양의 금속판을 바닥에 깔아 인공 낙엽 바닥을 만든 박기원의 〈대화〉(2022)를 지나야만

정연두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이 디자인되었다. 김범의 〈켄타우루스와 미노타우루스(원형버전)〉(2020) 또한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과 이에 맞서는 동물의 긴장된 상태를 사진으로 이어 붙여 57초 싱글 채널 비디오로 제작했다.

김소라의 〈얼어붙은 방귀의 싸늘한 냉기〉는 복도를 지나면서 무심코 들리는 파편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함진의 〈이름 없는 10〉(2022)은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해양미생물의 세계를 비정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초소형 조각으로 제시한다. 문성식의 〈빛과 어둠〉(2023)은 상감기법으로 제작되어 일상적 사물과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엿보게 한다. 제작 연도와 상관없이 이들 작품은 2000년대 이후의 한국미술을 ‘동시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비평적 지점을 공유하고 있다. 개념적 언어와 재현 코드, 작품에 반영된 초현대적인 공간 사이로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을 읽을 수 있다.

문경원과 전준호의 〈미지에서 온 소식: 이클립스〉(2022)는 본래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처음 전시된 작품으로, 윌리엄 모리스가 쓴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소설에서 영감으로 시작된 여러 연작 중 한 작품이다. 다른 연작처럼, 픽션과 논픽션, 가상의 경계를 오가며, 구명선으로 생명을 이어 나가는 인물의 투쟁을 다룬다. 코디 최의 네온 작업 〈다운 싸이드 이즈 헤비〉(2010-2011)은 『장자』에 나오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텍스트 번역을 둘러싼 이질적이고 혼성적 문화번역을 다룬다. 네온 텍스트는 영어를 한국어로 어눌하게 발음한 표기를 반영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미디어 작업들은 2010년대와 202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맥락을 다루고 있다. 이형구는 〈Measure〉(2014) 영상 작품에서 말의 움직임을 인간의

personal autobiographical language. Using conceptual trajectories and on-site installations, she drew directly on the walls of the monastery's space, blending text and images. She reflects, "It's been 26 years since I first made the humidifiers in 1998 for Chung Seoyoung's dry skin downstairs and delivered them to her studio (until she liked them), and I was identified as an artist. Twenty-six years ago." These fragmented and self-contained languages reflect the words of the nomadic writer: "Are you going to wander around? Are you going to be continuously nomadic?" The artist continues, "Minouk Lim called m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and told me to confront him and not avoid him.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in Seoul." These fragmentary drawings, written in the artist's handwriting, are accompanied by sketches of public projects such as *The Second Plan of the Art Depot, realized differently from 2019 to 2023*. Her public sculptures, designed with counter-monumental intent, establish a boundary space that fosters a new relationship with the viewer. These pieces serve as a temporary pavilion, embodying the concept of storage, where the artwork is relocated to a warehouse after the exhibition.

Jane Jin Kaisen, an artist featured in the 2022 Korean Pavilion, creates and exhibits new videos titled *HALMANG* of 2023 and *GUARDIANS* of 2024. The term "Halmang" encompasses multiple meanings, referring to the goddess Seolmundae Halmang from Jeju Island mythology, who is credited with creating Jeju, as well as the goddess of wind and fertility in Jeju, and a general term for grandmother, akin to Yeongdeung Halmang. Kaisen's work explores women's labor through the indigenous myths unique to Jeju Island, such as the *haenyeo* (female divers) and *halmang* (grandmother figures). Broadly speaking, it is an in-depth work that deals with the universal themes of life and death, encapsulating the cyclical nature of human existence and labor.

In *Solitude of Silences-Cleaners* of 2017, Gimhong-

sok exhibits a scene in which a college student, hired by the artist as a paid performer, takes a break (as explained in the caption). While Yunchul Kim, who makes light and color interact with each other, exhibits a new work called *Strata* of 2024, Yeondoo Jung displays *Evergreen Tower* created in 2001, which represents individualized life within similar apartment structures. And as in *Jeongsuh Yun, age 17, July 19, 2007*, Heinkuhn Oh's photographic portrait, which contains the exact age, date of the photograph, and records, captures an individual with a singularity and persona in which her personal data acts as an indexical evidence. The space was designed so that one can see Jung Yeondoo's work only after passing through Kiwon Park's *Dialogue* of 2022, which created an artificial leaf floor by laying a coin-shaped metal plate on the floor. Kim Beom's *Centaur and Minotaur (Circular Version)* of 2020, in which the tense state between humans who seek to control and animals who resist this control, was captured in photographs and edited together to create a 57-second single-channel video. And as in *Jeongsuh Yun, age 17, July 19, 2007*, Heinkuhn Oh's photographic portrait, which contains the exact age, date of the photograph, and records, captures an individual with a singularity and persona in which her personal data acts as an indexical evidence. The space was designed so that one can see Jung Yeondoo's work only after passing through Park Ki-won's *Dialogue* of 2022, which created an artificial leaf floor by laying a coin-shaped metal plate on the floor. Kim Beom's *Centaur and Minotaur (Circular Version)* of 2020, in which the tense state between humans who seek to control and animals who resist this control, was captured in photographs and edited together to create a 57-second single-channel video.

Sora Kim's *an icy chill of a frozen fart* features disjointed, unintelligible sounds that are unintentionally overheard as one walks through the hallway. Ham Jin's *No Name 10* of 2022 depicts the world of marine micro-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 스스로 비인간화된 모습으로 말발굽 소리 등을 통해 역으로 인간의 몸을 사유하고 통제한다. 정은영은 〈먼지〉(2023)에서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하고 연구한 여성국극과 연관된 주제로 확장하며, 국극 리서치에서 느꼈던 아카이브 부재를 이야기하고, 남화연은 〈이태리 정원〉(2024)에서 한국 근대기의 유명 무용가인 최승희(1911-1969)를 다룬다. 특히, 이태리 정원은 1936년에 그가 내놓은 음반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용백의 〈NFT 미술관: 피에타〉(2022)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을 오작동의 상징인 블루스크린으로 덮어버린 작품으로, 역으로 NFT의 가상 세계로의 진입의 불가능성, 오작동의 상황과 오류로 지연된 공간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는 NFT로의 진입이 멈춰버린 이미지의 오작동이다. 수도원의 중정에는 배영환의 〈걱정—서울 오후 5:30〉이 설치되어 사운드 조각을 구현한다. 소리를 통해 중정의 종교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이 작품은, 작가가 서울 소재 사찰에서 오후 5시 30분에 울리는 종소리를 직접 녹음해 만든 사운드이다. 또한 작가는 사찰의 종을 서로 중첩시킨 이미지를 전시한다.

수도원의 야외 뜰을 마주하고 있는 공간에는 김수자의 〈바늘 여인-자오선〉(2023) 사진과 블랙 보따리인 〈연역적 오브제 - 보따리〉(2023)가 설치되어 디아스포라와 명상적 공간을 창출한다. 다른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이형우의 작품은 편백나무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한결같이 깎아낸 작가의 수행적인 노동력이 암시되어 있다. 편백나무 향은 나무 그 자체를 사물화하여 자연과 인공,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미묘한 경계를 나타낸다. 이형우의 작품이 설치된 벽을 따라 월페이퍼 처럼 전시되는 서도호의 〈Who Am We?〉(2002)가 전시되는데, 사실 서도호에게

할애된 독립된 전시 공간이 따로 있었다라면 이 작품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집단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교차하고 부서지고 혼성하는 한국 자체의 정체성을 다룬다. 한편 김수자의 바늘 여인은 고요하고 숭고한 수도원의 침묵과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가장 짧은 수직으로 연결하는 자오선(Jaoseon)에서 유래한 것으로, 건축과 빛, 멕시코의 지리적 조건과 한데 어우러져 장소의 이동과 노마드적 조건을 건축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빛이라는 탈물리적 조건을 통해 전달한다.

야외에 설치된 대형 설치작으로 정서영은 〈증거〉(2014)에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물(식물)과 인공물(펜)이 서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버린 상태적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마치 서로가 얽혀있는 상태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하나의 증거로 남는다. 강익중의 〈아리랑〉(2024) 작품은 실함민들이 직접 드린 드로잉으로 내부를 채웠으며, 외부에는 아리랑 가사가 엮보인다. 전쟁과 분단, 고향을 잃은 상실감은 대형의 한글 텍스트로 디아스포라를 표현한다. 최정화의 〈nATuReNuRture〉(2023-2024)는 해양폐기물로 만들어진 돌탑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이 서로 뒤얽혀있는 생태적 존재임을 밝혀주며, 곽훈의 〈겹/소리-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1995)는 한국관 당시 보여주었던 옹기를 통소처럼 보이도록 해서 실제 대금연주가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던 작품이다.

이 수도원 2층은 희귀한 프레스코화로 유명한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어찌 보면 통제된 공간이다. 마이클 주의 〈Liminus〉(2017)는 독도에서 72시간 동안 캔버스를 깔고 본을 뜬 작품으로 제목의 의미대로 여기도 저기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organisms, which are typically invisible to the naked eye, through formless and grotesque microscopic sculptures. Sungsic Moon's *Light and Darkness* of 2023 utilizes the Celadon inlay technique to present a fresh perspective on everyday objects and landscapes. Collectively, these works, irrespective of their production year, offer a critical insight into Korean art since the 2000s, highlighting its contemporaneity as an important discourse in progress. The interplay between conceptual language, representational codes, and the ultra-modern spaces depicted in these pieces reveals the contemporary nature of Korean art.

Moon Kyungwon & Jeon Joonho's *News from Nowhere: Eclipse* of 2022, originally exhibited at the 21st Century Museum of Art in Kanazawa, Japan, is one of a series of works inspired by the novel *News from Nowhere* by William Morris. Like the rest of the series, it oscillates between fiction, nonfiction, and fiction, and expresses a struggling human being who continues to live with a lifeboat. Cody Choi's neon work is *Down Side Is Heavy* of 2010-2011, translating the contents of Zhuangzi into English, dealing with the heterogeneous and hybrid cultural translation surrounding text translation. The neon text reflects a phonetic transcription of English pronounced awkwardly in Korean.

The media works featured in this exhibition contextualize Korean contemporary art from the 2010s and 2020s. Hyungkoo Lee's *Measure* of 2014 explores the movement of horses using the human body in his video works. The artist dehumanizes, contemplates, and controls the human body through the sound of horse hooves. In *Dust* of 2023 by siren eun young jung, the artist expands on themes related to her ongoing exploration of "Yeoseong Gugeuk," a performance style exclusively performed by women in the 1950s and 1960s. Jung discusses the lack of archival material she encountered during her research on this specific performance. Hwayeon Nam's *Italian Garden* of 2024 archives and reassembles the life of Choi

Seung-hee (1911-1969), a renowned modern Korean dancer. Notably, the *Italian Garden* is also the title of a record Choi released in 1936. Lee Yongbaek's *NFT Museum: Pietà* of 2022 evokes Michelangelo's Pietà with a blue screen, symbolizing malfunction and the impossibility of entering the NFT virtual world, marked by errors and delays. This work highlights the image's failure to enter the NFT realm. In the courtyard of the Palazzo Malta monastery, Bae Young-whan's *Anxiety-Seoul 5:30 p.m.* is installed as a sound sculpture. This piece, which evokes the religious atmosphere of the courtyard, was created by recording the ringing of a temple bell at 5:30 p.m. in Seoul. Additionally, the artist presents images of temple bells superimposed on each other.

In the space facing the outdoor courtyard of the monastery, Kimsooja's photographic works of *A Needle Woman-Jaoseon* of 2023 and *Deductive Object-Bottari* of 2023 are installed to create a diasporic and meditative environment. *A Needle Woman* interacts with the quiet serenity of the sublime monasteries, drawing from the shortest vertical meridian (Jaoseon)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poles. It conveys the movement of site and the nomadic condition through the physical aspects of architecture and the metaphysical condition of light, in harmony with the architectur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Mexico. hyung woo Lee's work, displayed in a separate space, hints at the artist's performative labor of carving cypress wood into almost identical pieces. The scent of cypress wood creates the objecthood of the tree itself, representing the subtle boundaries between the natural and the artificial,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Along the wall where Lee's works are installed, Do Ho Suh's *Who Am We?* of 2002 is also displayed, revealing that a dedicated exhibition space for Do Ho Suh would have intensified the impact of his work. This piece addresses Korea's identity, where collective and individual identities intersect, conflict, and intermingle.

듯한 모호한 추상적 풍경화를 만든다. 같은 공간에 설치된 황인기의 〈이보게〉 또한 조선시대 문인화와 오늘날의 풍경을 서로 교차시켜 수도원의 프레스코룸에 설치했는데 두 작품 모두 수직적, 수평적 시간과 공간을 오가는 작품이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작가들로 구성된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는 사실 그 정체성을 하나로 묶기 어려운 전시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작품을 박제화 시키는 것에 저항하며, 균질된 아카이브라는 범주에 얽매이기를 저항하는 이들이고, 한국관이라는 내셔널 정체성에 묵히기를 거부하는 작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미술이 ‘동시대성’의 지형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이 전시는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아카이브는 자크 데리다가 말하듯이 아포리아로서 전시 작품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끊임없이 매개하는 아카이브로, 지금도 생성 중인 엔트로피 상태를 의미한다.

섬과 산이 서로 ‘연결된 지점들’이라면 한국관도 글로벌 컨템포러리 아트와 서로 교차하고 얽혀있는 에콜로지적 정황들을 이번 전시는 보여준다. 하나의 주제나 범주로, 매체로 묶을 수 없는 작가들의 특이성 또한 이러한 동시대성의 영역에서 서로 유명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층위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국 이번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관 30주년 기념전시는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방향성을 묵도하게 한다. 그것은 중심이 와해된 별자리같이 존재하는 작가들이며, 성좌적 이미지로 구성된 아틀라스이다.

In the large-scale outdoor installation piece, Chung Seoyoung presents *Evidence*, a stately image in which humans and non-humans, natural objects (plants), and man-made objects (pens) are tightly intertwined, serving as a testimony to one's existence through their interconnected state. Another outdoor piece, Ik-Joong Kang's *Arirang* of 2024, fills the interior with drawings provided by displaced people themselves, while *Arirang* lyrics are displayed on the exterior. This piece expresses the diaspora and the sense of loss from war, division, and homeland through a large Hangul text. Choi Jeong Hwa's *nATuReNuRture of 2023-2024* is a stone pagoda made of marine waste, highlighting the intertwined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s we enter the Anthropocene era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Kwak Hoon's *Kalpa/Sound; What Marco Polo Left Behind* of 1995 features an onggi (traditional Korean earthenware) crafted to resemble a tungso (traditional Korean bamboo flute played vertically), accompanied by a performance from an actual daegeum (traditional Korean bamboo flute played horizontally) musician.

The second floor of the monastery is renowned for its historical frescoes, which are so significant that many people find it difficult to visit and see them all at once. Michael Joo's *Liminus* of 2017 is a work created over 72 hours on Dokdo Island, featuring a vague abstract landscape painting that explores the boundary between here and there, as suggested by its title. In the same space, Inkie Whang's installation of *Hey, Buddy* intersects Joseon Dynasty literati paintings with contemporary landscapes, and these pieces are displayed in the monastery's fresco room. Both installations navigate between vertical and horizontal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Featuring the majority of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vilion from 1995 to 2022, *Every Island Is a Mountain* is an exhibition that defies a unified identity. This challenge arises because these artists inherently

resist the static fixation of their works and refuse to be confined to a homogeneous archive or national identity. This exhibition, however, has depicted the trajectories of Korean contemporary art since 1995, charting its course on the topographical map of "contemporaneity". As Jacques Derrida describes, the archive functions as an aporia, wherein the displayed works continually mediat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ignifying a state of ongoing entropy. Just as islands and mountains represent 'connected points,' this exhibition also illustrates the ecological contexts that intersect with global contemporary art. The uniqueness of the artists—who cannot be neatly categorized into a single theme, medium, or category—and their diverse voices and layers interacting within the realm of contemporaneity, mak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a reflection on the trajectory of Korean contemporary art. It serves as an atlas of constellation images, where artists exist like constellations with a disorganized center.

현재진행형의 아카이브

호경윤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마치 지나간 길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존재에는 자취와 여정이 뒤따른다. 한국관의 건립과 이후 치러진 15번의 전시들, 그 시간을 되새기는 《모든 섬은 산이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마저도 각각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과 문서들을 남기게 된다. 그것은 의도적이기보다는 거의 자연발생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카이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 대다수는 단명하는 자료들이겠지만, 또 몇몇은 훗날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고 재해석되어 아카이브적 전회를 맞이할 것이다. 과거완료형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아카이브는 이제 의미가 없다.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컬렉션 역시 마찬가지다.

백남준의 영광과 유산, 한국관 건립을 둘러싼 현실적 노력과 결실, 그리고 매회 한국관에서 보여주는 다양각색의 창작욕들을 과연 어떻게 아카이빙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것들이 수동적으로 보관된 기록물이 아닌, ‘지금-여기’의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는 동적인 자원으로서의 아카이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과거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송희와 백종관은 아카이브라는 매개를 통해, 작가로서 한국관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들의 독자적인 시선과 섬세한 소리는 한국관에 담긴 시간과 공간을 중첩으로 분절시키고, 서가에 놓인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거뜰히 뛰어넘어 비선형적 세계 그 어딘가로 우리를 초대한다.

Footprints linger on paths once taken; likewise, “beings” are followed by tracks or traces of journeys they have taken. Fifteen art exhibitions that took place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and various programs of *Every Island is a Mountain*, an exhibition that reflects on the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 left behind their traces too. Yet they did not just leave behind remarkable moments—they also left us with all sorts of records and documents produced in the long and challenging processes of their preparations. We might say that that archive was not created intentionally, but rather came about naturally. Also, that archive is present progressive, meaning that it is still in the making. Most items in the archive are probably ephemeral material, but among them are pieces that will be found and reinterpreted by someone in the future, eventually facing their “archival turns.” An archive that exists as a past perfect record is no longer meaningful today. The same holds true for the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Collection that Arko Arts Archive is amassing.

How should we archive the glory and heritage of Nam June Paik, practical efforts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and the fruits of those efforts, and the diverse expressions of passion for creativity presented at the Korean Pavilion in every one of its exhibitions? Furthermore, how could we refrain from making these stay merely as records that exist passively in storage and instead, develop an archival practice in which they serve as active resources that generate the meaning and value of “here and now”? Songhee Noh and Paik Jongkwan, two artists who did not previously represent the Korean Pavilion, use archives as their creative media to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experiencing and celebrating this national pavilion. Noh and Paik’s unique perspectives and delicate sound captured in their videos divide the accumulated time and space of the Korean Pavilion in all directions, taking the Pavilion’s history and records beyond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system of archive shelves and inviting us to a place in the nonlinear world.

노송희는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를 오가는 일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2020년 이후부터 아카이브 자료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는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는 데이터화된 역사를 구조화하고 이를 병치시켜 특유의 시점 이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장면들을 재창조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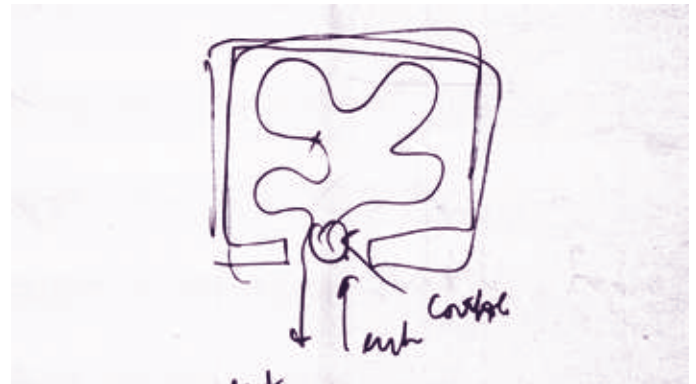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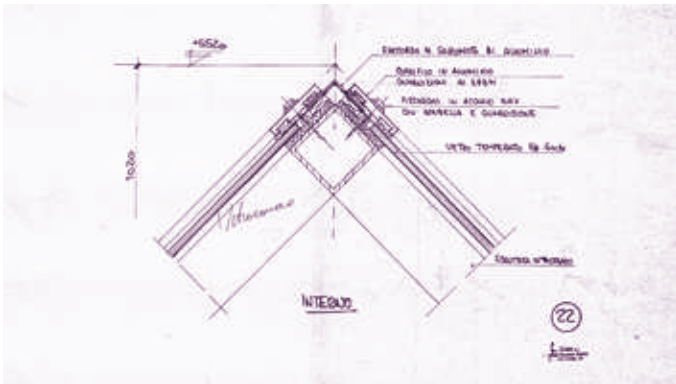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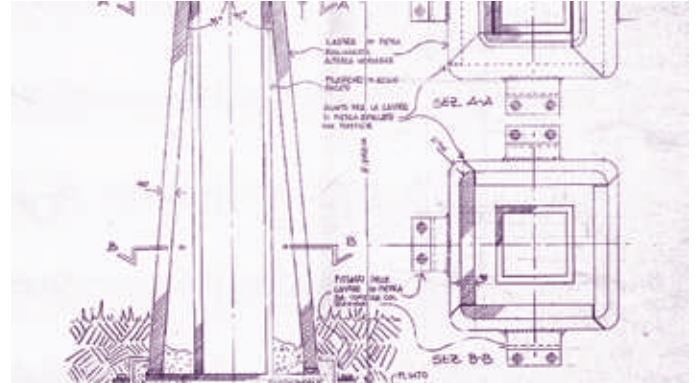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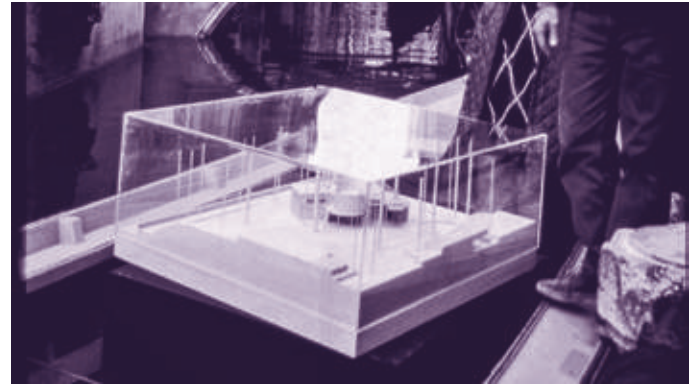
작품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관을 짓는 과정에서 생성된 건축 도면, 도큐먼트, 드로잉이 등장한다. 건축가 김석철과 함께 베니스 현지에서 한국관 건축에 참여했던 프랑코 만쿠조(Franco Mancuso)가 2023년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아르코예술기록원)에 기증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의 세계화 흐름과 한국의 문민정부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 백남준,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라는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한국관의 건립이 가능했다. 한국-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이 주고 받았던 팩스, 편지, 건축 모형 등 외에도 녹리지 않은 건립 과정 속에서 남아 있는 파편적인 기록들과 주관적인 기억들로부터 관객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들은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면서 당시의 상황을 즐겁게 상상하도록 한다.

노송희, 〈RAS(임의접속공간)〉,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2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션.

Songhee Noh has been engaging in video work collaborating with various institutions based on archival materials since 2020, driven by an interest in the interplay between the immaterial and material realms. She structures and juxtaposes digitized history in a way that reveals unique shifts in perspective, thereby recreating and presenting new scenes.

The work features architectural plans, documents, and drawings creat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from 1993 to 1995. Most of the materials were donated in 2023 to Arts Council Korea (ARKO Arts Archive) by Franco Mancuso, who collaborated on the pavilion's construction in Venice with architect Seok Chul Kim. Amid the globalization of the 1990s and the social milieu of Korea's civilian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vil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vigorous efforts of artists Nam June Paik, Seok Chul Kim, and Franco Mancuso. Beyond the faxes, letters, and architectural models exchanged by the Korean and Italian architects, viewers can explore the work through the fragmentary records and subjective memories preserved from the arduous construction process, allowing for diverse interpretations. For instance, the noises emanating from the construction process forge a novel rhythm, inviting viewers to imaginatively and playfully reconstruct the atmosphere of that time.

Songhee Noh, *RAS(Random Access Space)*, 202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2min. Commissioned by Arts Council Korea.



백종관은 아카이빙과 리서치를 통해 이미지와 사운드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으로 재맥락화하는 영상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바라보는 행위와 그 관점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작가는 다양한 차원의 장면들을 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우연 속에 발생하는 필연적 장면들을 통해 관람자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간성을 경험하게 한다.

작가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진 30여 년의 기록들을 살폈다. 작품이 만들어지고 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 작가, 핸들러, 전시안내원, 관람객 등의 인물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물 사이에 잠든 고양이부터, 매일 다르게 쏟아지는 지중해의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들의 그림자까지 제각각의 방법으로 공간을 점유한 방식에 주목한다. 2013년 한국관을 방문했던 한 관람객의 ‘기다리는 것, 호흡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변환하는 상태의 일부와 같았다’는 인터뷰 기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다리는, 호흡하는〉(2024)은 변환의 역사라는 기반 위에 미래에 펼쳐질 전시와 작품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동시에 ‘한국관’의 모든 이미지들이 뒤섞임 속에서 또 서로를 지탱하며 오롯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시점을 상상하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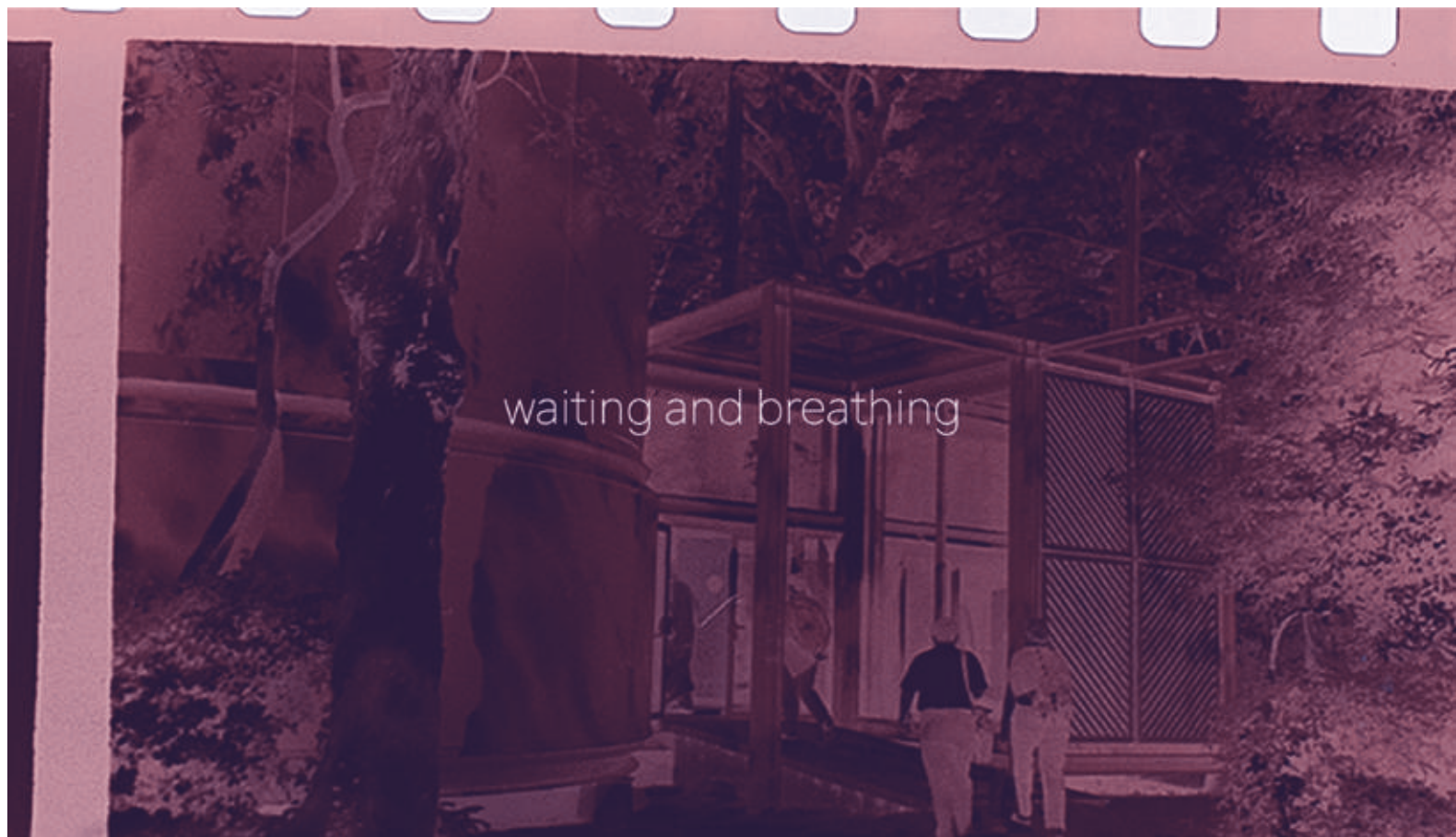
백종관, 〈기다리는, 호흡하는〉, 202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커미션.

Paik Jongkwan creates video works that capture and recontextualize images and sounds through a distinctive approach of archiving and research. Rooted in an examination of the act of observing and its perspectives, his work intricately organizes scenes across multiple dimensions. This approach offers viewers a chance to experience an entirely different concept of time through scenes that emerge inevitably from chance.

Focusing his exploration on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Paik delves into over three decades of its history. In his creative and exhibition processes, Paik observes the diverse occupation of space—from curators, artists, handlers, guides, and spectators to a cat nestled among steel frames and the shifting shadows of trees under the ever-changing Mediterranean sun. Beginning with a record from a visitor to the Korean Pavilion in 2013, who felt their experience was akin to ‘waiting, breathing, and being part of a kind of transformative state,’ the work *Waiting and Breathing* contemplates the anticipation of future exhibitions and artworks, grounded in a transformative history. It also seeks to envision a perspective where all images of the ‘Korean Pavilion,’ though entangled, support and exist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illustrating their interconnected existence.

Paik Jongkwan, *Waiting and Breathing*, 2024.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8min. Commissioned by Arts Council Korea.

Every
Island
is
a
Mountain







아쿠아 알타의 시간

김해주 (싱가포르 미술관 시니어 큐레이터,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관 큐레이터)

한국의 봄에 비해 베니스의 봄은 여전히 추운 날들이 많다. 2022년의 베니스비엔날레 오프닝 주간에도 내내 비가 오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다. 두터운 옷들을 더 많이 챙겨야 하는데, “그래도 4월에는 따뜻할지 모르니까”라며 얇은 옷들을 슈트케이스에 집어넣는다. 일 년 내내 더운 날씨인 싱가포르에서는 두터운 옷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서 챙길만한 것들도 별로 없다. 이번엔 3월 중순부터 전시가 오픈할 때까지 약 5주간을 베니스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의 출장은 흔치 않은지라 챙겼는데도 꼭 뭔가 빠뜨린 느낌이 든다. ‘여권과 지갑만 있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 거의 하루를 꼬박 비행기에서 보내고 베니스에 도착하니 역시나 차가운 바람이 살갓을 스친다. 그래도 싱가포르에 살다 보면 이런 차가운 공기가 그립고 반갑다. 운하에서 올라오는 묘한 냄새와 공장에서 본 섬으로 향하는 보트의 기름 냄새, 안개 사이로 번져서 천천히 드러나는 베니스의 풍경,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이 어림잡아 열 번은 된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숙소는 싱가포르관이 있는 아르세날레와 가까운 곳에 잡았는데, 창문 밖 풍경이 아르세날레 건물일 정도로 가까웠다. 전시 설치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는 코뮤니스트 바가 위치한 그 운하에 면한 길이었었는데, 대문을 열고 나서면 몇 걸음 안에 아르세날레 정문이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싱가포르관을 오가며 전시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 오픈에 비해 일찍 도착한 편이라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베니스의 설치 일정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작품이 밀라노의 세관 심사에 걸려 예정보다 며칠씩 늦어진 것을 시작으로 간단한 물건들의 도착도 한없이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전에 베니스 본

The Time of Acqua Alta

Haeju Kim (Senior Curator at Singapore Art Museum, Curator of the Singapore Pavilion at the 60th Venice Biennale)

Springs in Venice tend to have more chilly days than spring in Korea. I remember shivering the entire opening week of the Venice Biennale in 2022, as it was another cold and rainy week. It would make sense to bring more of thicker clothing, yet I found myself packing thin clothes in hopes that the weather will be warm and mild, given it is April. Besides, it is hot year-round in Singapore, so I did not have all that many thick clothing anyway. This year, my stay in Venice was to last five weeks, from mid-March until the exhibition opening. A business trip this long is rare, so I made sure I packed everything I would need, but it still felt like I forgot something. I left home thinking, 'It's all good as long as I have my passport and wallet.' After spending almost an entire day on the plane, I stepped foot on Venice; it was no surprise that the city greeted me with cold wind brushing against my face. Living in Singapore makes you miss and find pleasant this kind of cold and crisp air. The peculiar smell from the canal, the smell of oil on the boat ride from the airport to the main islands of Venice, and the landscape that slowly emerge from the mist. I must have been to Venice around ten times now, yet I found these both familiar and amusingly new every time. As for lodging, I booked a place close to the Arsenale, where the Singapore Pavilion is located—in fact, it was so close that the building you see outside the window was the Arsenale itself. The famous 'Communist Bar', where people would gather for beer once they have finished installing their exhibitions, was located on a street just off the canal by my place, and the main entrance to the Arsenale was just steps away from my front door.

Preparations for the exhibition began the day following arrival, as I went back and forth between the Singapore Pavilion and where I was staying. I expected there to be enough time for installation given that I arrived relatively early before the exhibition opening, but of course, installation did not roll smoothly in Venice. It started with the artworks arriving days later than expected due to customs

전시에 참여했거나 국가관에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그 끝없는 기다림이 사실이었다. “그럴 땐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냥 바에 가서 술이나 마시는거지.” 필요한 장비들 생각나는 대로 다 챙겨가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겠어, 가서 사면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들은 조언은 다음 번 베니스에 일하러 가게 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해줄 말이 되었다. 베니스는, 특히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기간의 베니스는 그 어느 전시 준비의 상황과도 다르다. ‘로켓 배송’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며 전시를 준비해온 한국 사람에게 운하로 이루어진 도시 베니스에서의 전시 설치는 특별한 마음의 준비와 고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뤄지는 일정과 불확실한 대답들 속에서도 예정된 시간이 되면 전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가고 있었다. 그건 싱가포르뿐 아니라 다른 국가관들 그리고 아르세날레의 본전시도 마찬가지였다. 오픈 날이 되면 전시는 어떻게든 열리게 되어있는 것. 베니스에서의 전시 준비 과정은 여러 면에서 특별했다. 일단 전 세계의 수많은 작가들, 큐레이터들이 이 시기에 한 도시에 모여서 전시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이 강렬했다. 텅 빈 공사장 같았던 아르세날레 휴길 위로 작품들을 담은 크레이트들이 하나 둘 오고 가고, 여기저기서 가벽을 세우기 시작하다 페인트를 칠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만드느라 나무를 잘라 조각을 하는 등등 이런 저런 전시 만드는 노동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난다.다. 베니스의 경우 국가관에 참여하는 각국의 작가들, 관계자들이 한 도시에 모여 머물면서 작업하다 보니 오가면서 여러 지인들도 만나게 되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오가며 서로 눈길을 주고 받다가 이야기도 나누게 된다. 아르세날레 건물을 관리하는 비엔날레 직원들,

건축사들, 전시 준비 기간에 잠깐 작가들을 돕는 현지의 대학생 पार्ट타이머들, 목수, 장비, 운송 업체, 베니스 현지 에이전트 등등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하 도시의 느리고 쉽지 않은 작업 조건 속에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전시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전시가, 미술이 무엇이었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토록 노동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슬며시 올라온다. 그러는 나 역시 한편에서는 커튼의 재질, 페인트의 미묘한 색상, 프린트의 상태 등을 살피며 작은 디테일로 제작자들을 닦달하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에는 특유의 국가관과 수상의 제도가 있어서 경쟁 구도가 강할 것 같지만, 막상 전시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부담이나 상에 대한 긴장 같은 것을 느낄 시간이 없다. 이런 조건 안에서도 시간 안에 전시가 무사히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전시를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집중하게 된다. 한 달여 시간 동안 도시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시를 만들고 있는 그 공동적 노동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경쟁 심리보다는,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느슨한 공동체 감각 같은 것, 소속은 다르지만 하나의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 든다. 이른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근처 카페에서 주스와 커피를 사는 이들,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상기된 얼굴, 저녁의 비아 가리발디의 바들에서 비워지는 칵테이 접시와 술잔들을 마주칠 때 일어나는 상호 공감 같은 것이다. 전시 오픈 일주일 전쯤 각 국가관의 여성 큐레이터 자발적으로 모여 약 스무 명 정도가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진 일이 있었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다 보니 처음 만나는 이들 사이에도 동료로서 공감이

clearance delays in Milan, and even the delivery of small items took a long time. All the endless waiting I had heard about from tho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Venice Biennale, either in the main exhibition or one at a national pavilion, was in fact true. They had told me, “There is really nothing you can do when that happens. Just go to a bar and drink,” or “Bring with you any and all equipment you can think of.” When I was told these things, I frankly thought, ‘Why all the hassle? If I end up needing something, I’ll just buy it in Venice,’ but those advice became the very advice I would give to those who are to work in Venice in the future. Preparations for an exhibition opening in Venice is unlike any exhibition preparation, especially during the days leading up to the Biennale. To Koreans used to preparing exhibitions with items they need delivered to their doorsteps via “rocket delivery (same day or next day delivery),” exhibition installation in the city of canals calls for a high level of patience and a special mindset. Despite the delays and uncertainties, our exhibition came together as the opening approached. This was not the case for just us, but also for other national pavilions and the main exhibition at the Arsenale. The exhibition would come together in one way or another once the opening day arrives. The course of exhibition preparations for Venice was special in many ways. First, seeing many artists and curators convene in one city at the same time of the year and bring their exhibitions to life wa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It was interesting to witness various kinds of exhibition-related work taking place all around, from crates being transported on the unpaved dirt roads of the Arsenale that resembled empty construction sites to people building temporary walls and painting them. In Venice, you are bound to bump into friends and even start making friends with strangers as they become familiar acquaintances, since artists or other members of national pavil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stay and work in one small city. From the Biennale staff managing the Arsenale

buildings and architects discussing matters with the Biennale office to the local college students assisting artists part-time during exhibition installation, carpenters, equipment personnel, art handling and transportation companies, and local agents in Venice, more people join the busy crowd as weeks pass and the opening nears. Watching so many people spend fortunes to put up exhibitions under the slow and challenging circumstances of the Canal City made me wonder what it is about exhibitions and art that makes all these people work so hard. Yet at the same time, I was no different, nagging workers to get the pettiest details right, like the material of the curtain, subtle differences in the tone of paint, or how the prints look. One would assume competition to be fierce at the Venice Biennale, given its unique system of national pavilions and awards,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no time to feel pressured about representing a country or nervous in hopes of being named a winner when you are busy trying to put up an exhibition. Your attention is solely on the hope that the exhibition will come together in time regardless of the challenging conditions and that you want to make it a good one. Perhaps that is because you are influenced by the commonality that everyone is working on their exhibition at various places around the city for almost a month. This might sound rosy, but a loose sense of community—the feeling that we are part of a society though we belong in different groups—is felt more strongly than a sense of competition. It is similar to the sense of mutual empathy witnessed when you see people buying juice and coffee at local cafes before starting the day early in the morning, the blushed and nervous faces of those you run into at restaurants at lunch, and the cicchetti plates and drinkware being cleared at bars on Via Garibaldi in the evening. Just about a week before the Biennale opened, around 20 women curators representing various national pavilions voluntarily got together over dinner. As we shared each of our situations, a sense of empathy as colleagues arose,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전시를 준비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국가관은 각 국가가 가진 현대미술의 가장 뛰어난 측면을 소개하거나 각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로 생각하기 쉽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현대미술 전시에 비해 자국 내외의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오프닝 주간에는 시간 단위로 화려한 행사와 파티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폭풍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작가와 큐레이터에게는 작품과 전시를 온전히 대면하고 집중해야 하는 무겁고 고요한 시간이 남는다는 점에서 어느 전시와도 다를 것이 없다. 이 전시가 끝나도 다시 똑같이 어떤 작업/전시를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되 돌아온다. 베니스 국가관은 이런 시지프스와 같은 삶을 사는 전 세계의 현대미술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모아주는 곳이다. 지구 곳곳에서 각자 몽상을 벌여 오던 이들이 베니스라는 특이한 장소에 뚝 떨어져서 센티미터 단위의 크기 결정이나, 컴퓨터 모니터로는 잘 식별되지 않는 색의 결정에 고심하고, 오늘 점심 먹고 사라진 카펫 업자가 과연 내일 돌아와서 카펫 설치를 마무리 해 줄까를 걱정하는 그런 곳이다. 탈세계화를 너머 더욱 더 국수주의로 향해가는 현재에 그나마 이렇게 세계의 조각들을, 몽상의 꿈을 모을 수 있는 장소로 존재한다는 것이 경쟁적으로 탄생한 베니스 국가관의 긍정적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관은 더 지구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것, 통합적인 문제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던지고 질문을 제시하는 일종의 시각적 포럼과 같은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각 국가관, 전시들이 만든 모습이

시계 뒷면의 부속들처럼 맞물려 지금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어떤 비전을 향해 연결될 수 있다면 여전히 비엔날레라는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베니스비엔날레의 빛남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ven among those who met for the first time. It is this kind of experience that left lasting marks in my memory among all things done in the days leading up to the exhibition.

The national pavilions of the Venice Biennale can be easily mistaken for places that showcase the most outstanding aspects of contemporary art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or as places that demonstrate the identity of each country. Participation in the Venice Biennale draws more atten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compared to other contemporary exhibitions, and the opening week is packed with glamorous events and parties that take place around the clock. Nevertheless, the Biennale i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exhibition in that at the bottom of it all, the artists and curators must work through the silent and uneasy time of confronting and focusing on their art and exhibitions. When the Biennale is over, we go back to where it all started and ponder the same questions once again: What kind of art/exhibition must be made, how should they be done, and why? The national pavilions at the Venice Biennale are places where the contemporary art workers around the world living the life of Sisyphus gath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y are where those who had been daydreaming in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are suddenly placed in a unique setting called Venice, trying to make decisions about sizes at the matter of centimeters or colors hard to tell on computer monitors and being concerned about whether the carpet guy who disappeared after lunch will return tomorrow to finish the installation. In today's world that has begun to drift away from globalization and is steering toward nationalism, the national pavilions' identities as places where different fragments of the world or dreams come together can serve as the positive heritage of these institutions once born of competition. That is why I thought it is ideal to see the national pavilions collectively serve as a visual forum of a kind, with each pavilion presenting its unique story and raising different questions on planetary, communal, and interconnected issues.

If the stories offered by each pavilion and exhibition can fit together like different parts of a timepiece, ultimately connecting to a vision that can provide a critical reflection on today's world, I believe it is meaningful to maintain this resource we call the Venice Biennale and gaze at its brilliance.

디어 오션 프렌즈

조주현 (프로그램 기획자 /
드리프팅 커리큘럼 디렉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의 연계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아르코미술관이 국내 기반 다학제적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 드리프팅 커리큘럼과 공동 기획, 베니스 기반 해양 생태 연구 및 창작 지원 기관 TBA21 아카데미의 오션 스페이스와 협업으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본 담론 프로그램은 “해양적 사고, 역사, 기후, 재난, 데이터, 감각적 경험”을 키워드로,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식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베니스 지역의 생태 환경적 문제의식을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해역의 문화적, 역사적 내러티브와 연결하여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기획되었다.

한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 큐레이터, 환경운동가 12인의 전문가(팀)을 초청해 렉처 퍼포먼스, 강연, 스크리닝, 토론 등으로 구성된 <디어 오션 프렌즈>는 공동의 지평으로 (탈)인류세 ‘바다’에 접근했다. 바다와 섬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국가 간 경계에 기반한 대륙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혁신적인 사고와 실천을 위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1부와 2부에서 각각 ‘아시아 미래주의’와 ‘예술 제도 및 비엔날레’를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참여자들은 아시아 ‘몬순 기후대’의 통시적 공간을 횡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는 큐레이토리얼 전략을 공유하며 역사적 착취와 현대 환경 문제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태평양 해역과 베니스 지역의 여러 섬에서 어떠한 창조적 연대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Dear Ocean Friends

Juhyun Cho (Program Director /
Director of Drifting Curriculum)

Dear Ocean Friends, a public discursive program tied to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Every Island is a Mountain*, was held over the course of two days, from June 26 to June 27, in Venice, Italy. The program was organized by Arts Council Korea, co-curated by ARKO Art Center and multidisciplinary curatorial research platform Drifting Curriculum based in Korea, and hosted in collaboration with Ocean Space, a Venice-based collaborative platform for ocean imagination and ocean action established and led by TBA21-Academy. Focusing on the keywords “oceanic thinking, history, climate, disaster, data, and sensual experience,” this public discursive program was designed to develop new ways of thinking and offer practical alternatives regarding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Venice that face serious crisis caused by rising sea levels and land subsidence by considering the challenges with respect to cultural and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waters in Asia,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For *Dear Ocean Friends*, we invited a group of 12 experts based in Korea, Europe, Southeast Asia, and Oceania, including international scholars, artists, curator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working on the global stage, for lecture performances, on-site lectures, screenings, and discussions, taking a collective approach to the “ocean” of the (post) Anthropocene. Recognizing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oceans and islands provides grounds for innovative thinking starkly different from continental thinking based on national boundaries and reorganization of space for active practice. In-depth discussions on “Asian futurism” and “art institutions and biennials” took place, each of which were the key ideas of sections 1 and 2, respectively. Participants shared curatorial strategies that cut across the diachronic space of the “Monsoon Climate Zone” in Asia and reshuffle toward more sustainable future scenarios as they discussed the possibilities for solidarity between the Venetian islands and the Asia-Pacific region

이러한 협업과 실천적 연대의 장이 ‘베니스’,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 배경은 팬데믹 이후 예술계가 비엔날레와 미술관 등 예술 제도를 형성적 사건의 틀로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과 관련된다. 1895년에 시작되어 130년의 시간동안 세계 미술계의 떠오르는 새로운 사조들을 조명해온 베니스비엔날레는 전쟁과 문화 식민주의, 정치적 저항의 바람,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인류학적 사건들에 반응하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해왔다. 최근의 비엔날레는 근대성을 향한 열망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했던 긴장 속에서 연속되었던 국가간 경쟁과 환희, 남용 등의 역사적 찌꺼기를 벗어 던지고, 해방적 사회와 생태학적 목표를 위해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막다른 길에 섰다. 탈식민적 내러티브에 기반한 연대와 협업은 그 대안으로 선택된 주요한 전략이다.

〈디어 오션 프렌즈〉는 ‘섬’의 관점에서 인류세를 바라보고 ‘해양적 사고’로의 인식 전환을 창조적 연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안하며, 동시대 예술을 인류세 사건의 출현과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문화적 텍스트로 읽고자 한 시도였다. 1부 ‘몬순 미래주의: (탈)인류세 아시아 미래주의’는 TBA21-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오션 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지구적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해역의 암묵적, 명시적 상호 작용이 ‘몬순기후’라는 시공간 내에서 출현해 온 현상을 과학적,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포착하고자 했던 첫 날 프로그램은 대만과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이자 문화 연구자인 장치중의 렉처 퍼포먼스 ‘몬순의 북쪽 확장’으로 포문을 열었다. 섬에서 자란 자신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적 리서치를 전개해 온 작가는

섬 지역 사람들이 갖는 날씨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 불안, 불편한” 체감이 몬순 기후대 동아시아 지역의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세계화와 에코 모더니즘의 개발 아젠다를 수용하게 만들었는지 추적했다. 또한 에어컨으로 조절되는 온습도가 “이상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비원시적”인 상태라는 근대적 상상력에 의문을 던지며, 표준화된 기후/사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어진 강연 ‘생명, 회복, 평화를 찾아서: 인류세 한국 바다 이야기’에서 인류학자 백영경은 제주도를 비롯한 태평양과 동아시아 섬 주민들의 삶이 군국주의, 식민지화, 탈식민지화의 역사적 맥락과 깊은 연관성을 있음을 강조했다. 수많은 역사적 흔적들로 얼룩져 있는 한국 바다와 섬의 조건을 재고함으로써, 인류세 위기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한국의 시각 연구 밴드인 이끼바위쿠르르의 〈해초이야기〉가 스크리닝 되자, 베니스의 오션 스페이스 공간에 제주 하도 해녀 합창단의 ‘제주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오랜 기간 마이크로네시아와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 머물며 숲과 바다의 생태계에 놓여있는 역사의 흔적을 포착하고 태평양전쟁과 식민주의 잔재에 대해 탐구해왔다. 제주도의 전쟁과 식민의 시간들을 지켜온 해녀 공동체가 거칠고 긴 호흡으로 부르는 아리랑은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느끼고, 바다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드러내며 태평양 섬의 역사와 시간,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오션 스페이스의 전시와 깊은 공명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편, 이번 담론 프로그램의 베니스 현지 협업 기관 TBA21 공동 설립자이자 아트 디렉터인 말커스 레이만은

impacted by historical exploitation and contemporary environmental issues.

How such platform of collaboration and practical solidarity became significant in the context of “Venice” and “the Biennale” has to do with the art world beginning to understand art institutions such as biennials and museums as frameworks of “planetary events” since the recent pandemic. Over the course of 130 years since the first exhibition in 1895, the Venice Biennale has shed light on emerging ideas and trends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serving as a beacon that showed where we stand and where we should be headed by responding to major anthropological events around the world, from war and cultural colonialism to waves of political resistance, and most recently, the COVID-19 pandemic. Recently, the Biennale has put behind historical vestiges such as strong aspirations for modernity,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hat continued amidst the tension to move away from it, joy, and abuse. It now stands at a dead-end, hoping to find a way to reorganize the world for a liberating society and the achievement of an ecological goal we must reach. Solida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postcolonial narrative is the main strategy selected as today’s alternative.

Dear Ocean Friends w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Anthropocene from the perspective of “islands,” offer the shift toward “Oceanic Thinking” as a method for creative solidarity, and read contemporary art as a cultural text that can trace the emergence and influence of Anthropocene events. Section 1 entitled, “Monsoon Futurism – (Post) Anthropocene Asian Futurism” took place at Ocean Space run by the TBA21-Academy. Programs of the first section that sought to explore various phenomena in the space-time called “Monsoon Climate” created by tacit or implicit interactions between the Asian waters,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with emphasis on scientific and historical incidents started with *Monsoon Northwards*, a lecture performance by Chih-Chung Chang, a visual artist and

cultural researcher based in Taiwan and the Netherlands. Chang, who has been conducting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his background of having been raised on an island, traced how the islanders’ inherent sense of “fear, anxiety, and discomfort” toward weather led to their acceptance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agendas of eco-modernism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East Asia situated in the monsoon climate zone. He also questioned modern imagination claiming that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led by air conditioning systems is the state of “ideal residence and non-primitive,” revealing the paradox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the standardized climate/society.

In the following lecture, *In Search of Life, Repair, and Peace: The Story of the Korean Ocean in the Age of Anthropocene*, anthropologist Young-Gyung Paik highlighted that the life of islanders inhabiting Jeju-do and other islands in the Pacific and East Asia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historical context of militarism,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She also argued that we can cope with the crisis of the Anthropocene and offer a new approach for overcoming the challenge by re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Korean seas and islands tainted with countless traces of history. Another part of the program was the screening of *Seaweed Story*, a video by ikkibawiKrrr, a Korean visual research band who spent a long time on small islands of the Pacific like Micronesia to capture marks of history left on the ecology of forests and oceans and studied the remnants of the Pacific War and colonialism. When the video started playing, a recording of *Jeju Arirang* performed by the Jeju Hado Haenyeo Choir echoed throughout the venue. The rough and long breaths sensed in the song sung by the community of haenyeo (women divers in Jeju, Korea) who withstood times of war and colonization on their island revealed how they experience the ocea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y have with it, beautifully crafting a moment of deep resonance with Ocean Space’s exhibition as a

2016년부터 다학제적 연구자 및 예술가들과 협력했던 큐레토리얼 펠로우십 프로그램 ‘더 커런트’를 소개했다. 여러 학문 분야 사람들을 초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제도를 여행하며, 현지의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과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을 통해 탐구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탈로이 하비니가 기획해 현재 진행 중인 전시 《Re-Stor(y)ing Oceania》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심해 채굴을 허용하여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해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통 문화와 지식을 플랫폼 삼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파푸아뉴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에서 ‘더 커런트’의 첫 번째 탐험을 이끈 우테 메타 바우어는 ‘기후위기와 문화적 손실’이라는 공동연구에 대한 발표에서 다국적, 다세대, 다학문적 접근으로 전통적 지식과 현대 과학 지식을 통합하는 연구를 통해 예술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제간 접근 방법이 표면적 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백영경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적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구체적인 맥락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연대의식이 부족하거나 문제에 대해 무지해서가 아니며, 그러한 활동이 이들의 역사, 공동체, 일상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와 예술가 모두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복잡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불편한 진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적으로 예술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비엔날레는 도시 전체가 예술 이벤트의 대상이 되어 특수한 커뮤니티, 장소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예술 제도이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가 진행되고 있는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진행된 2부 ‘(탈)인류세 예술기관 및 제도: 그 밖의 세계를 향한 재구상’에서는 예술계 기후 행동으로서 지역 비엔날레 및 뮤지엄의 혁신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비엔날레가 탈식민주의적 큐레토리얼 실천을 통해 세계를 보존하고 변혁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2부 프로그램은 도나 해러웨이가 내레이션을 하고, ‘디자인 어스’ 팀이 제작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방 안의 코끼리〉 상영과 함께 시작했다. 이 영상은 환경 정의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한 코끼리의 이야기를 다루는 에코 페미니즘 우화로 뮤지엄이 추출주의적 환경 역사와 얽혀 있는 다양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고한다. 영상 마지막에 해러웨이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묻는 질문을 이어받아 ‘뮤지엄 형성: 인류세 사건의 시간 표시’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시작한 박물관학자 콜린 스티어링은 모든 비엔날레가 현재 세계를 구축한 물질적 관행에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기여한 “인류세 비엔날레”였음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주론 철학자 니콜라이 피도로프의 문장을 인용하여 1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문화 기관으로 존재해 온 베니스비엔날레가 모든

message of comfort for the history, time, wounds and pain of the Pacific island.

Markus Reymann, co-founder and art director of TBA21 in Venice that cooperated with us on this public discourse program, introduced a curatorial fellowship program called “The Current,” which started in 2016 in collaboration with multidisciplinary researchers and artists. The fellowship program invited experts from various disciplines for in-depth research and on-site investigations in Oceania and the Pacific Islands to explore sustainable ways of living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local area through an artistic lens. Taloi Havini, a participating artist of the program, curated the exhibition *Re-Stor(y)ing Oceania* that is currently on view, where she used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of Oceania as a platform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the major impacts on the marine ecosystem caused by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decisions to permit deep-sea mining. The first expedition of “The Current” took place from 2015 to 2017 in Papua New Guinea, French Polynesia, and Fiji, and Ute Meta Bauer, the leader of the first edition of the program, gave a lecture titled, *Climate Crisis and Cultural Loss* on their collective research at *Dear Ocean Friends*. The lecture showed that art can promote social change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research that integrates traditional knowledge and contemporary science through multinational, multigener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panel discussion that followed was an in-depth dialog concerning the strategies needed to ensure that such multidisciplinary approach does not end up as a mere display of solidarity at the surface level. Young-Gyung Paik pointed out that we must be vigilant about “the loss of specific context” as we notice growing awareness of global issues and more active international solidarity. By this, she meant that the reason local residents do not stand up for action is not because they lack sense of solidarity nor because they are ignorant of the pending issues, but rather

because those actions disregard various relationships they have with their history, community, and everyday life. Consequently, Paik argued that researchers and artists alik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s and complexity of the regions of their interest, thin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em and drawing close links to the everyday life with a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trying to push and console the uncomfortable truth. Optimistically speaking, art is capable of serving as this very connecting link and building emotional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Biennials are critical art institutions, given that entire cities serve as subjects of an art event and intervene in the placeness or in the affairs of special communities. Section 2 of *Dear Ocean Friends* took place under the theme “(Post) Anthropocene Institutions: Is Another World Possible?” at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where the exhibition celebrating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entitled *Every Island is a Mountain* is ongoing. Here, the participants reviewed innovative cases of local biennials and museums as climate actions in the arts and explored the potential of biennials as active players in conserving and revolutionizing the world through postcolonial curatorial practice.

Section 2 of *Dear Ocean Friends* began with the screening of the animated film *Elephant in the Room* narrated by Donna J. Haraway and produced by Design Earth. The animation is an eco-feminist parable of an elephant acting for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crisis, rethinking the various ways museums are intertwined with the extractive history of the environment. In the last part of the video, Haraway leaves us with the question, “How much time do we have left?” Museologist Colin Sterling’s lecture *Museum Planet: Marking Time in the Anthropocene Event* took off right from Haraway’s question, and he pointed out that all biennials were “Anthropocene biennials” that silently and implicitly contributed to the material practice

사람에게 당대 최고의 예술작품을 대하는 것과 같은 관심과 배려를 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특정 사물이나 예술품 이외의 것들로 관심과 관심의 궤도를 확장할 수 있을지 되물었다.

베니스의 해양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단체 ‘위아이어베니스’의 아트 디렉터 엘레오노라 소브라니는 ‘살아있는 도시 탐구’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비엔날레와 개회 도시의 관계와 지역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류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의 회생 전략으로 문화행사가 베니스의 독특한 역동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2023년 헬싱키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호아시아 크리샤는 자신이 기획했던 에디션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를 사례 연구로 삼아 시급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비엔날레의 역할과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선 비엔날레 모델의 재구상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산업주의가 낳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빠른” 논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진보의 타임라인에 반하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함께 일하며,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둘러봄으로써 어떻게 파괴적인 진보에 도전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자리였다.

이어,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이 2024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인 필립 피로트, 베라 메이와 함께 ‘어둠에서 보기: 비엔날레를 통한 대안적 계몽 탐색’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탈중심적, 탈위계적 비엔날레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서로 타진하며 대안적 큐레이터쉽의 방법론으로 해적과 불교 공동체의 겸손과 지략을 지속가능한 제도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깨달음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은유적으로 탐구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후 체제에서 비엔날레가 장기적이고 영향력 있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본질적으로 한시적인 비엔날레 전시가 공공정책이나 커뮤니티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패널들은 비엔날레가 특정 지역에 위치해 매우 지역적으로 관련성 있고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엔날레는 한시적이지만 글로벌 예술 제도로서 매우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술을 매개로 형성된 여러 차원의 관계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술적 개입과 도전이 여전히 위선적이거나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인정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인류세 이후의 비엔날레, 비엔날레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호아시아 크리샤는 “산 전체를 옮기려 하지 말고, 좀 더 내재적이고 완만하게 이동”하기 위해 작은 행동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제안했다. 비엔날레가 일하는 방식과 구조를 바꾸고, 업무 프로세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 더 장기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상상하고, 격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역사회와 예술가를 초대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부터 재료, 재활용, 그리고

that constructed the world we live in today. He quotes Russian cosmist Nikolai Fedorov to ask if the Venice Biennale, which has been the most prestigious cultural institution in the world over the last 130 years, has extended its interest and consideration to everyone with the same attitude it adopts in working with top artworks of the time and how we might expand our interests and the scope of our interests to things that are not specific objects or works of art.

Meanwhile, Eleonora Sovrani, director of We are here Venice,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conservation of the Venetian lagoons and the city of Venice, gave a presentation entitled *Exploring the Living City*. Sovrani used the analysis of various anthrop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biennials and the cities that host them, as well as regional trends, to stress the potential of cultural events as revival strategies for city development that can enrich the unique dynamic of Venice. Up next was Joasia Krysa, curator of the Helsinki Biennial 2023, who turned to *New Directions May Emerge* (the edition she curated) as a case study to explore the role of biennials in addressing urgent glob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imagining a new model for biennials that go beyond existing paradigms. Her presentation allowed us to offer alternatives for the logic of “the bigger, better, and faster” born of industrialism, or think about how we can challenge destructive advancements by gather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and slowing down to take note of what is around us instead of going against the timeline of progress.

Next was a talk between director of ARKO Art Center Jade Keunhye Lim and co-artistic directors for the Busan Biennale 2024 Philippe Pirotte and Vera Mey on the theme *Seeing in the Dark: Exploring Alternative Enlightenment through the Biennale*. As they examined the directions in which we could hope to see decentralized and nonhierarchical biennials, they argued that the humility and resourcefulness of pirate and Buddhist communities should

be adopted as the sustainable institutional values of alternative curatorial methodology. By this, they meant that change is possible when we explore alternative perspectives about enlightenment metaphorically by abandoning previous identities and delving into the uncharted world.

Then, what kind of strategies are needed, specifically, for biennials to facilitate long-term and influential cooperation in the new climate regime? What are the ways in which biennials, temporary by nature, can influence public policies or community activities and promote long-term social change? In the final group discussion, the panelists emphasized that biennials can be very relevant and important interventions in their respective areas because of their regional specificity. Biennials are temporary, yet since they are tremendously powerful as global art institutions, they are important measures that can draw attention to and address urgent issues in the region. Relationships of various dimensions built on art can speak upon great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globally. However, we must also accept critical voices arguing that such artistic interventions and challenges can still be handled in hypocritical or superficial manners. If we truly and seriously wish to seek biennials in the post-Anthropocene period, or the future of biennials, how might we address its limitations in a harmonious way?

Joasia Krysa proposed that we change the small things first “to make a more inherent and gradual move rather than try to move the entire mountain.” By this, she meant that it is important to change the structure and way biennials work, reconsider the relations of the work process, imagine building a longer-term and scalable platform, and try to invite local societies and artists so they can go beyond being an event held every other year and think about sustainability. The idea of appointing an environmental coordinator who can handle waste and material management, recycling, and even think more holistically about the work process with an environmentalist’s view was also

기관의 일부로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코디네이터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엘레오노라 소브라니는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가는 “시간”의 문제를 강조했다. 협력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이자 사명,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른 파트너들에게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 집단, 창작자들이 해당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도시와 강한 관계와 관계를 맺고, 전시를 위해 작품을 운송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작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개최된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전시 주제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에 대해 총감독이었던 랄프 루고프는 성명서에서 예술이 정치영역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이 난세에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술이 세상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잠재적인 세계와 변화의 형태에 영감을 주거나 모델링하고 예시하는 것이기에 (탈)인류세 예술기관은 항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들간의 열띤 담론의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렴되었다. 세계를 보존하고 변혁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 비엔날레는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박물관학자 콜린 스틸링의 언급처럼, 무엇보다 미술계 내부의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 여전히 비엔날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 극도로 분리되어 있다. 예술계가 이것을 진지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이 세계를 보존하고 변혁을 매개하며 인간 및 비인간 주체와의 창조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raised. Meanwhile, Eleonora Sovrani stressed the issue of “time” in which we create a new process with the community. She claimed that cooperators need to collectively draft a plan for their shared goal, mission, and activity and that this would require dedicating a lot of time to adjust to and work with different partners. Sovrani also argued that it is better to encourage artists, groups, and creators to stay extended periods in the cities where the biennials take place, build strong ties with them, and make their art on-site instead of transporting their works from elsewhere.

In the curatorial statement for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the theme and title of the Venice Biennale held in 2019 just month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rtistic director Ralph Rugoff wrote that though art does not wield any power in politics, it can at least serve as a kind of a guide for how to think and live in “interesting times.” Given much of what we believe art must do in the world is inspire or provide a model or example of the potential world and forms of changes, (Post) Anthropocene art institutions must discuss change at all times. As we wrapped up two days of enthusiastic discourse, our conclusion eventually boiled down to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ctions should biennials take to become active agents that conserve and revolutionize the world? All agreed that we must break away from elitism present within the art world, as argued by Colin Sterling. Still, the Biennale remains extremely disconnected from the realities of the lives of many marginalized people. Only when we truly realize this can art truly save the world, channel change, and foster creative solidarity with humans and non-human beings.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탈리아 베니스 오션 스페이스(Ocean Space)와 몰타기사단 수도원(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에서 개최된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Dear Ocean Friends)>는 시급한 글로벌 문제를 대면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비엔날레의 역할과 모델을 재구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렉처 퍼포먼스(강연, 토론, 스크리닝 등)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학제간 교류를 통해 해수면 상승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베니스의 지역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실존적 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큐레토리얼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
TBA21-아카데미 오션 스페이스

기획
아르코미술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드리프팅 커리큘럼

지원
러쉬코리아

1부 **문손 미래주의: (탈)인류세 시대 아시아 미래주의**
일시: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오션 스페이스

14:00-14:05 프로그램 소개: 조주현
14:05-14:10 환영 인사: 임근혜
14:10-14:30 렉처 퍼포먼스: 장치중, “문손의 복쪽 확장”
14:30-15:00 강연 1: 백영경, “생명, 회복, 평화를 찾아서: 인류세 시대의 한국 바다 이야기”
15:00-15:20 강연 2: 말커스 레이만, “오세아니아 탐험: 관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15:20-15:30 휴식시간
15:30-16:00 강연 3: 우테 메타 바우어, “기후 위기와 문화적 손실”
16:00-16:10 스크리닝: 이끼바위쿠르르 <해초 이야기>(2022)
16:10-16:50 토론: 백영경, 우테 메타 바우어, 조지은(이끼바위쿠르르) - 사회: 조주현
16:50-17:00 질의응답

2부 **(탈)인류세 예술기관 및 제도: 그 밖의 세계를 향한 재구상**
일시: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몰타기사단 수도원

14:00-14:05 프로그램 소개: 조주현
14:05-14:10 환영 인사: 임근혜
14:10-14:20 스크리닝: 디자인 얼스, <방안의 코끼리>(2021)
 나레이션: 도나 해러웨이
14:20-14:50 강연 1: 콜린 스티어링, “뮤지엄 행성(Museum Planet): 인류세 사건의 시간 표시”
14:50-15:20 강연 2: 엘레노라 소브라니, “살아있는 도시 탐험하기”
15:20-15:30 휴식시간
15:30-16:00 강연 3: 호아시아 크리사,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
16:00-16:20 대담: 필립 피로트 & 베라 메이, 임근혜, “어둠에서 보기: 비엔날레를 통한 대안적 계몽 탐색”
16:20-16:50 토론: 콜린 스티어링, 엘레노라 소브라니, 호아시아 크리사, 임근혜 - 사회: 조주현
16:50-17:00 질의응답

The discourse program *Dear Ocean Friends*, held on June 26th and 27th at Ocean Space and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Venice, Italy, i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designed to confront urgent global issues and reorganize the role and model of the Biennale beyond the existing paradigm.

This discourse program, consisting of lecture-performances (presentations, discussions, screenings, etc.) shares curatorial strategies and experiences to highlight the urgency of an existential crisis and develop new thinking in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in Venice, where the issue of sea level rise is becoming increasingly acute through interdisciplinary exchang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In Collaboration with
TBA21-Academy at Ocean Space

Co-curated by
ARKO Art Center (Arts Council Korea) &
Drifting Curriculum

Supported by
LUSH

Day. 1
Monsoon Futurism - (Post) Anthropocene Asian Futurism
Time: 2 - 5pm, Wednesday, 26th June, 2024
Venue: Ocean Space, Campo San Lorenzo, 5069 30122, Venezia

14:00-14:05 Introduction: Juhyun Cho
14:05-14:10 Greetings: Jade Keunhye Lim
14:10-14:30 (Pre-recorded) Lecture Performance: Chih-Chung Chang, *Monsoon Northwards*
14:30-15:00 Lecture: Young-Gyung Paik, *In Search of Life, Repair, and Peace: The Story of the Korean Ocean in the Age of Anthropocene*
15:00-15:20 (Pre-recorded) Talks: Markus Reymann, *Navigating Oceania: Programs Built on Relations*
15:20-15:30 Break Time
15:30-16:00 Lecture: Ute Meta Bauer, *Climate Crisis and Cultural Loss*
16:00-16:10 Screening: ikkibawiKrr, *Seaweed Story (2022)*
16:10-16:50 Discussion: Young-Gyung Paik, Ute Meta Bauer, Jieun Cho (ikkibawiKrr) - moderated by Juhyun Cho
16:50-17:00 Q&A

Day. 2
(Post) Anthropocene Institutions - Is Another World Possible?
Time: 2 - 5pm, Thursday, 27th June, 2024
Venue: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3252 Castello, 30122 Venezia

14:00-14:05 Introduction: Juhyun Cho
14:05-14:10 Greetings: Jade Keunhye Lim
14:10-14:20 Screening: DESIGN EARTH, *Elephant in the Room (2021, Narrated by Donna J. Haraway)*
14:20-14:50 Lecture: Colin Sterling, *Museum Planet: Marking Time in the Anthropocene Event*
14:50-15:20 Presentation: Eleonora Sovrani, *Exploring the Living City*
15:20-15:30 Break Time
15:30-16:00 Presentation: Joasia Krysa, *New Directions May Emerge*
16:00-16:20 (Pre-recorded) Talks: Philippe Pirotte & Vera Mey, Jade Keunhye Lim, *Seeing in the Dark: Exploring Alternative Enlightenment through the Biennale*
16:20-16:50 Discussion: Jade Keunhye Lim, Joasia Krysa, Eleonora Sovrani, Colin Sterling - moderated by Juhyun Cho
16:50-17:00 Q&A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 Day 1,
우테 메타 바우어 강연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The discourse program *Dear Ocean Friends*,
Day 1, Lecture: Ute Meta Bauer,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 Day 1. 조주현
프로그램 진행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The discourse program *Dear Ocean Friends*,
Day 1, Moderating: Juhyun Cho,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 Day 2,
좌측부터 호아시아 크리사, 콜린 스텔링,
임근혜, 엘레노라 소브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The discourse program *Dear Ocean Friends*,
Day 2, From left: Joasia Krysa, Colin
Sterling, Jade Keunhye Lim, Eleonora
Sovrani,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모든 섬은 산이다》 영상 가이드 투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년 다시/대신 읽기〉
캡처 이미지

Captured image from the video guide tour
of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titled *Far and Near: 30 Years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년 다시/대신
읽기〉*는 《모든 섬은 산이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전시 안내 영상이다.

뉴욕시립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철학과 큐 리 교수는 베니스 현지
큐레토리얼 학교(School for Curatorial Studies
Venice)를 운영하는 오로라 폰다 박사와 함께
몰타기사단 수도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시를
관람하며 동시대 한국미술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시, 대신’ 읽어 준다.

* 본 프로그램은 아르코미술관 유튜브 채널
(@arkoartcenter)에서 시청할 수 있다.

*Far and Near: 30 Years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is a series of video
guides organized as a public program to help
visitors understand the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Dr. Kyoo Lee, Professor of Philosophy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will offer
a guided tour of the exhibition at Palazzo
Malta—Ordine di Malta in Venice, along with
Dr. Aurora Fonda, Director of the School for
Curatorial Studies Venice, to explain various
stories of Korean contemporary art, centered
around the history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far and near.’

* This program is available on ARKO
Art Center’s YouTube channel(@
arkoartcenter).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함께한
러쉬코리아는 '모든 섬은 산이다' 라는 개막 전시의
의미를 이어받아 100% 오가닉 실로 만든 에코백
위에 러쉬 아트페어 작품 30점을 펼쳐 산으로
표현했다.

Lush Korea embraced the theme of the
pre-opening exhibiti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by arranging the eco-friendly tote
bags, made from 100% organic cotton and
designed with the 30 artworks of the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Lush
Art Fair, in a mountain shape.

모든
섬은
산이다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19 April –
8 September, 2024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 – 2024

19 April –
8 September, 2024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Every
Island
is
a
Mountain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 행사 전경.
Bf 제공. 사진: 권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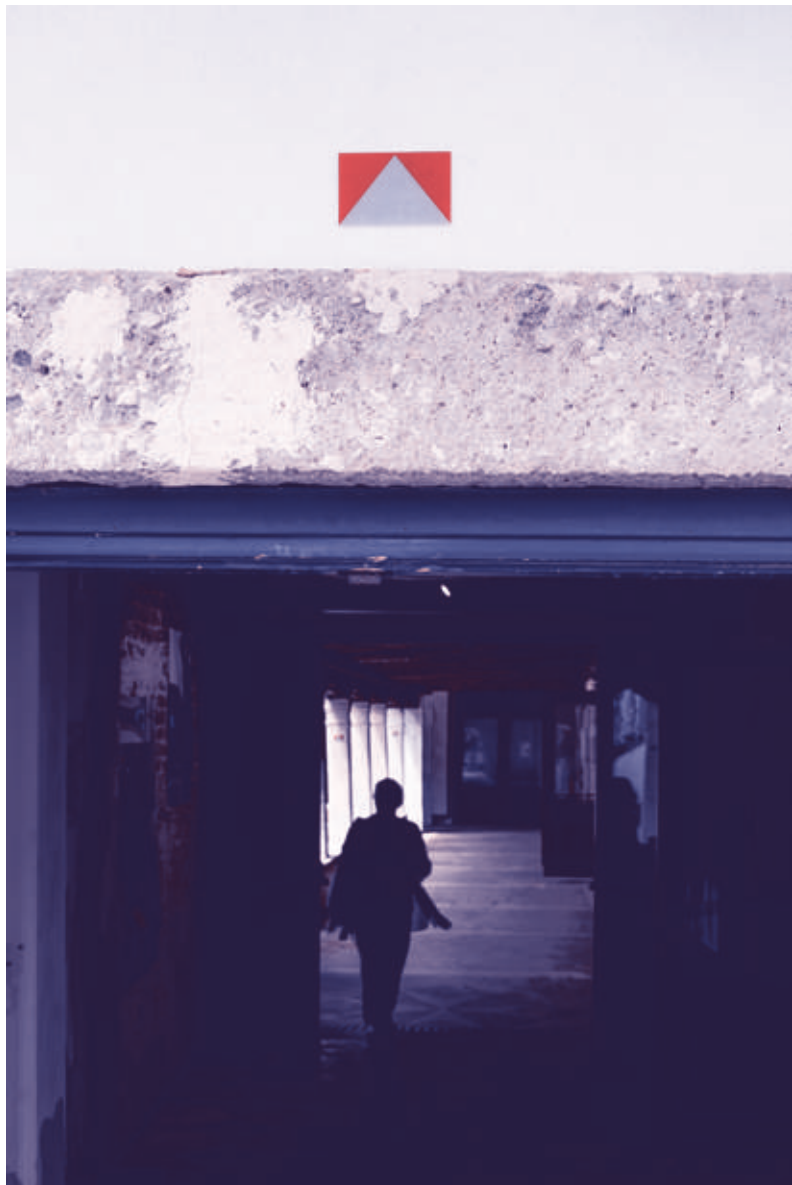
Opening view of 'Hyundai Night in
celebration of Korean Art'. Provided by Bf.
Photograph by Hyunjung Kwon.

Every
Island
is
a
Mountain









Every
Island
is
a
Mountain

전시

예술감독
임근혜

공동 큐레이터
심소미

협력 큐레이터

변영선

이준영

채병훈

프로덕션 매니저

구예나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호경윤

아카이브 연구원

이다영

아카이브 영상 작가

노송희

백종관

아카이브 자료제공

아르코예술기록원

모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섬은 만쿠조와 세레나

산이다 도시건축설계사무소

작품 대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이소사랑방

김인경 유족

윤형근 에스테이트

정연심

황다운

전시 디자인

아워레이보

그래픽 디자인

김영삼

신덕호

웹사이트

y!

영상 기록

이종훈

진경희

번역 및 감수

김재현

카를로 마르티엘로

마르타 짐바르도

황인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D.H. office

홍보 및 대외협력

에스팀

스피커

스타일크라시

운송

아트인파인아트

관리요원

자코모 페데리바

리카르도 리차델로

도나토 스피넬리

일라리아 지오라

지오다나 그릴로

마르타 무첼리

Exhibition

Artistic Director

Jade Keunhye Lim

Co-Curator

Somi Sim

Associate Curator

Youngsun Byun

Junyoung Lee

B.Jun Chae

Production Manager

Yena Ku

Senior Archive Researcher

Kyoung-yun Ho

Archive Researcher

Dayoung Lee

Archival Video Artist

Songhee Noh

Paik Jongkwan

Archival Materials given by

ARKO Arts Archive

Arts Council Korea

Mancuso e Serena Architeti

Associati

Lenders

MMCA Art Research

Center, Yiso Sarangbang

Kim In Kyum Estate

Estate of Yun Hyong-keun

Yeon Shim Chung

Hwang Da Eun

Exhibition Design

OUR LABOUR

Graphic Design

Sam Kim

Dokho Shin

Website

y!

Filmmaker

Lee Jong heun

Jin Gyeonghui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Jae Ted Kim

Carlo Martiello

Marta Zimbardo

In A Hwang

Project Management

D.H. office

PR & External Affairs

ESteeem

Speeker

Stylecracy

Shipping

ARTIN Fine Arts

Staff

Giacomo Pederiva

Riccardo Licciardello

Donato Spinelli

Ilaria Giora

Giordana Grillo

Marta Mucelli

공공 프로그램

1. 영상 가이드 투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년
다시/대신 읽기>

사회자 / 대담자
큐 리

초청 대담자
오로라 폰다

협력 큐레이터
채병훈

번역
인가희
Ben McBride(영문 검수)

교정/교열
채병훈
유지연(아르코미술관)

영상 촬영 및 제작
최수현

Public Programs

1. Video Guide Tour
*Far and Near: 30 Years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Moderator / Interlocutor
Kyoo Lee

Guest Interlocutor
Aurora Fonda

Associate Curator
B.Jun Chae

Translation
Gahee In
Ben McBride
(Proofreading in English)

Proofreading
B.Jun Chae
Ji Yeon Yu
(ARKO Art Center)

Filmmaker
Soohyun Choi

Every
Island
is
a
Mountain

모든
섬은
산이다

2. 전시 연계 담론 프로그램
<디어 오션 프렌즈>

협력
TBA21 아카데미 오션
스페이스

공동 기획
아르코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드리프팅 커리큘럼

프로그램 참여자
장치중
백영경
말커스 레이만
우테 메타 바우어
조지은(이끼바위쿠르르)
디자인 얼스
콜린 스티어링
엘레노라 소브라니
호아시아 크리사
필립 피로트
베라 메이
임근혜

프로그램 디렉터
조주현(드리프팅 커리큘럼)

협력 큐레이터
채병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유지연(아르코미술관)

E-브로슈어 디자인
김영삼

번역
ARThereby
김지현

교정/교열
조주현(국문)
채병훈(국·영문)

영상 촬영 및 제작
최수현

2. Two-day Discursive
Program *Dear Ocean Friends*

In Collaboration with
TBA21-Academy at Ocean
Space

Co-curated by
ARKO Art Center(Arts
Council Korea) and Drifting
Curriculum

Program Contributors
Chih-Chung Chang
Young-Gyung Paik
Markus Reymann
Ute Meta Bauer
Jieun Cho(ikkibawiKrr)
DESIGN EARTH
Colin Sterling
Eleonora Sovrani
Joasia Krysa
Philippe Pirotte
Vera Mey
Jade Keunhye Lim

Program Director
Juhyun Cho
(Drifting Curriculum)

Associate Curator
B.Jun Chae

Assistant Curator
Ji Yeon Yu
(ARKO Art Center)

E-Brochure Design
Sam Kim

Translation
ARThereby
Jihun Kim

Proofreading
Juhyun Cho(Korean)
B.Jun Chae
(Korean, English)

Filmmaker
Soohyun Choi

3. 전시 성과 공유
라운드테이블
〈모든 섬은 산이다: 에필로그〉

사회자
최혜주(아르코미술관)

프로그램 참여자
임근혜
여선희(아르코미술관)
심소미
조주현
호경윤

협력 큐레이터
유지연(아르코미술관)

영상 촬영 및 제작
소농지

3. Exhibition Closing Event
*Every Island is a Mountain:
Epilogue*

Moderator
Hyeju Choi
(ARKO Art Center)

Program Participants
Jade Keunhye Lim
Sunhee Yeo
(ARKO Art Center)
Somi Sim
Juhyun Cho
Kyoung-yun Ho

Associate Curator
Ji Yeon Yu
(ARKO Art Center)

Filmmaker
Sonongji

Every
Island
is
a
Mountain

도록

글

정병국

임근혜

심소미

정연심

김해주

조주현

편집

호경윤

진행

변영선

이다영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아워레이보

Bf

사진 촬영

권현정

박지민

그래픽 디자인

김영삼

신덕호

인쇄

청산인쇄

모든 번역 및 감수

섬은 김재현

산이다 조수지

발행

아르코미술관

발행일

2024년 8월 28일

ISBN

978-89-6583-126-6

비매품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제작하였으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아르코미술관과

작가 및 필자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2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도움 주신 분들

김은정

프랑코 만쿠소

아르코예술기록원

메이 지아

고(故) 마르코 파시

Publication

Contributors

Byoung Gug Choung

Jade Keunhye Lim

Somi Sim

Yeon Shim Chung

Haeju Kim

Juhyun Cho

Edited by

Kyung-yun Ho

Editorial Associate

Youngsun Byun

Dayoung Lee

Image Courtesy of

Arts Council Korea

ARKO Arts Archive

OUR LABOUR

Bf

Graphic Design

Sam Kim

Dokho Shin

Printing

Chungsan Printing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Jae Ted Kim

Susie Cho

Published by
ARKO Art Center

Published Date
August 28, 2024

ISBN
978-89-6583-126-6

Not for sale

The copyrights of the
texts and images are
retained by the authors,
the artists and ARKO Art
Center (Arts Council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 2024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Special Thanks to
Eun Jeong Kim
Franco Mancuso
ARKO Arts Archive
Mei Jia
Late Marco Passi



In partnership with



Sponsored by



Collaborator



Supported by





Every Island is a Mountain

30th Anniversary Exhibition Celebrating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t Biennale, 1995-2024